



All About Admissions

www.cbnu.ac.kr



1951 - 2021 | 지역의 뿌리로 70년, 세계로 꽃피울 100년.

충북대학교 개교 70주년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AA — All About Admissions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



All About Admissions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

#### | 대학입학전형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분석  
2022학년도 대입 전형별 지원 전략  
2022학년도 수도권 대학 지원 전략  
2022학년도 국가거점국립대 대학입학전형 분석

#### | 전문가 칼럼 |

입시 고민 상담 - 안녕하세요. 선생님!  
2015 개정 고교교육과정과 대입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 진로탐색 |

지능형 로봇의 현재와 미래  
미래사회와 함께 하는 산림과학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즐거운 고교생활

#### | 학습코칭 |

자기주도학습 코칭 역량검사  
꼭 알아둬야 할 자기주도학습의 7가지 원리



Copyright © 2020,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본 책자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책자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의 내용에는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충북대학교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951 - 2021

## 지역의 뿌리로 70년, 세계로 꽃피울 100년

### A DYNAMIC FUTURE

THROUGH COLLABORATION  
OF THE UNIVERSITY'S COMMUNITY

## 진리·정의·개혁의 건학 이념으로 이어온 70년의 역사

충북대학교는 학문의 발전을 선도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며, 국가와 사회의 미래 개혁에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학으로서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이라는 교육의 보편적 목표 실현에  
진력하면서, 충북 지역에 자리 잡은 학문공동체로서 개성 있는 지역 사회의  
문화 창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CONTENTS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



1951년부터 현재까지 진리, 정의, 개척의 건학이념으로 이어온 배움과 가르침의 70년 역사, 충북대학교의 이름으로 새로움을 열다.

### Part 1

#### I. 대학입학전형

- 8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분석
- 16 2022학년도 대입 전형별 지원 전략
- 26 2022학년도 수도권 대학 지원 전략
- 32 2022학년도 국가거점국립대 대학입학전형 분석



### Part 2

#### II. 전문가 칼럼

- 46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50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주요 사항
- 56 2015 개정 고교교육과정과 대입
- 68 입시 고민 - 안녕하세요, 선생님!

Copyright © 2020.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본 책자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책자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의 내용에는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충북대학교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 Part 3

#### III. 진로탐색

- 76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슬기로운 고교생활
- 82 자녀의 꿈만둑과 진로진학교육
- 88 지능형 로봇의 현재와 미래
- 94 미래사회와 함께 하는 산림과학
- 100 선배가 들려주는 진로 이야기



### Part 4

#### IV. 학습코칭

- 106 훈공시대 - 효과적인 인강 학습법
- 112 자기주도학습 코칭 역량검사
- 114 꼭 알아둬야 할 자기주도학습의 7가지 원리

지역의 뿌리로 70년,  
세계로 꽃피울 100년  
1951-2021



### Part 5

#### V. CBNU

- 122 충북대학교로 떠나보는 여행
- 124 사진으로 보는 충북대학교
- 126 2022학년도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 140 한 눈에 보는 대학입학전형
- 142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 All About Admissions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은  
수험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I .대학입학전형	8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분석
	16	2022학년도 대입 전형별 지원 전략
	26	2022학년도 수도권 대학 지원 전략
	32	2022학년도 국가거점국립대 대학입학전형 분석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분석

서울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진학컨설팅 단장 윤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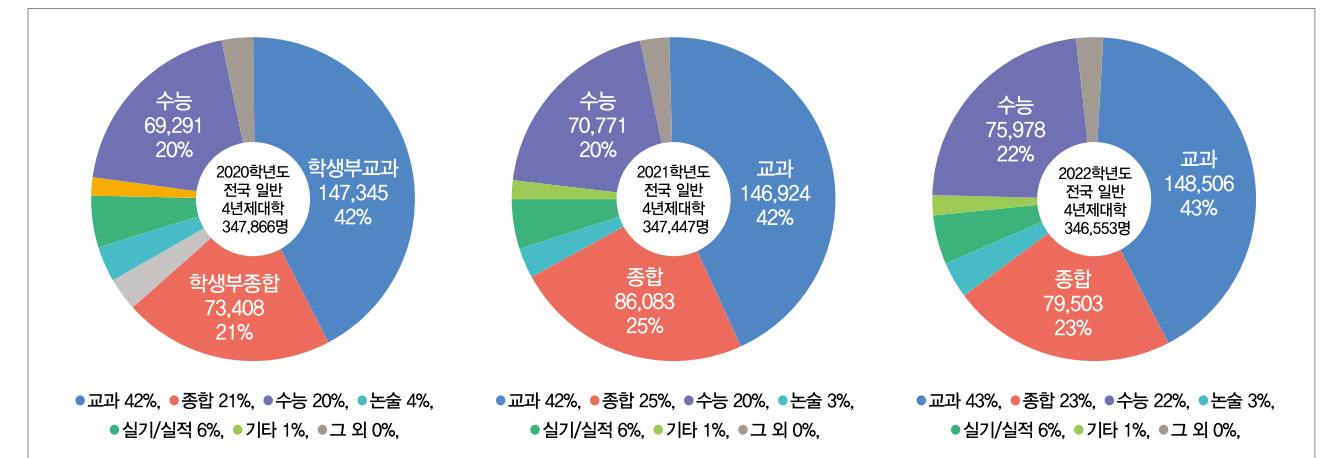
##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일정

2021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1(화)	2(목)	10(목)	14(화)	12(화)	18(목)	8(수)	15(수)	16(목)	17(금)	20(월)	27(월)	28(화)							
<div>←————→</div> 전형기간 <div>←————→</div>																			
수시 학생부 기준일	9월 평가원 모의 평가	수시모집 원서접수		서울시 교육청 모의 고사	수능 시험	수능성적 통지	수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11월	12월	2022년 1월						2월											
30(화)	30(목)	~	3(월)	6(목)	~	29(토)	8(화)	9(수)	11(금)	20(일)	21(월)	22(화)	~	27(일)	28(월)				
<div>←————→</div>												<div>←————→</div>				<div>←————→</div>			
정시 학생부 기준일	원서접수		전형기간			정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추가모집 원서접수 및 전형일 합격자발표			추가 등록 기간					

2022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9월 10일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며, 11월 18일 수능시험, 12월 8일 수능성적 통지, 12월 30일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고, 2022년 2월 8일 정시 합격자 발표, 2월 22일 추가모집이 시작된다.

## ▶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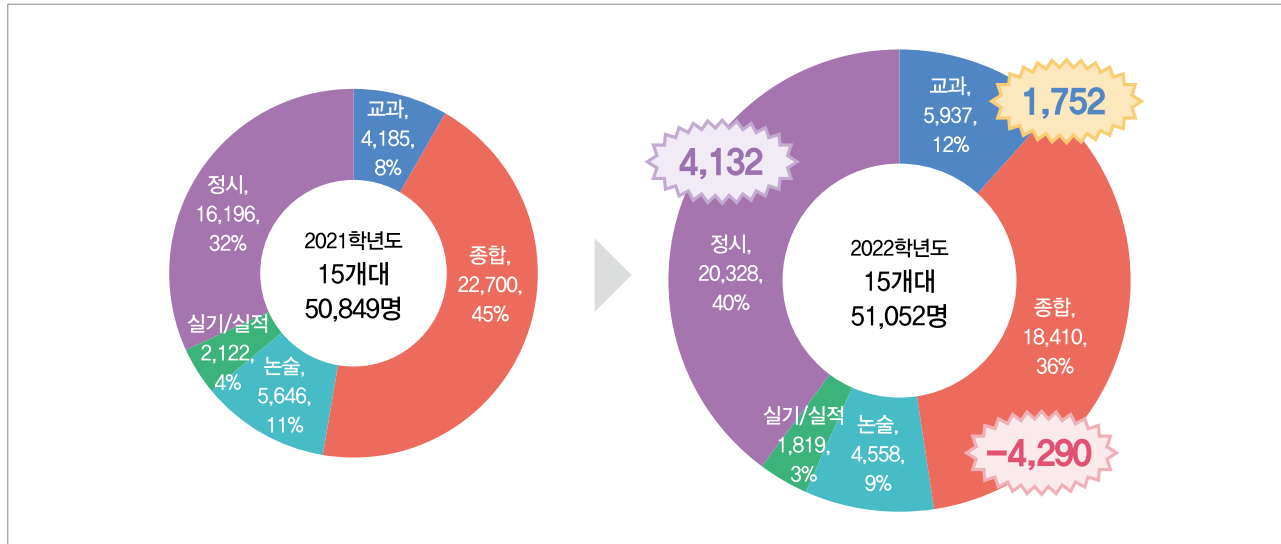
▣ 3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



3년간의 전국 4년제 대학 모집 인원 변화의 특징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이 계속 증가하다가, 2022학년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반면 정시 수능위주전형의 모집 인원이 약간 증가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서울 주요 대학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지역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은 큰 변화가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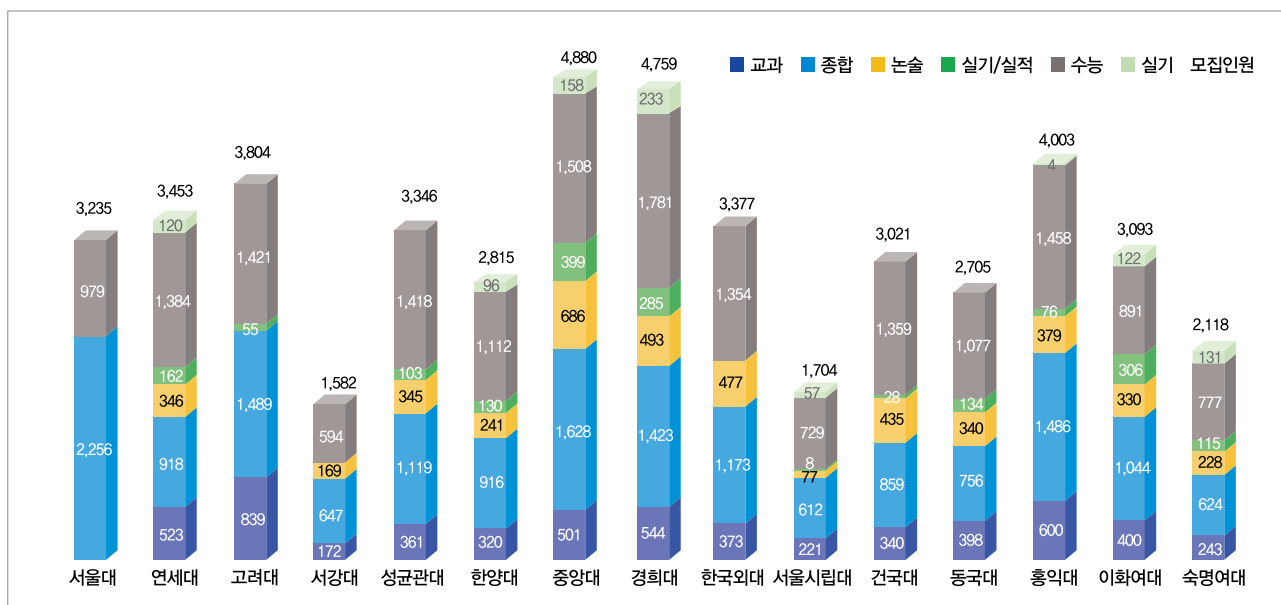
## 서울 주요 15개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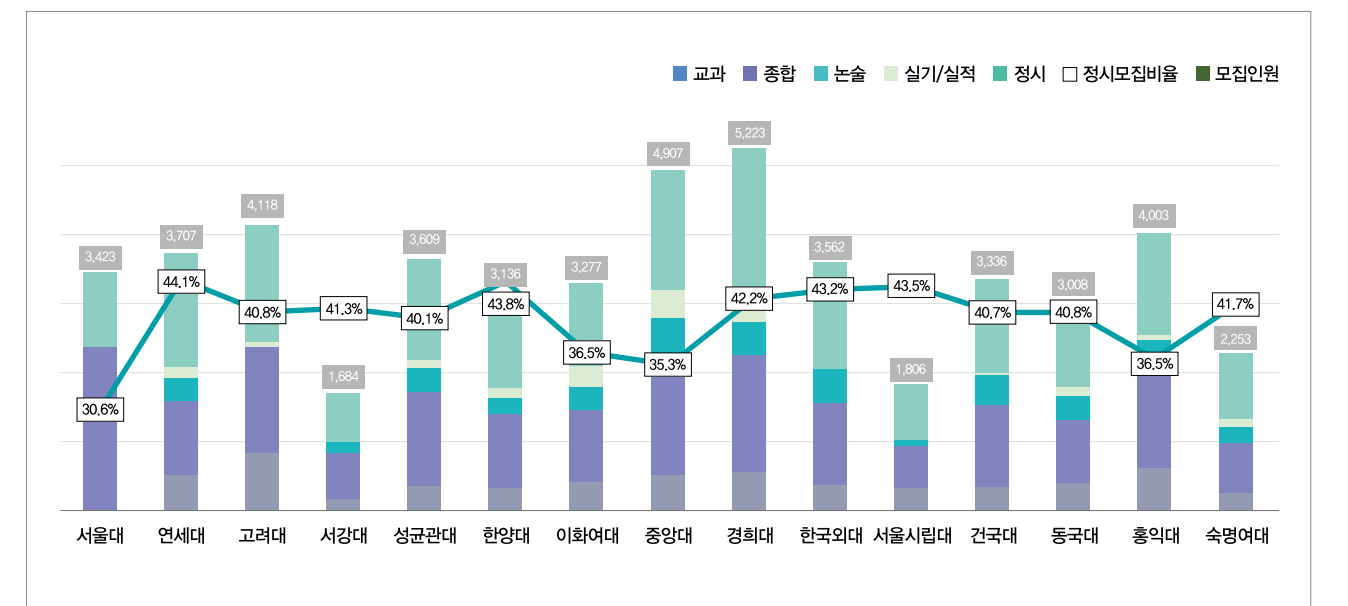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의 특징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이 4,290명이 줄어듦과, 정시 수능위주전형의 모집 인원이 4,132명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16개 대학 정시전형 확대 방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16개 대학에서 제외된 이화여대와 홍익대만 정시 인원이 감소하였다. 특히 수도권대학 지역균형선발전형 신설의 영향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이 1,752명이 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로써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권 대학 모두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논술전형은 이 대학들에서 1,088명 줄었으나, 가천대, 수원대 등이 적성전형 폐지로 논술전형을 신설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모집 인원은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인다.

## 서울 주요 15개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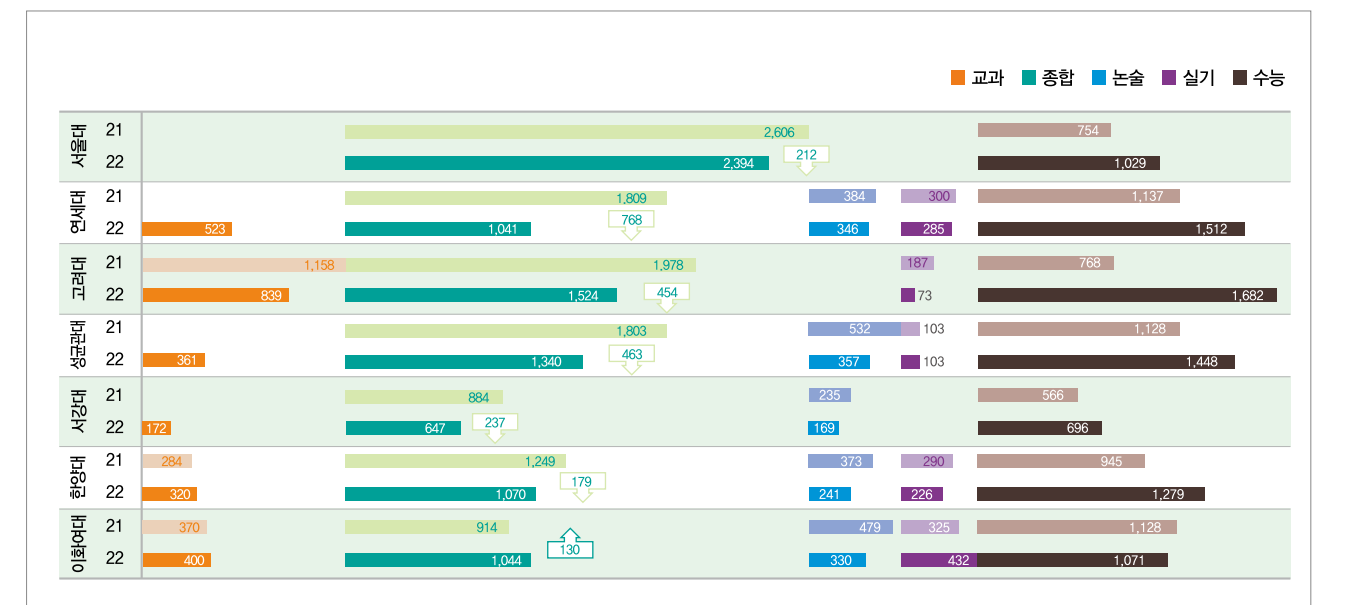


## 서울 주요 15개 대학 정시모집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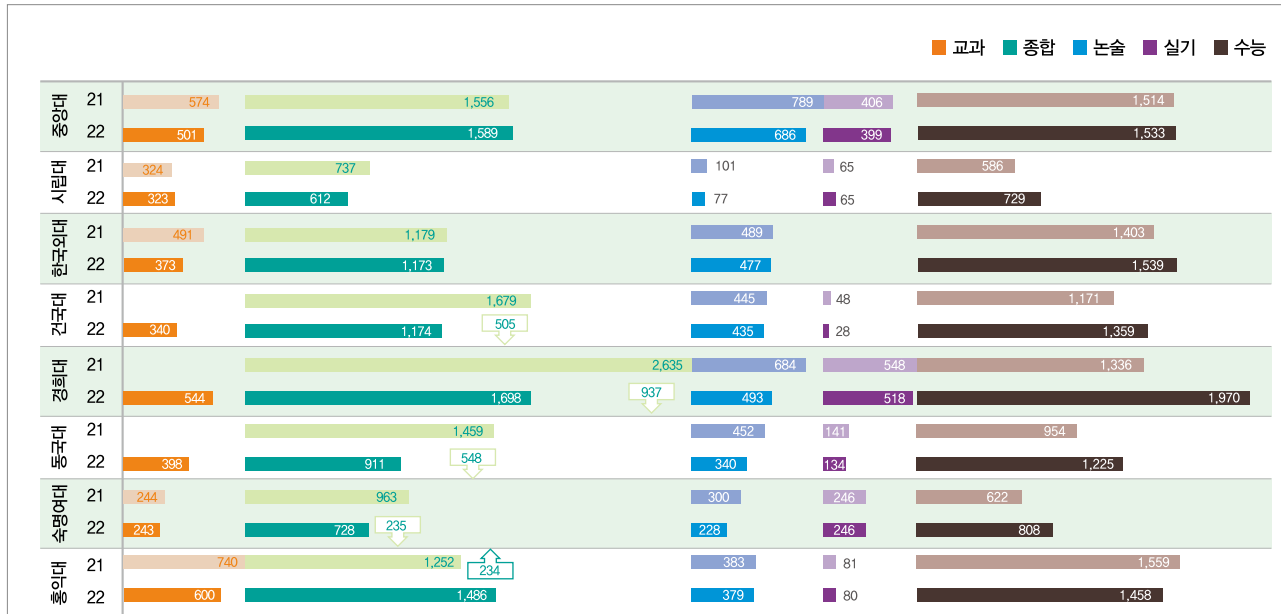


2023학년도부터 서울 16개 대학 정시모집 40% 확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정시모집을 확대한 대학이 많아졌다. 특히 연세대가 44.1%로 정시모집 인원을 늘리면서 실제로는 전체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을 정시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매년 수사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10% 정도임을 감안)

## 서울 주요 15개 대학 2021 vs 2022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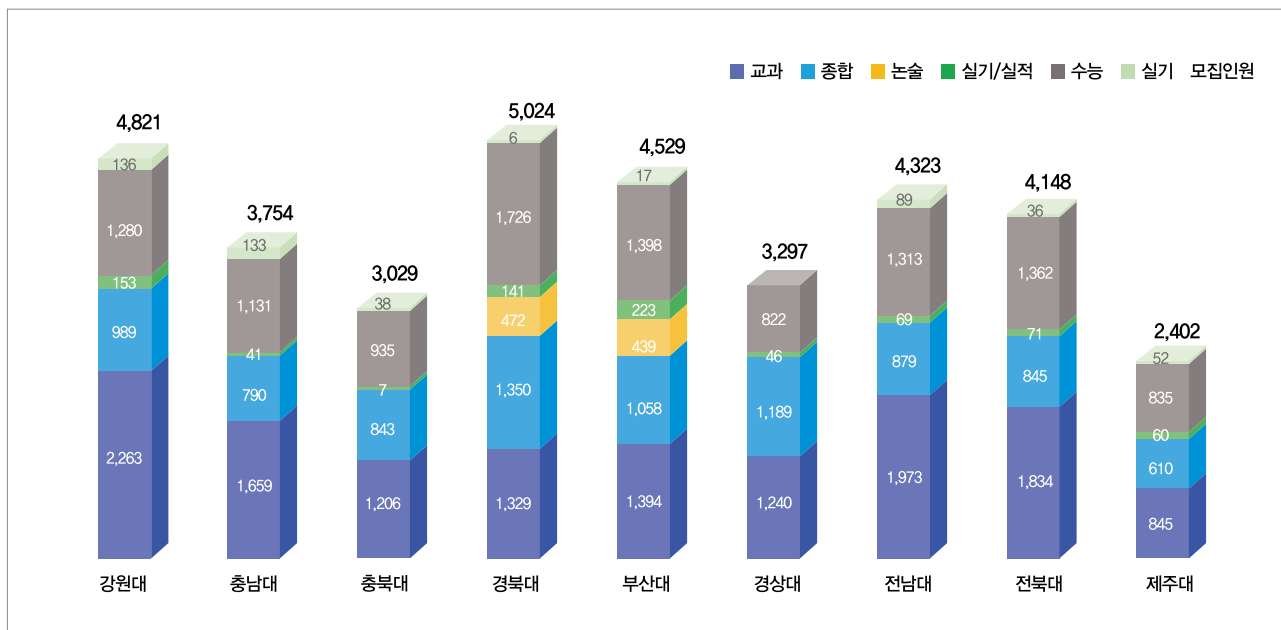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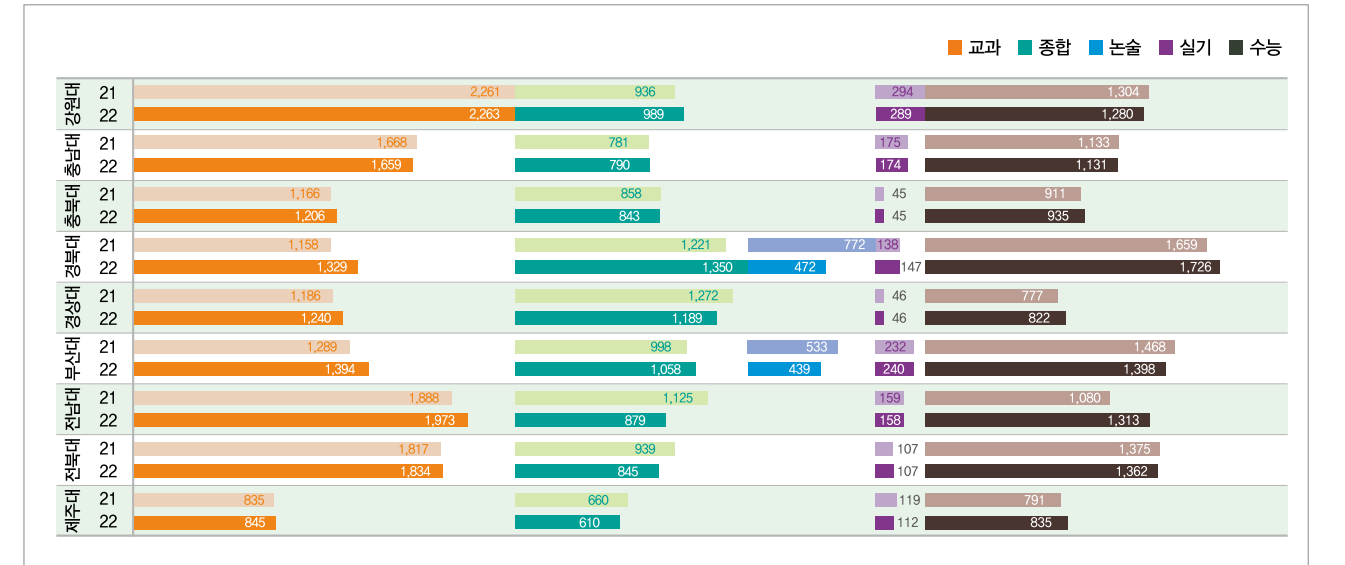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한 대학은 연세대 768명, 경희대 937명, 동국대 548명, 건국대 505명, 성균관대 463명, 고려대 454명 등이다.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는 종합전형을 교과전형으로 바꾸어 모집하고 있으며 성균관대, 서강대도 교과전형을 신설하였다. 정시모집 인원에서는 고려대가 914명을 늘렸으며, 경희대 634명, 연세대 375명, 서울대 275명 등 대부분 대학이 정시 확대에 동참하였다. 반면 홍익대, 이화여대는 각각 234명, 130명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을 늘리고 정시 모집 인원을 줄이고 있다.

#### 거점국립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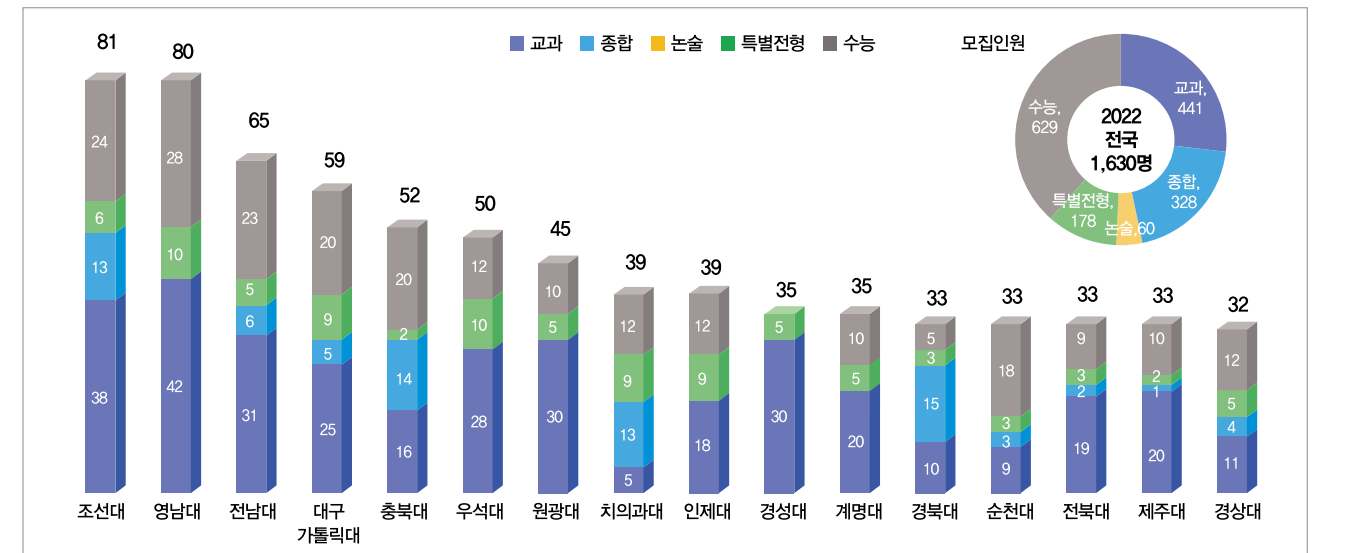
#### 거점국립대학 2021 vs 2022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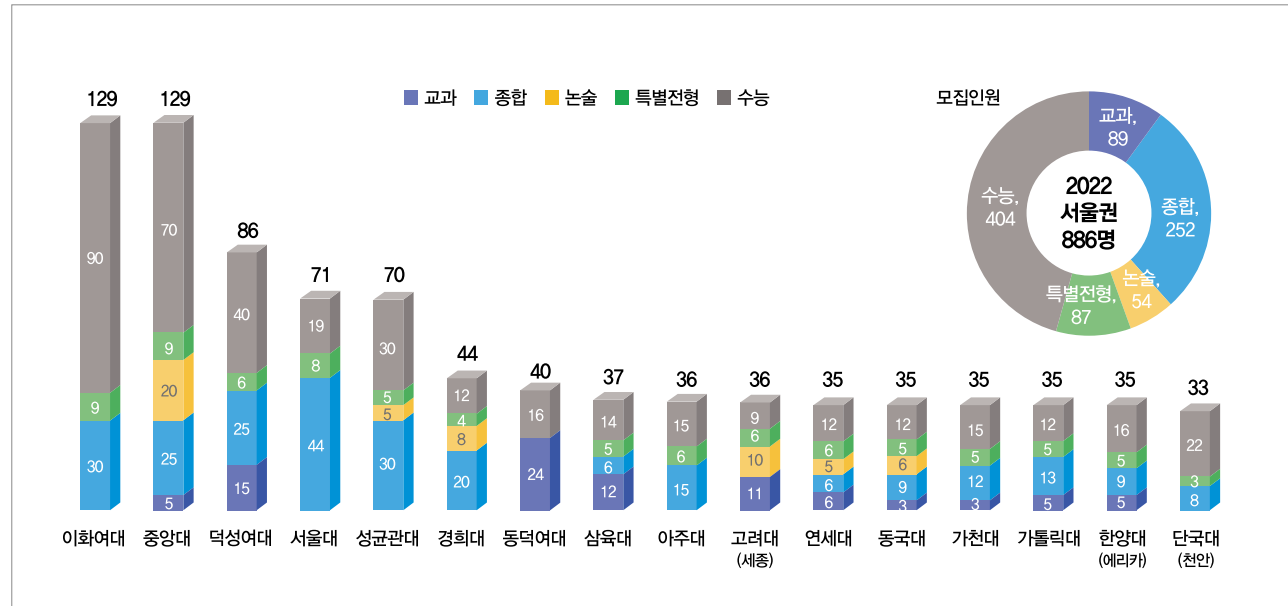
거점국립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은 큰 변화 없이 예년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대학이 학생부교과전형의 모집인원이 가장 많으며, 정시전형의 모집인원도 큰 변화가 없다. 전남대가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을 246명 줄이면서 교과와 정시전형을 약간 늘렸고, 경북대가 논술전형의 모집 인원을 300명 줄이면서 종합전형, 교과전형, 정시전형이 약간 명씩 증가하였다. 충북대 역시 큰 변화 없이 종합전형을 15명 줄이면서, 교과 40명, 정시 24명 늘렸다.

#### ▶ 약학대학 학부 신입생 선발

#### 약학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







2022학년도부터 충북대를 비롯하여 약학대학 학부 신입생 선발이 시작되는데, 전국에서 1,630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시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서울지역 대학은 종합전형, 지방대학은 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 충북대 역시 정시 수능전형으로 20명, 교과전형으로 16명, 특별전형을 포함해 종합전형으로 16명을 선발한다. 약학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에 따라서는 의대와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이공대의 수능최저를 따르는 대학도 있다. 2022 전형계획 기준으로 숙명여대와 목포대는 미발표 상태이며, 강원대, 부산대, 충남대 등은 아직 6년제 변경에 대해 미정인 상황이다.

## ▶ 고른기회 특별전형 정원 내 선발 비율 증가

모든 대학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학년도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2022학년도	29,103(8.4%)	24,443(7.1%)	53,546(15.5%)
2021학년도	23,344(6.7%)	24,262(7.0%)	47,606(13.7%)
2020학년도	22,442(6.5%)	23,885(6.9%)	46,327(13.3%)

또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인원도 증가하였다.

학년도	대학 수	모집 인원	총 모집 인원 대비 비율(%)
2022학년도	92개교	20,783	6.0
2021학년도	86개교	16,521	4.8
2020학년도	83개교	16,127	4.6

구분	전형명(중)	전형유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실기/실적	논술	기타
정원 내	고른기회 대상자(통합)	2,029	4,342		1		
	국가보훈대상자	186	200	5	15		
	농어촌학생	105	5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105	187				
	특성화고교 졸업자	63	59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7				
	만학도	154	53	25			
	성인학습자	234	453				11
	<b>지역인재</b>	<b>14,040</b>	<b>6,289</b>	<b>341</b>	<b>93</b>	<b>20</b>	
정원 외	농어촌학생	4,886	3,111	1,422	14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2,439	1,299	855	43		
	특성화고교 졸업자	1,834	745	457	20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1,244	3,980	0	120		194
	서해5도	73	37	0	2		
	장애인 등 대상자	391	969	149	30		
<b>합계</b>		<b>27,783</b>	<b>21,817</b>	<b>3,254</b>	<b>467</b>	<b>20</b>	<b>205</b>

## ▶ 대학별 수능 선택과목 도입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와 수학에 선택과목이 새로 도입되면서 대학별 지정과목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어는 모든 대학이 언어와 매체/화법과 작문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수학은 대학별 지정과목이 있는데, 미적분/기하 중 택 1 하는 대학이 55개교, 확률과 통계를 지정한 대학은 3개교이다. 다만, 수학에서 과목을 지정하는 대학 중에는 의학 계열이나 수학교육과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학탐구를 지정하는 대학은 61개교, 사회탐구를 지정한 대학은 2개교이다.

선택 지정과목	대학명
미적분/기하 중 택 1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아대, 동의대, 목포대, 부산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원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순천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항공대, 한림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홍익대
확률과 통계	대구한의대/한의학예과(인문), 동의대/한의학예과, 인제대/약학과

선택 지정과목	대학명
과학 중 택 2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아대, 부산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우석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대, 한림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홍익대
사회 중 택 2	대구한의대, 인제대



# 2022학년도 대입 전형별 지원 전략

경기 오산고등학교 교사 **한태명**



## 2022학년도 대입의 주요 특징

- 가. 전체 모집 인원 감소(2021 대비 894명 감소)
- 나. 정시 수능위주전형 증가(20.4% → 21.9%), 학생부교과전형 소폭 증가
- 다. 학생부종합전형 감소(24.8% → 22.9%), 논술전형 소폭 감소

구분	전형유형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8,506(42.9%)	146,924(42.3%)	147,345명(42.4%)
	학생부(종합)	79,503(22.9%)	86,083(24.8%)	85,168명(24.5%)
	논술 위주	11,069(3.2%)	11,162(3.2%)	12,146명(3.5%)
	실기 위주	18,817(5.4%)	18,821(5.4%)	19,377명(5.6%)
	기타(재외국민)	4,483(1.3%)	4,384(1.3%)	4,740명(1.4%)
	소계	267,374(75.7%)	267,374(77.0%)	268,776명(77.3%)
정시	수능 위주	75,978(21.9%)	70,771(20.4%)	69,291명(19.9%)
	실기 위주	7,470(2.2%)	8,356(2.4%)	8,968명(2.6%)
	학생부(교과)	201(0.1%)	270(0.1%)	281명(0.1%)
	학생부(종합)	347(0.1%)	424(0.1%)	436명(0.1%)
	기타(재외국민)	179(0.1%)	252(0.1%)	114명(0.0%)
	소계	84,175(24.3%)	80,073(23.0%)	79,090명(22.7%)
합계		346,553(100%)	347,447(100%)	347,866명(100%)

- 라. 사회통합전형 및 수도권대학 지역균형전형(학생부교과) 10% 실시
- 마.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전문성 강화 정책 지속
  - ① 고교정보 블라인드 서류 평가 및 면접 실시
  - ② 세부 평가 기준을 대입정보포털 및 모집요강에 공개
  - ③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면접 등 평가 과정 녹화
  - ④ 1인당 평가 시간 확대, 서류평가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가 의무화
  - ⑤ 고교유형별, 지역별 선발 결과 공개
- 바.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로 전환(절대평가: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 사. EBS 연계율 70% → 50%로 축소, 간접 연계로 전환
- 아. 적성고사 전형 폐지(가천대, 고려대(세종), 수원대 논술로 전환)
- 자. 약학대학 통합 6년제 선발
- 차. 대학별 수능 선택과목 지정대학 존재
- 카.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일정

구 분		2022학년도
학생부 작성 기준일	수시모집	2021. 8. 31.(화)
	정시모집	2021. 11. 30.(화)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2021. 9. 10.(금)~14.(화) 중 3일 이상
	전형 기간	2021. 9. 15.(수)~12. 15.(수) (92일)
	합격자 발표	2021. 12. 16.(목)까지
	등록 기간	2021. 12. 17.(금)~20.(월) (4일)
	미등록 총원 합격통보 마감	2021. 12. 27.(월) 21:00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1. 12. 28.(화)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2021. 12. 30.(목)~2022. 1. 3.(월) 중 3일 이상
	전형 기간	2022. 1. 6.(목)~29.(토) (가, 나, 다 군별 각 8일)
	합격자 발표	2022. 2. 8.(화)
	등록 기간	2022. 2. 9.(수)~11.(금) (3일)
	미등록 총원 합격통보 마감	2022. 2. 20.(일) 21:00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2. 2. 21.(월)
추가모집	접수·전형·합격통보 마감	2022. 2. 22.(화)~27.(일) 21:00
	등록 마감	2022. 2. 28.(월)





## 수시 및 정시모집 주요 전형별 지원 전략

### 01.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 가. 학생부교과전형의 특징

- 수능 최저 없으면 내신이, 수능 최저 있으면 최저 통과가 중요하다.
- 학교마다 내신점수가 다르다. 아래 사항을 각 대학 수시 요강에서 확인해야 한다.
  - ① 반영 과목(전 과목/일부 과목)
  - ② 반영 비율(학년별, 과목별)
    - 전 과목: 교대, 전문대(보통 1~2학기 전 과목) 등
    - 국영수사/국영수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 국립대 등
    - 국영사/수영과 등 일부 과목: 수도권 일부 대학, 일부 지방 사립대 등
- 경쟁률 낮고, 중복 합격자가 많다. → 총원 합격 유리
- 전년도 합격자 성적 참고 시 유의사항
  - 최저 변화, 전형 변화, 선발인원 수 변화 등의 변화 유무를 꼭 살펴야 한다.

#### 나. 2022 대입 학생부교과전형의 다양한 반영 방법 예시

- 계열별 학생부 반영 교과 및 면접, 최저의 유무를 살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의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

대학	전형 유형	계열	반영 교과	교과	면접	점수 산출 활용 방법	최저 유무
광운대	지역균형	인문	국, 수, 영, 사	100		석차 등급	×
		자연	국, 수, 영, 과				
국민대	교과성적 우수자	인문	국, 수, 영, 사	100		석차 등급	○
		자연	국, 수, 영, 과				
이화여대	고교추천	전 계열	국, 수, 영, 사, 과	80	20 (면접)	석차 등급	×
충북대	학생부 교과	인문	1학년: 국,영,수,사,과 2, 3학년: 국,영,수,사	100		석차 등급	○
		자연	1학년: 국,영,수,사,과 2, 3학년: 국,영,수,과				

#### 다. 주요 대학 2022 학생부교과전형 진로선택과목 반영 방법

-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등급이 제공 안 되는 진로선택과목의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다르다. 미반영하는 대학교도 있으나 수도권의 많은 대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하는 만큼 진로선택과목도 높은 성취 수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전형명	반영 여부	반영 과목 수	성취도별 환산 등급
고려대	학교추천	반영	전체	성취도별 환산 등급
동국대	학교장추천	반영		정성평가
서강대	고교장추천	반영	전체	성취도별 비율 환산 점수
서울시립대	지역균형선발	미반영		
성균관대		반영	20% 반영	정성평가
연세대	추천형	반영	전체	성취도 환산 점수
이화여대	고교추천	반영	전체	원점수, 평균 환산
중앙대	지역균형	반영	전체	미발표
한국외대	학교장추천	미반영		
한양대	지역균형	반영	우수 최대 3과목	미발표
홍익대	학교장추천	반영	10% 반영	미발표

#### 라.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지역균형전형

- 2022 대입부터 수도권대학은 지역균형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10%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많은 학교가 학교당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추천 기준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당 대학들은 최저학력기준이 대부분 있으므로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대학	전형명	모집 인원	학교당 추천 인원	졸업생
가톨릭대	지역균형	232	15명 이내	○
경기대	지역균형	316	20명	○
경희대	고교연계	544	인문 2, 자연 3, 예술 1	×
고려대	학교추천	839	재학생의 4%	○
단국대	지역균형선발	261	8명	○
동국대	학교장추천인재	398	7명	○
상명대	고교추천	336	10명	○
서강대	고교장추천	172	10명	×
서울과학기술대	고교추천	172	10명	○
서울시립대	지역균형	192	4명	○
성균관대	학교장추천	361	재학생의 4%	○
세종대	지역균형	118	인문 3, 자연 5	○
숙명여대	지역균형선발	243	재학 여학생의 10%	○
연세대	추천형	523	재학생의 5%	×
이화여대	고교추천	400	5%(최대 10명)	○
인하대	지역추천인재	385	7명	○
중앙대	지역균형	501	10명	×
한국외대	학교장추천	서울:200/글로벌:173	20명	○
한양대	지역균형발전	320	재학생의 11%	○
홍익대	학교장추천자	237	5명	○



### 마. 2018~2020학년도 수시 주요 전형 경쟁률

-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의 영향력이 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작년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다.

수험 년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2018	8.12	9.77	40.6
2019	7.03	9.77	39.12
2020	6.97	9.37	41

### 바. 2020 대입 수시 주요 대학 전형별 충원율 비교

-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 학생부교과전형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수시 6번의 기회 중 여러 기회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지원하므로 충원율 역시 가장 높다.

대학명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서울시립대	187	48	9
숙명여대	137	75	41
중앙대	130	97	36

## 02.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 가.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

1. 학생부종합전형: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형 자료(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면접)를 심사하고, 학업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선발방법이다.
2. 서류 평가
  - 학생부(교과+비교과)
  - 자기소개서(2020년 기준 고2, 1 축소, 중3부터는 폐지)
  - 추천서(2020년 기준 고2부터 폐지)
3. 면접: 제시문 면접, 서류 확인 면접
  - 제시문 면접: 면접을 보기 전에 일정한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을 주고 제시문 문제를 풀 시간을 준 후 면접장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는 면접 방식(서울대 일반전형, 고려대 학업우수형, 연세대, 카이스트, 지스트 등)
  - 서류 확인 면접: 학생이 제출한 서류에서 해당 사실 여부 및 동기, 구체적 과정, 느낀 점 등을 질문하는 면접 방식(면접을 치르는 대부분의 대학)

### 나. 2022 주요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방법

- 많은 대학이 1단계에서 서류로 3~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면접을 보거나 서류 100%로 일괄 선발한다. 서울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최저학력기준이 없으므로 교과성적을 포함한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전형 방법	해당 대학(최저 유무)
서류 100%	명지대 서류형(×), 덕성여대 인재1(×), 국민대 생활우수자(×), 서강대(×), 중앙대 탐구(×), [성균관대 계열모집, 학과모집(×)], 단국대DKU(×), 이화여대 미래인재(○), 홍익대(○), 한국외대 서류형(×) 등
서류+면접	서울대 지군(서류 7+면접 3, 0)
학생부 100%	한양대(×), 숙명여대 인재1(×), 한양대 에리카(×)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면접	중앙대 다빈치(×), 연세대(활동우수, 국제)(○), 경희대(○), 서울대 일반(×), [고려대 학업우수(○), 계열적합(×)], 건국대(×), 한국외대 서류형(×), 시립대(×), 동국대(×), 숙명여대 인재2(×), 국민대 프런티어(×), 세종대(×), 숭실대(×), 인하대 미래인재(×), 아주대 ACE(×), 한국항공대(×), 서울과기대(○), 광운대(×), 명지대 면접(×), 가천대 바람개비(×) 등

### 다. 학생부 개편 내용

- 2022 대입을 치르는 고2부터 학생부의 많은 부분이 개편된다. 그중 수상(1학기 1개 대학에 제공, 자율동아리 (1년 1개 – 동아리명 + 설명 = 30자), 교과세특(진로선택과목 성적 따로 표기)의 변동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2022 대입부터는 추천서가 폐지되고 자소서의 문항 및 글자 수가 감소해 상대적으로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졌으므로 학생부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

항목			2020 고3	2020 고2, 고1	2020 중3
1. 인적 사항			현행과 같음	① 인적, 학적사항으로 통합 ② 인적-부모란 삭제	
2. 학적 사항			현행과 같음		
3. 출결 상황			용어 변경: 무단 → 미인정		
4. 수상 경력			현행과 같음	1학기에 1개만 대학에 제공	대입 미반영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현행과 같음	① 기록은 현행과 같음 ② 대학에 미제공	
6. 진로희망 사항			현행과 같음	① 항목 삭제 but 진로희망사항은 창체의 진로활동으로 이동 ② 진로희망 사항 대학에 미제공	
7.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	특기 사항	① 소논문기재 가능 (연구주제, 참여인원, 소요시간) ② 글자 수 감소 ㉠자율(1,000→500) ㉡동아리(500→500) ㉢봉사(500→500) ㉣진로(1,000→700)	① 자율동아리 학년당 1개 (동아리명 + 설명 = 30자) ② 봉사활동 특기사항 삭제 ③ 글자 수 감소 -고3과 같음	① 자율동아리 미반영 ② 개인봉사활동 실적 미반영 (학교봉사는 반영) ③ 봉사활동 특기사항 삭제 ④ 글자 수 감소 -고3과 같음
		정규 자율			
	봉사				
8.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성적		① 기초교과(군), 탐구교과(군) 과목은 모든 학생에 대해 교과세특입력 ② 개인세특입력 사항 한정	앞의 고3내용 + ① 진로선택과목 부분 신설 ② 방과후 학교 미기재	앞의 고2 내용 + 영재, 발명 교육 관련 미반영
	교과세특				
9. 독서활동상황			현행과 같음		대입 미반영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글자 수 감소(1,000→500)		



#### 라. 자소서 개편

- 2022 대입부터 자소서 1번과 2번 항목이 합쳐지고 각 항목의 글자 수가 감소된다. 1, 2번 통합 문항과 3번 문항의 정확한 질문 내용은 향후 공개될 예정이다.

항목	현행(고3)	개선안(고2, 고1)
1번	1번(학습 경험): 1,000자	1, 2번 통합(1,500자)
2번	2번(교내 활동): 1,500자	
3번	나눔, 배려, 협력: 1,000자	800자
4번	대학 자율 문항: 1,500자	800자
계	4개 문항 5,000자	3개 문항 3,100자

### 03. 정시 수능위주전형

#### 가. 수능위주전형 지원 전략

1. 성적에 맞춰 대학에 진학하거나 학과보다는 대학 선호도가 우선시 되어 지원하는 경우, 입학 후 중도 탈락이 정시모집에서 수시모집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시모집에서도 지원 전공을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2. 인문 계열에서도 인문, 사회, 경상대학에 따라, 자연 계열에서는 자연과학, 공학, 보건 계열에 따라 수능 반영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희망 전공에 따라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에 맞추어 학습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3. 정시모집에서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 인원이 적은 모집 단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수시 이월 인원도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 인원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4. 탐구영역은 학교에서 교과 성적과 관련이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과목별 응시 인원 및 혹시 모를 수시 지원 시 면접시험 준비를 위한 교과 선택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인문계의 경우 제2외국어 및 한문을 사탐으로 대체 가능한 대학 및 탐구 1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해당 사항 여부를 꼭 살펴봐야 한다.
5. 한국사 영역에서 의외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의학 계열을 제외한 많은 대학이 3~5등급 정도만 되면 감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틈틈이 학습하도록 한다.

#### 나. 주요 대학 2022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율

- 수도권 대부분 대학은 정시 수능위주전형에서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일부 대학은 학생부 및 면접을 반영하기도 한다.

구분	100%	90%	80%
가군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		
나군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강원대 등	을지대일반(학생부10), 광주교대 2단계(면접10) 등	공주대(면접20), 진주교대 2단계(면접20) 등
다군	중앙대, 한국외대, 건국대, 홍익대 등		

#### 다. 2022학년도 영역별 반영 비율 - 인문 계열

- 2022 대입 정시에서 서울권의 많은 대학이 국, 영, 수 영역은 표준점수를, 탐구는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한다. 더불어 인문계의 경우 국어, 수학 탐구의 지정과목은 따로 없다.

대학	활용지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기타
			미적분	기하	확통		사 과	
서울대	표준점수	33.3	40			감점	26.7	
연세대	표점+변표	33.3	33.3			16.7	16.7	
고려대	표점+변표	35.7	35.7			감점	28.6	
이화여대	표점+변표	30	25			20	25	
중앙대	표점+변표	40	40			가산	20	
경희대	표점+변표	35(25)	25(35)			15	20	한국사5%
충북대	표준점수	30	20			20	30	

※ 괄호( ) : 경희대(사회)

#### 라. 2022학년도 영역별 반영 비율 - 자연 계열

- 2022 대입 정시에서 자연계의 경우 일부 대학이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기하를, 탐구에서 과학탐구를 지정 과목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과별 수능 반영 영역을 잘 살펴봐야 한다.

대학	활용지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기타
			미적분	기하	확통		사 과	
서울대	표준점수	33.3	40			감점	26.7	
연세대	표점+변표	22.22	33.33			11.11	33.33	
고려대	표점+변표	31.25	37.5			감점	31.25	
이화여대	표점+변표	25	30			20	25	
중앙대	표점+변표	25	40			가산	35	
경희대	표점+변표	20	35			15	25	한국사5%
충북대	표준점수	20	30(*)			20	30(*)	

※ 괄호( ) : 충북대(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수학-미적분/기하, 탐구-과탐만 가능)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문항 수, 배점, 시간

–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성적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영역		구분	문항 수	문항 유형	배점		시험 시간
					문항	전체	
국어			45	5지선다형	2점, 3점	100점	80분
수학			30	5지선다형, 단답형	2점, 3점, 4점	100점	100분
영어			45	5지선다형 (듣기 17문항)	2점, 3점	100점	70분
한국사(필수)			20	5지선다형	2점, 3점	50점	30분
탐구	사회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점, 3점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과학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점, 3점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직업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점, 3점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제2외국어/한문			과목당 30	5지선다형	1점, 2점	과목당 50점	과목당 40분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의 변화

– 2022 대입부터는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존재하고 탐구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폐지된다. 국어와 수학 선택 과목의 경우 당해 연도 수능의 난이도에 따른 평균 점수를 고려하여 점수 조정을 할 수도 있다.

과목 (영역)			출제 범위	
			2021학년도 대입 수능	2022학년도 대입 수능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언어와 매체 (언어만 출제)	공동: 독서, 문학 <b>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b>
수학			*가형: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와 벡터 빠짐) *나형: 수학, 수학, 확률과 통계 (지수로그함수 추가)	(문과/이과 구분 폐지) 공동: 수학Ⅰ, 수학Ⅱ <b>선택: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b>
영어			영어Ⅰ, 영어Ⅱ (절대평가)	변화 없음
한국사			한국사 (절대평가)	변화 없음
탐구	일 반 계	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중 2과목 선택	<b>(문과/이과 구분 폐지)</b>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택 2 * 사회: 9과목 * 과학: 8과목(과학Ⅰ·Ⅱ) 17과목 중 최대 택 2
		과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중 2과목 선택	
	직 업 계	직업	직업 계열 중 택2 * 직업: 10과목 (농·공·상업·수산·가사 5개 계열당 2씩)	1과목 선택: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의 기초, 인간발달 중 택 1 2과목 선택: 위 5개 과목 중 택 1 + 성공적인 직업 생활
제2외국어/한문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9과목 중 택1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9과목 중 택 1(절대평가)

사.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예시)

– 한국사와 영어,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 절대평가이므로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제공되지 않는다. 서울권 및 지역거점 국립대의 경우는 표준점수를 주로 활용하고 지방권 대학일수록 백분위를 주로 활용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 연도)		
12345678	홍길동		03.09.05	남	한국고등학교(9)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생활과 윤리	지구 과학Ⅰ	독일어Ⅰ
표준점수		131	137		53	64	
백분위	2	93	95	1	75	93	2
등급		2	2		4	2	

- 등급: 수시의 최저 충족 여부에 주로 활용
- 표준점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척도
- 백분위: 응시 학생 전체에 대한, 자기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집단 비율

아. 절대평가 과목의 등급 구분 원점수

– 2022 대입부터 제2외국어/한문이 절대평가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아랍어 선택률은 감소하고 중국어의 선택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구분 원점수	영어	90	80	70	60	50	40	30	20	0
	제2외국어/한문	45	40	35	30	25	20	15	10	0
	한국사	40	35	30	25	20	15	10	5	0

자. 2022 대입 대학발표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과목

– 2022 대입부터 꽤 많은 대학이 수능에서 수학 및 탐구 영역 선택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2020년 4월 30일 대교협 발표 기준으로 수학에서 미적분/기하를 지정하고 있는 대학은 총 56개 대학이고(이 중 28개 대학은 자연 계열 모든 학과, 28개 대학은 자연 계열 일부 학과), 탐구 영역에서 과학탐구 2개를 지정한 대학은 62개 이다.(이 중 36개 대학은 자연 계열 모든 학과, 26개 대학은 자연 계열 일부 학과)

\* 대교협 발표 자료 2020. 4. 30. 기준

구분		지역별	자연 계열 전체	자연 계열 일부	의약학
수학	미적분/ 기하 중 택 1	서울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광운대, 숭실대	덕성여대
		인천/경기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에리카), 단국대	한국항공대	가천대, 가톨릭대, 차의과학대
		기타 지역	홍익대(세종)	지역거점국립대 등	지역소재대 일부 등
탐구	과학 탐구 중 택 2	서울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인천/경기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인천대, 한양대(에리카)		가천대, 가톨릭대, 차의과학대
		기타 지역	연세대(미래), 홍익대(세종) 등	고려대(세종), 단국대(천안), 지역거점국립대 등	지역소재대 일부 등



# 2022학년도 수도권 대학 지원 전략

서울 경신고등학교 교사 **김창묵**



2022학년도에는 교육과정과 대입 전형구조 개편으로 대입제도가 큰 폭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정시 수능 위주 전형만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규모가 다소 축소되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다소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능 제도 개편 이외에 2022학년도에 달라지는 대입 전형의 특징을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20학년도 대입전형 특징

- 01 | 대학별 대입 전형 규모의 변화
- 02 |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부 교과형 지역 균형 전형 신설 및 확대
- 03 | 학생부 위주 전형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확대
- 04 | 수능체제 개편에 따른 수능 선택과목 지정
- 05 | 약학대학 학부 모집

## 01 | 대학별 대입 전형 규모의 변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국적으로 정시 수능 위주 전형 규모가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대학이 그런 것은 아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 인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서울 소재 중상위권 이상의 일부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 인원 규모가 다소 축소되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 규모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대학 범주별로 전형 간 규모 비율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 규모가 늘어나 대입 전형구조 개편으로 전형 간 규모의 균형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31.2%,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3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부교과전형도 18.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선호도가 낮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규모가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 범주별 모집 인원 비율 비교<sup>1)</sup>

구분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실적	수능 위주
서울 최상위권 <sup>2)</sup>	11.4	39.4	6.3	3.4	39.6
서울 상위권	11.2	32.7	11.2	4.5	40.4
서울 중상위권	12.5	34.1	11.0	2.8	39.6
서울 중위권	15.4	35.7	7.9	3.0	38.0
서울지역 여대	16.9	29.3	5.8	9.8	38.2
인천경기 상위권	20.5	31.1	8.1	5.3	34.9
서울 경기 중하위권	44.4	16.4	3.0	8.3	27.8
평균	18.9	31.2	7.6	5.3	36.9

대학별로 비교해보면, 연세대, 동국대, 경희대, 건국대, 성균관대, 고려대 등이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 인원 규모가 전년도와 비교해 10% 이상 축소되었고, 고려대, 경희대, 숙명여대, 한양대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규모가 10% 이상 확대되었다.

서울 소재 24개교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 비교

대학명	2022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				전년 대비 모집 인원 비율 변화(%)			
	교과	종합	논술	수능	교과	종합	논술	수능
건국대	10.2	35.2	13.0	40.7	10.2	-15.0	-0.3	5.1
경희대	10.4	32.5	9.4	42.2	10.4	-18.1	-3.7	12.4
고려대	20.4	37.0		40.8	-7.9	-11.3		22.1
광운대	10.7	42.9	9.9	35.6	2.7	-3.4	-1.0	1.7
국민대	12.1	45.2		37.2	-1.9	0.0		1.8
덕성여대	23.2	25.6	8.9	38.1	6.3	2.7	-10.1	1.0
동국대	13.2	30.2	11.3	40.8	13.2	-18.3	-3.7	9.0
동덕여대	25.7	17.4		40.9	1.4	0.0		3.8
서강대	10.2	38.4	10.0	41.3	10.2	-13.9	-3.9	7.6
서울과학기술대	18.0	31.7	9.9	37.5	0.8	-1.5	-1.7	2.4
서울대		69.4		30.6		-8.1		8.1
서울시립대	17.9	33.9	4.3	43.5	0.0	-6.8	-1.3	8.2
서울여대	10.8	36.6	7.1	40.8	-2.7	-1.6	-1.8	6.2
성균관대	10.0	37.1	9.9	40.1	10.0	-13.4	-5.0	8.5
성신여대	11.6	34.9	7.5	34.2	-2.4	0.9	-0.9	1.6
세종대	19.9	26.4	12.5	38.3	0.1	-0.6	-0.2	0.8
숙명여대	10.8	32.3	10.1	41.7	0.5	-8.2	-2.5	11.6
송실대	15.8	32.6	9.4	40.5	-0.2	-5.7	-0.4	6.2
연세대	14.1	28.1	9.3	44.1	14.1	-21.8	-1.2	9.0
이화여대	12.2	31.9	10.1	36.5	0.7	3.4	-4.8	1.3
중앙대	10.2	32.4	14.0	35.3	-1.7	0.2	-2.3	4.0
한국외대	10.5	32.9	13.4	43.2	-3.3	-0.2	-0.3	3.8
한양대	10.2	34.1	7.7	43.8	1.2	-5.6	-4.2	10.6
홍익대	15.0	37.1	9.5	36.5	-3.4	5.9	-0.1	-2.3
소계	13.5	34.8	8.2	39.4	2.4	-5.9	-2.1	6.0

1) 2022학년도 전형별 대학별 모집 인원 자료는 2022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2020. 4. 30. 대교협) 기준이며,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 인원은 제외한 통계자료임. 이하 같음.

2) 전년도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서울지역 24개 대학을 최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으로 분류함.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2022학년도부터 수험생들은 내신성적과 수시전형 준비 정도에 따라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을 별개로 준비하기보다는 학생부 위주 전형, 수시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3개 트랙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듯하다.

## I 02 |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부 교과형 지역 균형 전형 신설 및 확대

2022학년도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sup>3)</sup>에 따라 수도권 소재 대학들에 지역 균형 전형이 도입되는데 대체로 학교장 추천 성격의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 균형 전형은 이전 연도에 실시된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혹은 추천 전형이 아닌 학생부교과전형이 변형된 사례도 있고, 새로 신설된 일도 있는데 교육부 기준안에 따라 전체 선발 인원의 10%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학생부 교과형 지역 균형 전형 시행 대학

구분	실시 대학(개)	모집 인원(명)		수능 최저기준 적용 대학 비율(%)	
		2022학년도	2021학년도	적용	미적용
서울	26	8,559	5,754	65.4	34.6
인천	3	895	259	66.7	33.3
경기	11	1,905	1,037	54.5	45.5
합계	40	11,359	7,050	62.5	37.5

지역 균형 전형의 특징은 전형 시행 대학의 60% 정도가 추천 인원을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62.5%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천 인원이 제한되는 대학의 경우, 일선 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체로 무제한 복수 추천 보다는 일정한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합격자의 내신성적이 예상 보다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과 일정 수준의 내신성적 유지를 통해 학생부 교과형 지역 균형 전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대학별 학생부 교과형 지역 균형 전형 선발 현황은 아래와 같다.

대학별 학생부 교과형 지역 균형 전형 현황 실시 대학

대학명	학생부교과전형		
	전형명	수능 최저	추천 기준
건국대	KU지역균형	2개합 5	
경기대(서울)	학교장추천	2개합 7	20명
경희대	고교연계	2개합 5	인문 2, 자연 3, 예체 1
고려대	학교추천	3개합 5/6	4%
광운대	지역균형		
국민대	교과성적우수자	2개합 5/6	
덕성여대	고교추천		
동국대	학교장추천인재		인문 3, 자연 4
동덕여대	학생부교과우수자	2개합 7	

3) 2019. 11. 28. 교육부 발표

대학명	학생부교과전형		
	전형명	수능 최저	추천 기준
명지대(서울)	학교장추천		
상명대	고교추천	2개합 7	10명
서강대	고교장추천	3개합 6	10명
서울과기대	고교추천	2개합 6	10명
서울대			
서울시립대	지역균형선발	3개합 7	4명
서울여대	교과우수자	2개합 7	
성균관대	학교장추천	2개합 5(영 3)	4%
성신여대	지역균형	2개합 6/7	
세종대	지역균형		인문 3, 자연 5
숙명여대	지역균형선발	2개합 4	5%(10명)
송실대	학생부우수자	2개합 6/7	
연세대	추천형		5%
이화여대	고교추천		5%(10명)
중앙대	지역균형	3개합 6/7	10명(안성 포함)
한국외대	학교장추천	2개합 3	20명(글로벌캠 포함)
한양대	지역균형발전		11%
홍익대	학교장추천자	3개합 7/8	5명

※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자연으로 구분됨.

## I 03 | 학생부 위주 전형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확대

학생부교과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이 확대되어, 학생부위주전형을 준비할 때에는 수능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분류

영역수	등급조건	평균등급	대 학
3	합 5	1.7	고려대
	합 6	2.0	서강대, 중앙대
	합 7	2.3	서울시립대, 홍익대
4	합 9		서울교대
2	합 4	2.0	아주대, 한국외대
	합 5	2.5	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인하대
	합 6	3.0	가천대, 가톨릭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송실대
	합 7	3.5	경기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명대, 서울여대, 인천대
미적용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명지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한양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동국대 등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등은 2등급 3개 정도, 한국외대, 건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등은 2등급 2개 정도, 송실대와 서울 소재 여대 들은 3등급 2개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학생부교과전형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기준 충족을 위한 수능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부종합전형 예시

대학명	전형명	수능최저	비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2개 합 5등급	신설
고려대	일반-학업우수형	2개 합 7/8등급	
서울교대	교직인성우수자	4개 합 9등급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연세대	활동우수형, 국제형-국내고	2개 합 5등급	신설
이화여대	미래인재	3개 합 6등급	
홍익대	학교생활우수자	3개 합 7/8등급	
	미술우수자	3개 합 9등급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이 확대되었다. 2021학년도까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던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는 고려대, 서울교대, 서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5개 대학에 불과했으나 2022학년도에는 연세대, 경희대가 추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경희대는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과 중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만나는 접점의 대학으로 추정되어,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할 때도 이제는 수능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듯하다.

04 | 수능체제 개편에 따른 수능 선택과목 지정

2022학년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공통 + 선택형 구조의 수능시험’이 실시된다. 공통과목 이외에 개인의 진로 목표와 흥미 등에 따라 응시할 과목을 수험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일부 대학의 모집 단위에서는 선택과목을 특정 과목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수학 영역에서 수험생들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세 개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체로 중상위권 대학의 자연 계열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제외하고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지정하였다(전국 55개 대학). 또한, 탐구 영역에서 사회 탐구가 아닌 과학 탐구 중 2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지정하기도 하였는데, 전국적으로는 62개 대학이 과학 탐구를 지정하였다.

이러한 자연계 모집 단위의 선택과목 지정은, 2021학년도까지 중상위권 대학의 자연 계열은 수학 가형과 과학 탐구 선택을 필수로 지정하지만,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는 수험생들의 대학 진입 문턱을 낮추고자, 모집 단위에 따라 수학 가형/나형, 과학 탐구/사회 탐구의 선택권을 수험생에게 부여한 사례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및 탐구영역 선택과목 지정 현황

구분	지역별	자연 계열 전체	자연 계열 일부	의·약학 계열
수학	미적분/기하 중 택 1	서울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광운대, 숭실대	덕성여대
	인천/경기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에리카), 단국대	한국항공대	가천대, 가톨릭대, 차의과학대
탐구	과학 탐구 중 택 2	서울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인천/경기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인천대, 한양대(에리카)		가천대, 가톨릭대, 차의과학대

05 | 약학대학 학부 모집

2022학년도 대입전형의 또 다른 특징은 약학대학의 학부 모집계획이다. 약학대학은 지난 2009학년도에 학제를 바꾼 이후로 학부 신입생 모집이 아닌 ‘2+4년제’의 편입생 모집방식을 유지해 왔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통합 6년제로 변경되어 전국 37개 대학 중 32개 대학에서 1,578명<sup>4)</sup>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일반전형 기준으로, 수시모집 인원 비율이 37.3%, 정시 수능 위주 선발 인원 비율이 37.1%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인원 비율이 비슷하다. 따라서 약학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 전형별로 분류해 보면, 수도권대학 기준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전체의 30.1%,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44.3%를 차지하여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선발 인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22.6%, 정시전형으로 29.4%를 선발하여

교과 전형 모집 인원 비율도 꽤 높다.

수시모집으로 많이 선발하는 대학으로는 서울대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등이 있는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40%를 상회한다. 반면에 이화여대는 정시 수능 전형으로 무려 77.8%를 선발하는데, 정시 수능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은 대학으로는 중앙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아주대, 가천대 등이 있으며 전체 모집 인원의 40% 이상을 정시 수능 전형으로 선발한다.



약학과 모집 단위 대학별 전형별 모집 인원

(단위:%)

지역별	대학	모집 정원 (명)	일반전형					특별전형
			수시				정시	
			교과	종합	논술	수시 계		
구분	경희대	44		45.5	18.2	63.6	27.3	9.1
구분	덕성여대	86	17.4	29.1		46.5	46.5	7.0
구분	동국대	35	8.6	25.7	17.1	51.4	34.3	14.3
구분	동덕여대	44	54.5			54.5	36.4	9.1
구분	삼육대	37	32.4	16.2		48.6	32.4	18.9
구분	서울대	63		69.8		69.8	30.2	
구분	성균관대	70		42.9	7.1	50.0	42.9	7.1
구분	연세대	36	16.7	16.7	13.9	47.2	33.3	19.4
구분	이화여대	90		22.2		22.2	77.8	
구분	중앙대	131	3.8	19.1	15.3	38.2	53.4	8.4
구분	가천대	36	8.3	33.3		41.7	41.7	16.7
구분	가톨릭대	35	14.3	37.1		51.4	34.3	14.3
구분	아주대	36		41.7		41.7	41.7	16.7
구분	차의과학대	42	11.9	31.0		42.9	28.6	28.6
구분	한양대 (ERICA)	35	14.3	25.7		40.0	45.7	14.3
합계		820	10.1	30.1	5.4	45.6	44.3	10.1

4) 2022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2020. 4. 30. 대교협) 기준



# 2022학년도 국가거점국립대 대학입학전형 분석

충북대학교 입학사정관 오종현



## 국가거점국립대학이란?

국가거점국립대학교(이하 '거점국립대')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를 말하는데, 거점국립대학교협의회에 가입된 전국 10개의 국립대학을 통칭하고 있습니다.<sup>1)</sup>

거점국립대는 지역발전 선도, 지역인재 양성, 기초·보호학문 육성, 고등교육 기회제공 등 사립대와 차별화되는 국립대학의 공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는 각종 재정 지원과 투자를 통해 해당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거점국립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유·무형적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거점국립대는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대학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인식과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2022년까지 30%까지 확대됨에 따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거점국립대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점국립대는 국가의 기초학문을 육성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학교 당 최소 70개 ~ 100개 이상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 있으며, 융합전공을 통해서 학문 간 연계를 꾀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거점국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379.8만원 ~ 444.8만원으로, 사립대학 평균 747.9만원에 비해 합리적 수준의 등록금이 책정되어, 재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1) 내용의 명료성을 위해 서울대학교는 제외하고 분석함

##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의 변화

2015개정교육과정의 전면 적용되는 2022학년도에는 대입 전형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의 변화 중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 1. 정시 수능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 확대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sup>2)</sup>하였습니다. 그 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정시 수능위주전형 40% 이상을 의무화하고,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여 '22학년도에 조기 달성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에는 수도권 대학들의 정시 수능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이 확대됩니다. 거점국립대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정시 수능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이 소폭 상승합니다.

거점국립대 및 서울 15개 대학 입학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 현황(%)												
대학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수시				정시		수시				정시	
	교과	종합	논술	기타	수능	기타	교과	종합	논술	기타	수능	기타
거점국립대학	38.1	24.5	3.7	2.2	29.7	1.8	38.3	23.9	2.5	3.8	30.1	1.4
서울 15개 대학	8.1	44.0	10.9	7.5	29.5	—	11.4	35.3	8.8	5.4	37.2	1.9

### 2. 진로선택과목 표기 방법 변경

2019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진로선택과목 표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진로선택과목을 선택하였어도 평균, 원점수, 표준편차, 석차등급이 기재되었던 2학년 선배들과 달리, 2019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들은 평균과 원점수, A/B/C 성취 수준 비율만 성적에 기재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2학년도에는, 대학마다 학생부교과전형 성적 산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 깊게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	단위 수	원점수 /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지수)	석차 등급	과목	단위 수	원점수 /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지수)	성취수준 학생비율
고전 읽기	4	95/70 (10)	A (532)	1	고전 읽기	4	95/70	A (532)	A (32.4%) B (30.9%) C (36.7%)

학교생활기록부 진로선택과목 표기 방법

진로선택과목에 석차등급이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공정한 진로선택 과목 반영 여부 및 반영 방법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2022학년도 일부 수도권대학의 학생부교과 진로선택과목 반영 방법을 기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다만,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 모집하고 있는 대학은 자율



거점국립대 및 서울 15개 대학 입학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 현황(%)<sup>3)</sup>

진로선택과목 반영대학					
대학명	반영 여부	반영 과목 수	성취도별 환산등급		
			A	B	C
경희대	반영	반영교과 중 상위 2과목(교과 점수 중 20% 반영)	미발표		
고려대(서울)	반영	전체	성취도별 비율을 환산한 점수		
서울시립대	미반영				
연세대(서울)	반영	전체(교과 점수 중 20% 반영)	성취도를 환산한 점수		
중앙대	반영	전체(교과 점수 중 10% 반영), 지역균형 전형만 반영	미발표		
한양대(서울)	반영	우수 최대 3과목	미발표		

3. 2022학년도 수능 과목 구조 개편

교육부에서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 따라 2022학년도 수능 과목의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개편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과 함께 영역별 선택과목<sup>4)</sup>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②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외국어/한문 과목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수능 과목의 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대학에서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목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비교표		
과목(영역)	2021 수능	2022 수능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언어	공통: 독서, 문학 선택: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수학	가형(이과): 수학Ⅰ, 확률과통계, 미적분 나형(문과):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공통: 수학Ⅰ, 수학Ⅱ 선택: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탐구	일반계: 사회/과학 계열 중 택2 * 사회: 9과목 * 과학: 8과목(과학Ⅰ·Ⅱ)	일반계: 사회/과학 계열구분 없이 택2 * 사회: 9과목 * 과학: 8과목(과학Ⅰ·Ⅱ)
	직업계: 직업계열 중 택2 * 직업: 10과목(농·공·상업·수산·가사 5개 계열별 2과목씩)	직업계: 직업계열 중 택2 * 직업: 전문공통(성공적인직업생활) + 선택(5개 계열 중 택1) * 직업: 6과목 (성공적인직업생활,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의기초, 인간발달)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1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9과목 중 택1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 음영은 ‘절대평가 적용 과목’

3) 출처: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자료를 일부 사용함

4) (국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I 거점국립대학 입학전형 특징 I

대학들은 각 대학의 여건에 부합하는 전형을 운영하여, 각 대학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들은 수도권 대학이나 지역의 대학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전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전국/거점국립대/서울 15개 대학에 따라 전형별 선발 비율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선발 비율을 보면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높으며, 그 중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서울 15개 대학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위주전형, 그리고 논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점국립대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순으로 선발하되, 세 전형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편입니다. 거점국립대 수능위주전형이 30%가 넘을 뿐만 아니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점국립대로 입학하는 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2학년도 거점국립대 입학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 현황									
대학	수시					정시			총원
	교과	종합	논술	기타	계	수능	기타	계	
강원대	46.90%	20.50%	—	3.20%	70.60%	26.60%	2.80%	29.40%	4,821
경북대	26.00%	26.40%	9.20%	4.60%	66.20%	33.70%	0.10%	33.80%	5,116
경상대	36.90%	35.40%	—	3.20%	75.50%	24.50%	—	24.50%	3,357
부산대	30.30%	23.00%	9.50%	6.50%	69.30%	30.40%	0.30%	30.70%	4,604
전남대	44.80%	20.00%	—	3.30%	68.10%	29.90%	2.00%	31.90%	4,401
전북대	43.40%	20.00%	—	3.50%	66.90%	32.20%	0.90%	33.10%	4,224
제주대	34.60%	25.00%	—	4.00%	63.60%	34.30%	2.10%	36.40%	2,440
충남대	43.30%	20.70%	—	2.90%	66.90%	29.60%	3.50%	33.10%	3,823
충북대	39.10%	27.40%	—	2.00%	68.50%	30.30%	1.20%	31.50%	3,084
거점국립대학	38.30%	23.90%	2.50%	3.80%	68.50%	30.10%	1.40%	31.50%	35,870
전국 4년제 대학	42.90%	22.90%	3.20%	6.70%	75.70%	21.90%	2.40%	24.30%	346,553
서울 15개 대학	11.40%	35.30%	8.80%	5.40%	60.90%	37.20%	1.90%	39.10%	52,018

\* 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발표’를 참고함

\*\* 서울 15개 대학: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Ⅰ 거점국립대학 학생부교과전형 특성 Ⅰ

2022학년도 거점국립대 학생부교과전형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설명의 간명성을 위해, 모집인원이 많은 전형을 일부 선택하여 주요전형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거점국립대에서 운영하는 주요전형들의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입니다. 거점국립대의 학생부교과전형은 대부분 학생부교과 100%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여 학생을 선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모집단위는 면접 또는 실기를 실시하는 대학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대의 경우 무단에 의한 출결 상황만 반영됨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은 적으나, 성적산출에 출결상황이 10%반영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 거점국립대 학생부교과전형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주요전형)			
대학명	전형명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강원대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학생부 100% (사범대학: 학생부 80% + 교직인적성면접 20%)	적용
경북대	일반학생전형, 지역인재전형	학생부 교과 100% (의예과: 학생부 교과 80%, 인적성 면접 20%)	적용
경상대	일반전형	학생부(교과) 100% (체육교육과: 교과 80%, 실기 20%)	적용 ※일부학과제외
부산대	학생부교과전형, 지역인재전형	학생부 교과 100%	적용
전남대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학생부 100%	적용
전북대	일반학생전형, 지역인재전형	학생부 100%(※출결상황 10% 반영)	적용
제주대	일반학생전형, 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 100% (체육교육과: 학생부 70% + 실기 30%)	적용
충남대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 100% (사범계: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80% + 실기 20%)	적용
충북대	학생부교과전형, 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 100%	적용

거점국립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교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점국립대 중 7개 대학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과목을 반영합니다. 부산대와 충북대는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을 성적 산출하고,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목을 성적 산출합니다. 대학마다 반영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2021년 5월 말에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유불리를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 거점국립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교과목			
대학명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강원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국어, 영어, 체육 (※미술학과: 국어, 영어, 미술)
경북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경상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어, 영어, 사회, 과학
부산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전남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국어, 영어, 사회, 한국사
전북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국어, 영어, 해당 예체능 교과 전과목, 한국사
제주대	〈2022년 2월 졸업자〉 <b>공통교과:</b>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b>일반선택:</b> 기초·탐구 과목 중 8과목 <b>진로선택:</b> 진로선택 3과목	〈2022년 2월 졸업자〉 <b>공통교과:</b>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b>일반선택:</b> 기초·탐구 과목 중 8과목 <b>진로선택:</b> 진로선택 3과목	〈2022년 2월 졸업자〉 <b>공통교과:</b>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b>일반선택:</b> 기초·탐구 과목 중 8과목 <b>진로선택:</b> 진로선택 3과목
	〈이전 졸업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1학년 과학	〈이전 졸업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1학년 사회	〈이전 졸업자〉 <b>체육:</b> 국어, 수학, 영어, 사회, 1학년 과학 <b>예능:</b> 국어, 영어, 사회, 1학년 수학, 1학년 과학
충남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충북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1학년 과학	국어, 수학, 영어, 과학, 1학년 사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1학년 과학

거점국립대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학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는 고3학생과 재수생 구분없이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고,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는 고3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재수생은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다음에는 진로선택과목의 성적 반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점국립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진로선택과목의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① 석차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진로선택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





있으며, 진로선택과목 중 상위 세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② 반영을 하더라도, 진로선택과목의 반영 성적이 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점국립대에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지원한다면, 진로선택과목의 반영 여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학계열(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또는 일부 경쟁률이 높은 학과에 지원하는 경우는 합격/불합격의 점수 차이가 소수점 차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진로선택과목의 반영 여부에 따른 유불리를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률이 높은 학과에 지원하는 재수생의 경우 진로선택과목의 대학별 비교 내신 성적 처리 방법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022학년도 거점국립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학년 및 진로선택과목																														
대학명	반영 학년	진로선택과목																												
강원대	3-1학기까지 반영 (※졸업생 포함)	• 국/영/수/사/과 상위 세 과목의 평균 점수를 가산점 부여(A=15, B=9, C=3) ※ 진로선택과목 이수가 없는 경우: 비교 내신 성적으로 처리																												
경북대	3-1학기까지 반영 (※졸업생 포함)	• 국/영/수/사/과 상위 세 과목의 평균 점수 가산점 부여(A=25, B=15, C=5) ※ 진로선택과목 산출할 수 없는 경우: “학생부교과성적 × 0.05”가점 반영																												
경상대	3-1학기까지 반영 (※졸업생 포함)	• 진로선택 교과의 경우 상위 3과목 반영(환산점수 → A=3, B=2, C=1) ※ 환산점수 반영 계산식: 기본점수 + { ∑(등급별 환산점수 × 단위 수) / ∑단위 수 }																												
부산대	3-1학기까지 반영 (※졸업생 포함)	• 지정교과 중 성취도가 높은 상위 3개 과목 산술평균 합(A=0.5, B=0.3, C=0.1) • 교과성적=(석차등급과목 평균 성적 + 진로선택과목 평균 성적) × 교과배점 ÷ 100 ※ 2021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및 진로선택과목 3과목 미만 이수자 등은 우리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함																												
전남대	3-1학기까지 반영 (※졸업생 포함)	• 반영교과 중 상위 3과목의 성취도 평균점수 반영(A=5, B=3, C=1) ※ 교과 과정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미이수자, 진로선택과목 3과목 미만 이수자는 비교내신을 활용																												
전북대	3-1학기까지 반영 (※졸업생 포함)	• 국/영/수/사/과 내 상위 세 과목의 평균점수 가산점 반영(A=0.25, B=0.15, C=0.05) ※ 지정교과 내 진로선택과목이 두 과목 이하인 학생, 고교 졸업자, 검점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등은 비교내신 성적 처리함																												
제주대	3-1학기까지 반영 (※2022년 2월 졸업자)	• 진로선택 성적 상위 3과목 반영 • 교과목별 성취도 환산 점수표에 따라 과목별 성취도를 점수화하여 반영함																												
		교과(군)	1등급 (A)	2등급 (B)	3등급 (C)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공동, 일반선택	1,000	980	960	940	920	900	880	860	840	진로선택	1,000	970	940					
	교과(군)	1등급 (A)	2등급 (B)	3등급 (C)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공동, 일반선택	1,000	980	960	940	920	900	880	860	840																					
진로선택	1,000	970	940																											
3-2학기까지 반영 (※이전 졸업자)	• 미적용																													
충남대	3-1학기까지 반영 (※2022년 2월 졸업자) 졸업자 3-2학기까지 반영	• 과목석차등급 반영자 중 진로선택과목, 공통과목(과학탐구실험), 소인수 수강 과목 등 과목석차등급이 없는 교과목[등급이 (·)로 표기된 경우 포함]은 미반영																												
충북대	3-1학기까지 반영 (※2022년 2월 졸업자) 졸업자 3-2학기까지 반영	• 진로선택과목, 소인수 수강 과목 등 과목석차등급이 없는 교과목[등급이 (·)로 표기된 경우 포함]은 교과 성적을 산출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거점국립대의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거점국립대의 수능최저학력기준 개요를 아래에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인문계/자연계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대학도 있지만, 거점국립대는 단과대학별로 심지어는 학과별로 수능최저학력기준과 수능 반영 과목이 다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과 반영 과목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원했다가, 합격자 발표때 당황하는 사례가 실제로 꽤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22학년도 거점국립대 수능최저학력기준 개요	
대학명	수능최저학력기준 개요
강원대	• 인문계: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3개 영역 ※ 사탐1과목은 제2외국어/한문 1과목으로 대체 가능 • 자연계: 국어, 수학,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 사탐허용: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경제학과, 에너지자원·산업공학부, 가정교육과, 산림환경과학대학, 컴퓨터공학과 ※ 미적분 또는 기하 필수 응시: 과학교육학부,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의예과(※수학필수반영) ※ 의예과나 수의예과는 국어, 수학, 과탐①, 과탐② 중 수학 필수 반영하여 3개 등급 합 (영어 2등급이내, 과학 탐구는 다른 과목이어야 하고 동일 과목의 Ⅰ, Ⅱ는 불가)
경북대	• 인문계: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3개 영역(상주캠, 2개 등급 합) • 자연계: 국어,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상주캠, 2개 등급 합) ※ 사탐허용 & 수학(확률과 통계 허용): 산림과학조경학부, 아동학부, 간호학과, 컴퓨터학부(글로벌소프트웨어융합전공) ※ 수학(확률과 통계 허용): 지구시스템과학부,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과, 응용생명과학부, 식품공학부, 원예공학과, 바이오섬유소재학과,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가정교육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 의예과는 탐구 2과목의 평균(소수점 절사)을 반영함
경상대	• 인문계: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3개 영역 ※ 국어교육과: 국어 필수 반영, 영어교육과: 영어 2등급 필수 반영 • 자연계: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3개 영역 ※ 과탐 필수 반영: 공과대, 사범대(물리·생물·수학·화학교육), 수의대, 약학대(지구과학 제외), 의대(미적분 또는 기하 포함) ※ 수의대, 약대, 의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수학 필수 반영
부산대	• 인문계: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 한국사 4등급 이내 • 자연계: 국어,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과탐(1과목) 중 수학포함 2개 영역 ※ 의예과,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국어,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과탐 중 수학포함 3개 영역(※의예과에 한하여 탐구 2과목 반영) ※ 생명자원과학대학: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상위 2개 영역
전남대	• 인문계: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3개 영역(여수캠 2개 영역) • 자연계: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3개 영역 ※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4개 영역 ※ 기하 또는 미적분 중 택1, 과학탐구 2과목 필수 응시: 사범대(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대학, 치의과대학 ※ 기하 또는 미적분 중 택1, 과학(직업)탐구 2과목 필수 응시: 공과대학, A융합대학 ※ 기하 또는 미적분 중 택1: 자연과학대학(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대학명	수능최저학력기준 개요
전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인문계: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중 3개 영역<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연계열 일부학과 포함: 간호학과, 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고분자나노공학전공), 산림환경과학과, 원예학과, 작물생명과학과, 조경학과, 의류학과, 과학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li></ul></li><li>경제학과: 수학 3등급 이내, 수학을 포함한 3개 영역, 공공인재학부: 영어 2등급 이내, 영어를 포함한 3개 영역, 국어교육과: 국어 2등급 이내, 국어 포함한 3개 영역</li><li>자연계: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중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예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반영</li><li>※ 과학교육학부: 수학선택 1과목(기하 또는 미적분 중 택1)과 과학탐구 1과목을 포함한 3개 등급 합</li><li>※ 수학과: 수학이 4등급 이내이고, 수학을 포함하여 3개 등급 합</li><li>※ 물리학과: 수학이 4등급 이내이고, 수학과 과학을 포함한 3개 등급 합</li></ul></li></ul>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인문계: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 4개 영역 중 2개 영역<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회계학과: 수학 필수</li><li>※ 국어교육과: 국어 필수, 영어교육과: 영어 필수</li><li>※ 교육대학: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 4개 영역 중 3개 영역</li></ul></li><li>자연계: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 4개 영역 중 2개 영역<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과대학: 수학 필수(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1단계 하향)</li><li>※ 수학교육과: 수학 필수(미적분, 기하 중 택1), 과학교육학부: 과탐 필수</li><li>※ 수의대, 약학대, 의과대: 국어, 수학,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li></ul></li></ul>
충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인문계: 국어, 영어, 탐구(2과목 평균) 합산</li><li>자연계: 수학, 영어, 과탐(2과목 평균) 합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회/직업탐구 응시자 1등급 ~ 2등급 하향 적용: 농업생명과학대학(자연계학과), 생활과학대학(의류학과, 소비자학과), 사범대학(건설공학교육, 기계재료공학교육,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 화학공학교육, 기술교육과), 간호대학</li><li>※ 수학과, 수학교육과, 의예과, 수의예과 모집단위 경우: 수학 선택과목 반영 시 확률과 통계는 반영하지 아니함</li><li>※ 의과대학: 국어, 영어 및 과학탐구 중 상위 2과목과 수학(미적분, 기하) 합산 등급</li></ul></li></ul>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인문계: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li><li>자연계: 국어, 수학,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탐/과탐 응시 가능: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li><li>※ 수학(미적분, 기하 택1) 필수 응시: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li><li>※ 자연계 모집단위는 수학 필수 반영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학과는 수학 필수 미반영)</li><li>※ 자연계 사회탐구/과학탐구 응시 모집단위: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 1등급 ~ 2등급 하향 적용</li></ul></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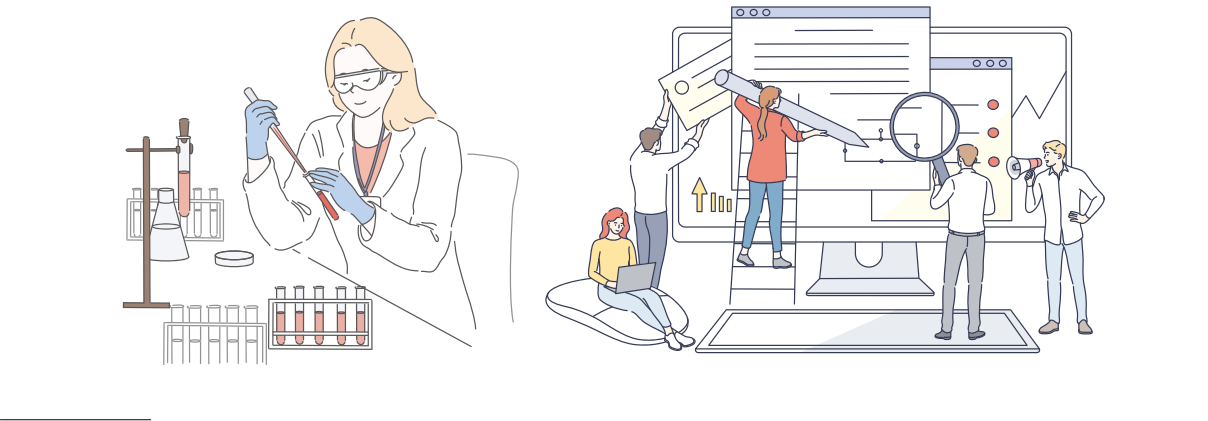
I 거점국립대학 학생부종합전형 특성 I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과 다르게 제출한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점국립대학들의 학생부종합전형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거점국립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및 미적용 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 거점국립대의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대부분 적용되는 것과 다르게,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경북대의 일반학생전형(555명), 부산대의 학생부종합전형(600명), 충북대의 학생부종합 II 전형(207명)에서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의학계열(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등)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학교가 많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 거점국립대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및 미적용 전형 (주요전형)		
대학명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강원대	—	〈미래인재전형(543), 농어촌학생전형(108)〉
경북대	일반학생전형(555)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지역인재전형(194), 농어촌학생전형(215), 기초생활수급자등대상자전형(152)
경상대	의예과	일반전형(582), 지역인재전형(260),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97), 농어촌학생전형(122)
부산대	학생부종합전형(600) 의예과, 간호학과	지역인재전형(131),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I (183), 저소득층학생전형(87)〉
전남대	의예과, 약학부, 수의예과, 치의학전문대학원	고교생활우수자전형(850)
전북대	간호학과, 수의예과, 약학과, 의예과, 치의예과	큰사람전형(480), 〈농어촌학생전형(120), 기회균형선발전형(76)〉
제주대	—	〈일반학생전형(166), 고른기회전형(81), 농어촌학생전형(81)〉
충남대	의대, 수의대, 간호대, 사범대	PRISM인재(480), 〈농어촌학생(108)〉
충북대	학생부종합 II 전형(207)	학생부종합 I 전형(501)

\* 〈 〉안에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모집단위로만 구성된 전형임

다음은 거점국립대학의 학생부종합전型的 전형 요소와 전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학마다 상황에 맞춰서 전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패턴을 찾기 어렵습니다. 각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 전형<sup>5)</sup>을 살펴보면, 강원대 미래인재전형, 경상대 일반전형, 전남대 고교생활우수자전형, 전북대 큰사람전형, 제주대 일반학생전형은 면접이 있는 단계별 전형을 운영합니다. 반면에 경북대 일반학생전형, 부산대 학생부종합전형, 충북대 학생부종합 I 전형은 별도의 면접 없이 서류평가 100%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전형을 대표 전형이라고 명칭하였음



학생부종합전형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 (주요전형)		
대학명	전형명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강원대	미래인재전형	1단계(2~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70% + 면접 30%
	농어촌학생전형	서류평가 100%
경북대	지역인재전형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70% + 면접 30% (※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5배수)
	일반학생전형, 농어촌학생전형, 기초생활수급자등대상자전형	서류평가 100% (※ 농어촌학생전형 의예과: 서류 80% + 인적성 면접 20%)
경상대	일반전형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80% + 면접 20%
	지역인재전형, 농어촌학생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	서류평가 100% (※ 의예과: 1단계(3배수): 서류 100%, 2단계: 1단계 80% + 면접 20%)
부산대	지역인재전형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80% + 면접 20% (※ 의예과: 4배수)
	학생부종합전형, 저소득층학생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I	서류평가 100%
전남대	고교생활우수자	1단계(4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70% + 면접 30% (※ 의약계열: 6배수)
전북대	큰사람전형, 농어촌학생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	1단계(4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70% + 면접 30%
제주대	일반학생전형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70% + 면접 30%
	고른기회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서류평가 100%
충남대	PRISM인재전형, 농어촌학생전형	1단계(2~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66.7% + 면접 33.3%
충북대	학생부종합 I 전형, 학생부종합 II 전형	서류평가 100%

| 정리하며 |

거점대학교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바라는 사·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왔습니다. 거점국립대는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거점국립대로 입학하게 되면 ① 합리적 수준의 등록금, ② 기초부터 응용학문까지 다양한 학과 개설, ③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④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 등 우수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거점국립대 입학전형은 전년대비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몇 가지 특징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첫째, 거점국립대학의 전형별 선발 비율을 보면, 학생부교과전형 38.3%, 학생부종합전형 23.9%, 수능위주전형 30.1%로 각 전형의 선발 비율이 비교적 균등한 편입니다. 하지만 거점국립대의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부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점국립대로 입학하는 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수능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거점국립대는 모집 단위와 전형에 따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 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2학년도 수능 개편에 따라 수학 선택과목도 모집단위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충북대는 자연 계열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무방하나, 일부 학과(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의 경우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점국립대에 지원하실 경우, 모집 단위와 전형에 따라 수능최저학력기준과 반영 과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대학의 입학부서는 여러분의 질문과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대학의 입학정보홈페이지나 입학과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입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본 자료는 각 대학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각 대학의 입학전형에 의거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형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시 및 정시 모집요강을 참조해야한다.







# All About Admissions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은  
수험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 II. 전문가 칼럼

46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50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주요 사항
56	2015 개정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
68	입시 고민 - 안녕하세요. 선생님!



##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서울 동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용진

국가 교육과정 정책은 꾸준히 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향해 왔다. 현재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기존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시대·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표방하면서, 국가 차원의 핵심 역량을 제시하는 한편, 핵심개념 중심의 교과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추진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고교 이수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게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학점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결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탄력적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특히 다양한 선택 과목의 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선택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학점제의 취지가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 01 탄력적 교육과정의 배경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시대적 변화는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계가 인간의 물리적 기능을 보완하는 단계를 넘어 인지·정서적 기능까지 대체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량과 자질,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후 환경의 변화, 세계적 불평등의 심화, 다문화세계화의 보편화 등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성원들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OECD는 ‘Education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과정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는 2000년대 초반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설정된 핵심 역량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표〉 OECD Education 2030

구분	‘DeSeCo’ 프로젝트		교육 2030 프로젝트
역량의 목표	개인과 사회의 ‘성공’(success)	➔	개인과 사회의 ‘웰빙’(well-being)
역량의 정의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적, 실천적 기능뿐만 아니라 태도·감정·가치·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행동적 요소를 동원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 지식: 학문적, 간학문적, 인식론적, 절차적 기능: 인지적·메타인지적, 사회적·정서적, 신체적·실천적 태도와 가치: 개인적, 지역적, 사회적, 글로벌적
역량의 특징	‘핵심’(key) 역량 • 경제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개인적이고 사회적 유익을 야기할 수 있는 것 •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삶의 광범위한 맥락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것 • 모든 개인에게 중요한 것	➔	‘변혁적’(transformative) 역량 • 학생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책임의식 • 학생들이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의식적인 사람이 되는 데에 필요한 것
역량의 범주	•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기 •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	•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 책임감 갖기
역량의 핵심	성찰(reflectiveness)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

위의 그림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맨 아랫부분에 있는 ‘역량의 핵심’에서 학생의 주체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은 소극적인 수용자적 태도를 넘어 자기 삶과 공동체의 개선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직접 참여하려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OECD는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학생 선택의 강화, 전이 가능성이 큰 교육과정 내용과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 02 탄력적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의미와 지향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표〉탄력적 교육과정의 의미		
구분	탄력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변화 방향	
선택 과목의 규모	제한된 선택 과목 개설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교과목 이수 경로	문·이과 위주의 제한된 이수 경로 제공	학업 수준과 진로·진학 계획에 따른 개인 맞춤형 이수 경로 설정
과목 선택의 범위와 이수 방식	소속 학교 내에서 과목 선택·이수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하면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지역사회 학습장 등으로 확대
교육과정 운영 방식	학급 중심의 교육과정, 획일적 교실과 시간표, 상대평가 등	학생별 시간표, 다양한 규모의 수업, 다양한 수업과 평가 방법, 혁신적인 학습 시설과 공간 등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탄력적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서 개설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필요에 따라 단위학교의 경계를 넘어서 수 있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 ✓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사회 학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위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교과목 이수 기회가 단위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다. 예컨대,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학교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고, 교육과정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수하도록 할 수도 있고,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을 종합한다면 교육과정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

## 03 탄력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주요 쟁점들은 무엇인가? 탄력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과 관심, 흥미, 진로에 적합한 교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생 맞춤형·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서, 이러한 교육과정의 현실적 모습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제시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전국 34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등의 교육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공통 과목을 1학년에 편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1학년 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을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대체로 학교들은 2학년에서보다 3학년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 ✓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어떤 식으로 보장하고 있는가?
- ✓ 얼마나 풍부한 선택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 ✓ 학점제에 대비한 개방형 교육과정은 어떤 식으로 편성하고 있는가?
- ✓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정도와 필요성에 대한 학교 차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확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교들은 2학년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4~7과목 내외 최대 18과목, 3학년에서는 8~11과목 정도 최대 18과목을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반적인 학교들은 이보다 적은 선택과목을 제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학생 선택 교육과정 편성은 교과 영역의 개방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교과 영역 내 선택형이다. 교과 영역에서 필수 선택해야 하는 단위 수(과목 수)가 지정된 가장 좁은 형태의 선택 교육과정이다. 둘째, 교과 영역 간 선택형이다. 학생들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영역 중 일부 영역에서 칸막이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전체 교과 영역 내 선택형이다. 학생들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영역에서 칸막이 없이 모든 교과 영역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장 넓은 형태의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학교들의 선택권 부여 양상은 아직은 교과 영역 내 선택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점점 더 칸막이를 없애서 전체 교과 영역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탄력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선택 과목의 규모 측면에서 제한된 선택 과목 개설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목 이수 경로의 측면에서 문·이과 위주의 제한된 이수 경로에서 벗어나 학생 맞춤형 이수 경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같은 5과목을 고르더라도 A 학교처럼 2과목 중 1개, 7과목 중 3개, 2과목 중 1개를 고르는 것보다는 B 학교처럼 11과목 중 5개를 고르는 것이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과목이 서로 동일하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A 학교처럼 칸막이가 있는 유형과 B 학교처럼 칸막이가 없는 유형에 따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크게 달라진다. 칸막이가 있는 경우 해당 교과목을 더 공부하고 싶지 않은 학생도 일정 과목 수만큼만 공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과목 중 몇 개는 학생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학생이 흥미가 없더라도 이수해야만 한다. 칸막이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선택으로 주는 경우에는 교과 영역별 필수 이수 단위 충족과 별개로 학생의 실질적 선택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

과목 선택의 범위와 이수 방식 측면에서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하면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지역사회 학습장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러 시도에서 다양한 공동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 방식 측면에서 전통적인 학급과 획일적인 시간표를 학생별 시간표, 다양한 규모의 수업, 다양한 수업과 평가 방법, 혁신적인 학습 시설과 공간 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공간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크기의 교실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그룹 활동과 프로젝트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가 필요하고, 개인 사물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획일적 크기의 교실과 좁고 긴 복도로 상징되는 전통적 학교 시설을 개선하여 좀 더 다양하고 온화하고 안락한 학습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교육과정 편성표 예시			
A 학교		B 학교	
과목	선택과목 수	과목	선택과목 수
가	택 1	가	택 5
나		나	
다		다	
라		라	
마	택 3	마	
바		바	
사		사	
아		아	
자	택 1	자	
차		차	
카		카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주요 사항

충남 서산중앙등학교 교사 이강현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 11. 28.)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폐지</li> <li>자기소개서 및 고교 프로필 폐지</li> <li>세부평가기준 공개 및 1인당 평가시간 확보 등 가이드라인 마련</li> </ul>
대입전형 간 비용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 소재 16개 대학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 요청</li> <li>논술위주전형과 어학, 글로벌 등 특기자전형 폐지 적극 유도</li> </ul>
사회통합전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li> <li>수도권 대학 대상 지역균형선발 10% 이상 권고 및 학생부 교과위주 선발 권고</li> </ul>

2019년 11월 28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1~3학년들이 치르는 2022~2024 대입제도가 작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19 라는 변수가 대입 준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2022~2024 대입제도 개편 주요 사항에 대해 살펴봄에 고등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2022~2024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간소화

구분	고3 (2022 대입)	고2 (2023 대입)	고1 (2024 대입)
학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상 학기당 1개</li> <li>자율동아리 학년당 1개(30자)</li> <li>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li> <li>개인봉사활동 반영</li> <li>독서활동상황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상 미반영</li> <li>자율동아리 미반영</li> <li>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li> <li>개인봉사활동 미반영</li> <li>독서활동상황 미반영</li> </ul>
자기소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글자 수 감소</li> <li>기초교과(군), 탐구교과(군)의 과목은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li> </ul>		
추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항 축소(4개 ▶ 3개 문항)</li> <li>글자 수 감소(5,000자 ▶ 3,100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지</li> </ul>
고교 프로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지</li> </ul>		

■ 2021 대입부터 적용 ■ 2022 대입부터 적용 ■ 2024 대입부터 적용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작년 고교 프로필 폐지에 이어 고교 추천서가 폐지되고, 자기소개서는 기존 4개 문항 최대 5,000자에서 3개 문항 최대 3,100자로 축소됩니다. 이마저도 고1의 2024 대입에서는 전면 폐지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및 분량 역시 2021 대입에 비해 감소합니다.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고1~3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고2, 3의 수상실적은 학기당 1개만,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최대 30자 기재)만 대입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간소화 경향은 고1에서 더욱 강화되어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실적, 독서활동상황이 대학에 대입자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교과 수업 활동에 집중하자!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중 유일하게 기록이 강화된 항목입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기록하던 항목이었는데, 작년부터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같은 기초교과(군) 과목과 사회, 과학 같은 탐구교과(군) 과목은 교과 담당 교사가 모든 학생에 대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활용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교과 수업 활동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 활동에서 학생이 보여주는 참여도와 성취 수준은 교사의 관찰을 통해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과정 중심 평가로 진행되는 수행평가의 중요도가 더욱 상승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수행평가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과제 제출형 평가가 금지되어 반드시 수업 중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 중심의 지식 기반 강의 수업과는 달리 수행평가는 학생의 활동 역량 평가를 위주로 설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개별적 특성을 드러내기 유리합니다. 수행평가를 통해 교과나 진로에 대한 흥미, 관심뿐만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 탐

구 역량을 뽐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독서를 활용하여 지적 호기심이나 매체 활용 능력, 정보 처리 역량 등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업 활동입니다.

한때는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소수의 학교를 제외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ZOOM, 구글클래스룸, 온라인클래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랜선 수행평가, 랜선 토론, 랜선 주제 발표, 더 나아가 랜선 동아리 발표 대회, 랜선 창의적 체험활동 등 모든 정규교육과정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앞으로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교과 수업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을 유의미한 성장의 기록으로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교과와 연계된 활동을 계획하자!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한 과정과 성과에 대해 평가합니다. 그래서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독서활동 등의 교과 외 활동을 교과와 연계된 활동으로 계획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교내 대회에 참가하는 것보다 전공(지원학과)에 대한 열정과 탐구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교과 관련 대회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 풀이 중

심의 단기적 준비가 필요한 대회보다는 상당 기간의 고민과 노력이 요구되는 프로젝트형 대회가 참가자의 질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데 낫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은 단체활동에서 엿볼 수 있는 리더십이나 공동체 의식과 같은 인성적 측면만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교과수업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교과 주제 탐구 프로젝트’라는 개별활동과 연계하여 스스로 해결하고, 이 과정

에서 발휘된 탐구 역량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급 내 소그룹(소모임) 활동으로 교과 독서토론, 교과 스터디, 교과 멘토링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교과 연계성이 돋보이는 활동 이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규교육과정 동아리활동은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분야와 관련된 노력과 경험을 통해 전공(계열) 적합성이라는 역량을 드러내기 적합합니다. ‘전공 주제 탐구 프로젝트’를 통해 전공 관련 핵심 교과의 후속활동이나 심화활동을 연계적으로 펼쳐볼 수 있습니다. 자율동아리는 고1 대입 미반영, 고2~3 글자 수(30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율동아리보다는 정규교육과정 동아리에 초점을 맞춰 활동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정규교육과정 동아리 내 활동이 여의치 않다면, 학급 내 소그룹(소모임)을 조직하여 자율동아리 활동을 대체하고,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누적 시간이라는 양적 수치보다 활동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활동이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만큼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실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교외에서 실시하는 개인봉사활동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봉사활동실적을 대입에 반영할 수 없는 고1 학생들은 교내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로활동은 학생의 진로 특성을 종합적으로 드러

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교 진로탐색 프로그램에서의 수행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수행한 주도적인 활동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로활동 특기사항의 기록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지원 동기나 진로변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 단순 참여 사실과 같은 기록보다는 활동 참여 동기, 활동 과정에서 자기 주도성 발휘 사례, 활동 결과에 대한 개인적 성찰 등이 드러나는 입체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융합주제 탐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통합교과 수업에서 구현 가능한 교과융합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그 성과를 구체화함으로써 다양한 교과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독서활동은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심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며, 코로나 시대에도 학업 역량 향상을 위한 자기 주도적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 독후활동 후에 감상문 등을 제출하여 독서활동상황란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교육활동에 독서를 활용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에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활동 동기, 활동 과정에서의 배경지식을 쌓기 위한 수단, 후속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교육활동의 질을 높여주고 지적 역량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올바른 독서 활용을 위해서는 깊이 없는 무리한 독서는 자제하고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부합하는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 2022 대입 전형별 비율 〉

구분	2022 대입			
	학생부 위주		논술	수능 위주
	교과	종합		
전국 대학	42.9	22.9	3.2	21.9
서울 소재 대학	15.9	33.0	7.0	35.0
경기 소재 대학	32.1	22.3	6.7	27.7
인천 소재 대학	17.5	36.5	7.5	30.0
지역거점국립대학	38.9	24.2	2.6	32.0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2023 대입까지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 이상 상향해야 합니다. 조기 달성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경희대, 광운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를 제외한 9개 대학(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국외대, 한양대)은 올해 2022 대입부터 정시 수능

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고등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 논술전형과 일부 학교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어학, 글로벌 등의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입전형은 수시 학생부위주전형과 정시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되고 있습니다.

### 3

##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 준비를 병행하자!

위와 같은 대입전형의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수능위주전형을 주력으로 대입에 도전할지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부위주전형은 수능위주전형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능위주전형은 고3 재학생보다 N수생이 압도적인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의 수능위주전형에 올인하는 선택은 위험부담이 큼니다.

그렇다면 수능 준비는 왜 필요할까요? 바로 학생부위주전형에서 요구하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지역거점국립대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 2~3개 영역의 등급 합을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

습니다. 수능 이후 자기소개서를 입력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충북대 학생부종합전형Ⅱ이 그렇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2022 대입에서 경희대 학생부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신설 적용되고, 연세대 학생부종합 활동우수형 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부활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서류가 간소화되면서 대학들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일종의 안전장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서류 간소화가 한층 강화되는 2024 대입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 또는 면접 강화라는 안전장치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수능 공부는 더 이상 정시만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 2022 수시 수도권 대학 고교추천전형 전형 방법 〉

구분	실시 대학 (개)	대학 수(개)				비율(%)							
		교과 100	교과 +출결	교과 +면접	교과 +서류	서류 100	서류 +면접	교과 100	교과 +출결	교과 +면접	교과 +서류	서류 100	서류 +면접
서울	26	15	5	3	2		1	57.7	19.2	11.5	7.7		3.8
인천	3	3						100					
경기	11	9		1		1		81.8		9.1		9.1	
합계	40	27	5	4	2	1	1	67.5	12.5	10.0	5.0	2.5	2.5

구분	실시 대학 (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추천 인원 제한			
		대학 수(개)		비율(%)		대학 수(개)		비율(%)	
		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제한	무제한	제한	무제한
서울	26	17	9	65.4	34.6	17	9	65.4	34.6
인천	3	2	1	66.7	33.3	2	1	66.7	33.3
경기	11	6	5	54.5	45.5	4	7	36.4	63.6
합계	40	25	15	62.5	37.5	23	17	57.5	42.5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10%를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추천형 지역균형전형에서 10% 이상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4

## 고교추천형 학생부교과전형에 대비하자!

2022 수시모집에서 서울 26개, 경기 11개, 인천 3개, 총 40개 수도권 대학이 고교추천전형을 실시합니다. 그중 서울대와 경인교대 2개 대학만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을 고수하고, 나머지 38개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방식입니다.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은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을 실시하지 않던 대학들이었는데,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변경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선의 변수는 지원학과 경쟁률, 수능최저총점을, 충원을 등입니다. 그런데 2년간

수능 응시생이 약 11만 5천여 명 감소하여 수능최저총점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있으면 경쟁률은 자연스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2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를 적용하면서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학생부교과전형의 합격선이 예년의 기준치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큼니다. 특히 지역거점국립대와 수도권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은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의 내신등급과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를 잘 관리하며 수능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 2015 개정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

서울 선사고등학교 교감 김해용



## ① 고교 교육과정에서 과목 선택의 의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크게 확대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것은 4차 산업 혁명 등으로 불리는 사회변화 속에서 기존처럼 단순한 교육과정으로는 충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마다 다양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인문사회 계열, 자연이공 계열로 나뉘는 교육과정만으로는 그 진로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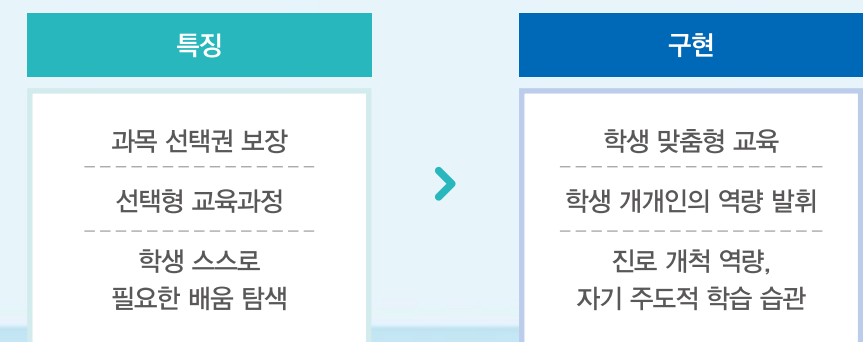
###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 선택 절차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권이 확대된 것은 학생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진로나 진학 계획에 부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갖게 합니다.

과목 선택권의 확대는 단순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과목 선택권의 보장은 학생마다 자신의 수준과 역량에 맞는 과목, 자신의 진로와 진학 계획에 부합하는 과목 선택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학생마다의 수준별 교육과정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선택형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자신의 수준에 부합하고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생 각자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진로 결정과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해와 진로심리검사 등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진로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고, 학업과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진로 개척 역량과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 선택 절차 〉





## 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목 선택의 범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는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주로 배웁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학교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고등학교에 모델로 제시한 다음의 교육과정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대입 일정 등을 고려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방법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

구분	교과 (군)	세부 교과목	운영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교 지정	국어	국어	8	4	4				
	수학	수학	8	4	4				
	영어	영어	8	4	4				
	한국사	한국사	6	3	3				
	사회	통합사회	8	4	4				
	과학	통합과학	8	4	4				
		과학탐구실험	2	1	1				
	체육	체육	4	2	2				
		운동과 건강	4			2	2		
		스포츠 생활	4					2	2
	예술	음악	3	3	(3)				
		미술	3	(3)	3				
	교양	진로와 직업	2	1	1				
		논술	2					1	1
2학년 선택	국어	문학, 독서, 실용 국어	4			28 (택7)	28 (택7)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영어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사회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사회·문화, 여행지리							
	과학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과학사							
	체육	체육 탐구,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예술	연극,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가정과학							
	제2외국어/ 한문	일본어Ⅰ, 중국어Ⅰ, 한문Ⅰ							
	교양	실용 경제, 심리학, 환경							

구분	교과 (군)	세부 교과목	운영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3학년 선택	국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심화 국어, 고전 읽기	6       6					27 (택9)	27 (택9)
	수학	미적분, 기하, 수학과제 탐구, 경제 수학							
	영어	영어 회화, 영어Ⅱ,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사회	세계사, 세계지리, 경제, 윤리와 사상, 고전과 윤리, 사회문제 탐구							
	과학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체육	체조 운동, 스포츠 경기 체력							
	예술	음악 전공 실기, 시창·청음, 미술 전공 실기, 드로잉							
	기술·가정	창의 경영, 프로그래밍, 바리스타실무(고시외 과목)							
	제2외국어 /한문	일본어Ⅱ, 중국어Ⅱ, 한문Ⅱ							
	교양	철학, 논리학, 교육학							

고1 시기에는 공통 교과를 중심으로 배우기 때문에 과목 선택이 많지 않습니다. 모형으로 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2학년 때 37과목 중 학기별로 7과목씩 14과목을 선택하고 3학년 때 39과목 중 한 학년 동안 9과목을 선택하므로 3학년 1학기 까지 총 23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의 조합을 생각해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선택의 권한이 있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선택은 매우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뚜렷하다면 그 어려움이 덜할 수도 있겠지요. 몇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목 선택의 기준을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 과목 선택의 이유 〉

응답	빈도(개)	비율(%)
재미있을 것 같은 과목	238	19.7
희망하는 대학 전공이나 진로와 연결되어 있는 과목	342	28.4
학업 부담이 적어 보이는 과목	171	14.2
수강생 숫자가 많은 과목	165	13.7
수능 출제 과목 여부	222	18.4
친구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과목	68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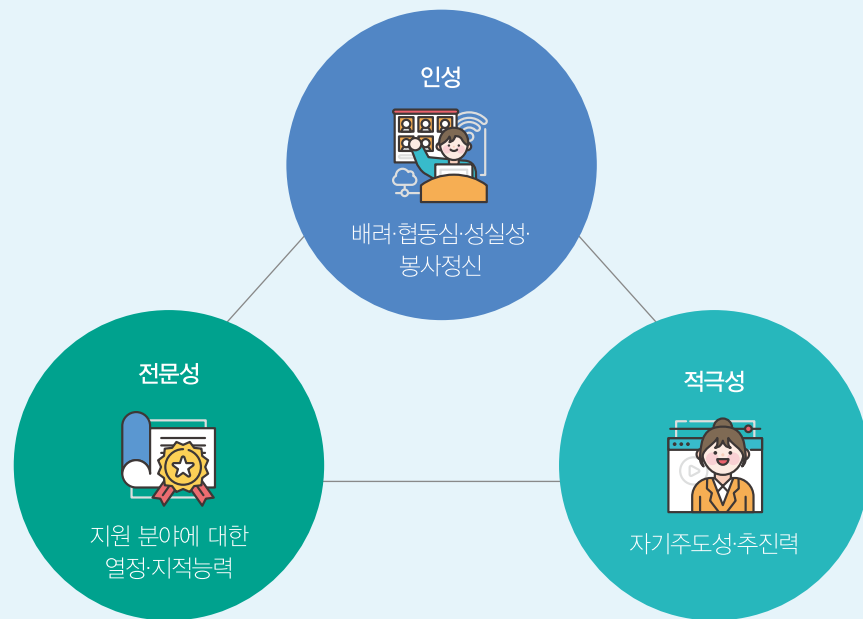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0), 혁신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RRC 2019-6)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보면 흥미나 진로, 진학을 고려한 과목 선택이 50% 가까이 됩니다. 물론 학업 부담이 적은 과목, 수강생 숫자가 많은 과목, 수능 출제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진학을 고려한 것입니다. 학교 정기고사에서 좋은 교과 등급이나 성취도를 잘 받기 위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정시 수능위주전형 등의 대입 전략에 따른 선택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 3 대입과 과목 선택의 방법

대입을 고려한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과목 선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들이 과목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대학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충북대학교는 전문성, 인성, 적극성의 역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학생을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대학에서는 지원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영역(교과학습 발달상황 및 교과별 세부 특기사항)과 비교과 영역(교내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독서활동 상황, 봉사활동 실적 등)을 기반으로 서류평가 및 면접을 실시하므로, 고교 교육과정을 의미 있고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충북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영역과 평가 요소〉



교과 영역과 평가 영역별 평가 요소를 연결시켜 생각해본다면, 전문성 영역의 지원 분야에 대한 열정은 지원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많이 이수하고 심화하여 공부했느냐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도 열정을 보여주는 요소일 것입니다. 적극성 영역의 자기주도성도 과목 선택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서울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6개 대학이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이 충북대의 전문성과 적극성과 유사한 것입니다. 6개 대학의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의 세부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충북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전문성, 적극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 6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 요소별 세부 평가 내용 중 일부(2018)

66

##### 학업역량

- Q 전체적인 교과 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 Q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 Q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상승/하락하고 있는가?
- Q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예: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그 외 과목 성적은 전반적으로 무난한가?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
- Q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 Q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 Q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과 다른 과목의 성적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 Q 과목별 이수자 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Q 과목별 등급 외에 원점수(평균/표준편차 포함)는 적절한가?

##### 전공적합성

- Q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
- Q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해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 Q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이수 단위,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참고)
- Q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Q 지원 전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 Q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99

그러면 지원 전공에 따른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체로 세부 전공에 따른 과목 선택보다는 계열별로 과목 선택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들의 진로 희망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 대학에서도 전공에 따른 세부적인 1~2 과목의 차이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학업 역량이나 전공적합성을 넓게 보고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 과목 안내서(2020)”에서는 계열별로 이수하길 권장하는 과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에서는 경제계열과 사회계열에서 수학 교과목의 이수를 심화해서 이수할 것을 권장하는 반면, 자연이공계열에서는 전공의 특성에 따라 이수 권장 과목의 차이가 수학 교과목과 과학 교과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 계열별 권장 선택과목 〉

계열	일반선택	진로선택
언어문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사회·문화, 제2외국어Ⅰ, 한문Ⅰ, 철학, 논술 등	심화국어, 고전읽기,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고전과 윤리, 사회문제탐구, 제2외국어Ⅱ, 한문Ⅱ 등
인문과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치와 법, 사회·문화, 제2외국어Ⅰ, 한문Ⅰ, 논술, (심리)생명과학Ⅰ, 심리학 등	고전읽기, 고전과 윤리, 사회문제탐구, 제2외국어Ⅱ, 한문Ⅱ, (심리)생활과 과학 등
상경	미적분, 확률과 통계,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제2외국어Ⅰ, 논리학, 심리학, 실용 경제 등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제2외국어Ⅱ 등
광고언론정보	확률과 통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논리학, 심리학, 정보 등	고전 읽기, 고전과 윤리, 영어권 문화,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과학사, 생활과 과학 등
사회과학	확률과 통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제2외국어Ⅰ,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보건 등	기하,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지구과학Ⅱ, 가정과학, 제2외국어Ⅱ 등
법행정	확률과 통계,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명과학Ⅰ, 제2외국어Ⅰ, 철학, 논리학, 보건, 실용 경제 등	고전 읽기, 영어권 문화,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생활과 과학, 가정과학, 제2외국어Ⅱ 등
광고언론정보	확률과 통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논리학, 심리학, 정보 등	고전 읽기, 고전과 윤리, 영어권 문화,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과학사, 생활과 과학 등
사회과학	확률과 통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제2외국어Ⅰ,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보건 등	기하,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지구과학Ⅱ, 가정과학, 제2외국어Ⅱ 등
법행정	확률과 통계,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명과학Ⅰ, 제2외국어Ⅰ, 철학, 논리학, 보건, 실용 경제 등	고전 읽기, 영어권 문화,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생활과 과학, 가정과학, 제2외국어Ⅱ 등
자연과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등	기하, 수학과제 탐구, 관련 과학Ⅱ 등
생활과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화학Ⅰ, 생명과학Ⅰ, 기술·가정 등	기하, 화학Ⅱ, 생명과학Ⅱ, 가정과학 등
농림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환경 등	기하, 수학과제 탐구, 화학Ⅱ, 생명과학Ⅱ 등
기계전자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학Ⅰ, 화학Ⅰ, 지구과학Ⅰ, 정보 등	기하, 수학과제 탐구, 물리학Ⅱ, 화학Ⅱ 등
정보컴퓨터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학Ⅰ, 정보 등	기하, 물리학Ⅱ 등
건축·환경	미적분, 확률과 통계, 한국지리, 세계지리, 물리학Ⅰ, 화학Ⅰ, 지구과학Ⅰ, 기술·가정	기하, 물리학Ⅱ, 화학Ⅱ, 지구과학Ⅱ, 생활과 과학 등
화학생명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기하,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생활과 과학 등

계열	일반선택	진로선택
보건	확률과 통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화학Ⅰ, 생명과학Ⅰ, 보건 등	화학Ⅱ, 생명과학Ⅱ,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등
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보건 등	화학Ⅱ, 생명과학Ⅱ 등
교육	확률과 통계, 전공 관련 교과 일반선택, 교육학, 심리학	전공 관련 교과 진로 선택과목

※ 국어 교과와 영어 교과의 일반선택과목, 수학Ⅰ, 수학Ⅱ 과목은 학습의 기본 교과인 성격을 고려하여 ‘관련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포함하지 않았음. 학과에 따라 이수가 필요한 진로선택과목은 포함하였음.

과목 선택에서 전공과의 연계성 외에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 논술전형 등에서도 고려 요소가 있지만 대학에 의해 반영 영역이나 과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택의 주도권이 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이 선택의 주도권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첫째, 진로희망과 진학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진로를 계열처럼 넓은 범위로 잡고 과목 선택에 접근하고 2학년과 3학년으로 진급할수록 세부 전공, 대학 진학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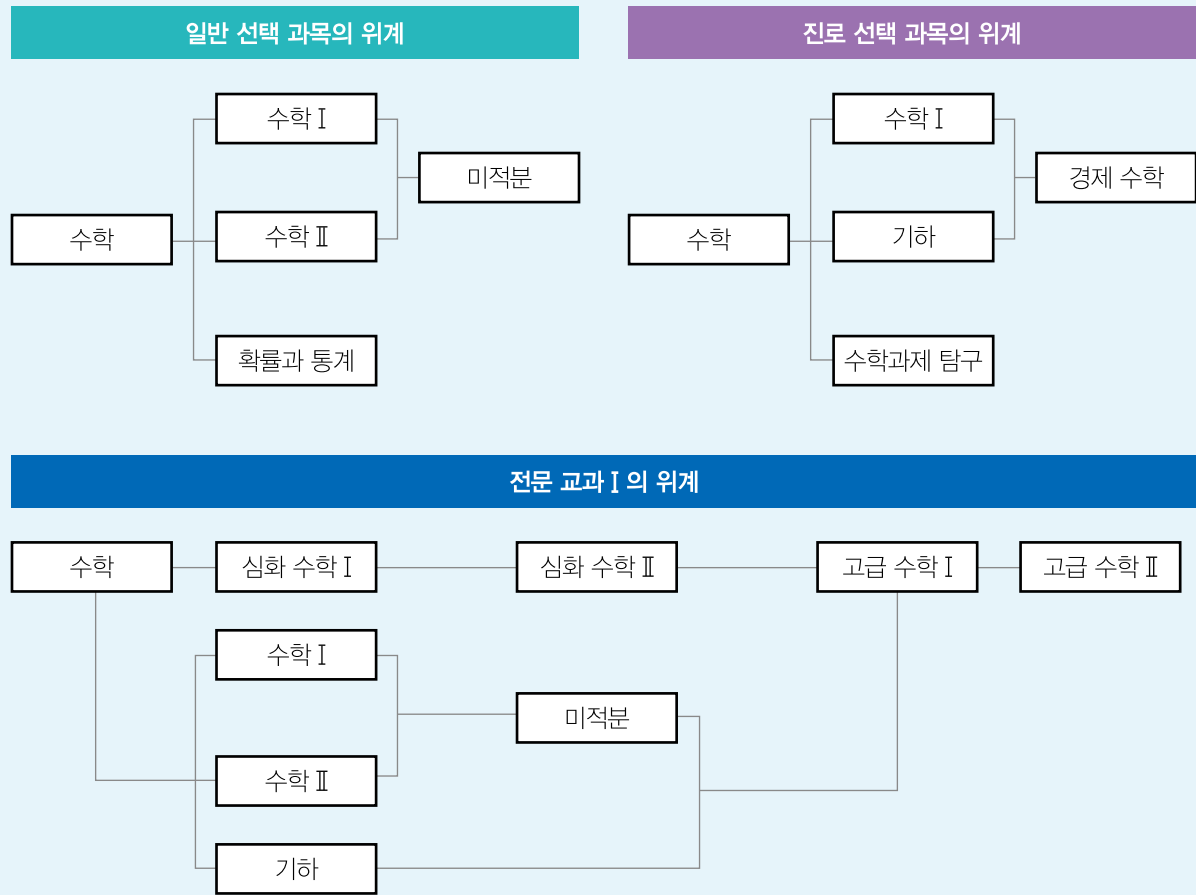
둘째, 상위권 학생만큼 중·하위권 학생 수준에 맞춘 과목 선택도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에 전공적합성이라는 평가 요소가 없습니다. 일정 수준의 대학으로 내려오면 평가 요소에 전공적합성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전공과 관련한 과목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위권 학생의 입장에서조차 수준에 맞추는 과목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아야 과목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과목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일반선택과목을 심화한 경우도 있지만 진로나 흥미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인 경우도 있습니다. ‘진로선택과목 중 기본 수학, 기본 영어,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교육과정에서는 설명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를 3학년에서 학생 선택으로 편성·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학년에서 이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한다면 고1 때 배운 공통과목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이런 과목을 3학년에서 선택한다면 입학사정관에게 심화와 도전적인 공부를 회피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와 같은 과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지적 호기심과 전공에 대한 관심, 탐구역량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입니다.

넷째, 과목의 위계에 따라 심화해가는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계가 있는 과목은 수학, 과학, 제2외국어 교과 정도입니다. 특히 수학은 위계성이 강합니다. 선행 과목을 충분히 이수하지 않으면 심화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경우에도 Ⅰ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Ⅱ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생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Ⅱ과목의 내용이 Ⅰ과목의 심화되는 내용이라면 Ⅰ과목의 이수 없이 Ⅱ과목을 이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Ⅱ과목을 3학년에서 이수하는 경우 3학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계를 고려한 과목 선택이 필요합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 교과와의 연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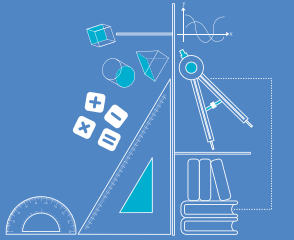
다섯째,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전공의 명칭만 보고 고등학교에서 이수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몇몇 전공을 예로 들어보면 수학적 지식의 경우 자연과학, 공학, 의학 뿐만 아니라 경제·경영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 학습의 기초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화학과의 경우 대학에서 물리학과 연관된 학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항공운항과의 경우 항공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와 법’ 같은 사회 과목도 이수하면 좋다고 대학 재학생이 말하기도 합니다.

여섯째, 같은 전공이라도 개인적 지향점이 다르면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 사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한국경제사, 한국사회사, 한국철학사, 한국정치사 등을 깊이 있게 배우고 연구하고 싶다면, 희망하는 분야와 연관 있는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정치와 법 등의 과목을 각각 선택해서 이수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과목의 내용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막연히 이런 과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목을 선택한다면 실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을 선택하는 학생 중에는 그림이나 도형 등을 통해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심리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심리학 과목은 학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자신이 선택할 과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과목의 교육과정을 보면 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그 과목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위성안테나, 자동차의 전조등, 망원경은 이차곡선의 성질을 활용하여 만든 대표적인 장치이다. 벡터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나 속도 등 그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표기해야 의미가 있는 분야에 활용된다. 공간도형의 개념은 건축 설계 및 기계제작, 견고해야 하지만 가벼워야 하는 비행기 제작 등에 이용된다. 공학 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학습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담는다.



여덟째,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이후의 학업도 생각해야 합니다. 과목 선택은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과정의 연계를 전제로 한 측면도 있습니다. 고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다면 전공을 배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경우에는 대학에 따라 출제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와 한국산업기술대는 확률과 통계까지가 출제 범위인 반면 대부분의 대학은 미적분까지 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성균관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등의 대학 자연계 논술에서만 기하가 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하가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대학의 공대 공부에 기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 공부에서는 기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과목 선택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 2021 대입 수시 자연계 논술전형 범위 〉

출제 범위		대학
고교 교육과정 내	기하 포함	성균관대
	기하 제외	가톨릭대, 덕성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울산대(의예), 한양대(에리카)
	진로선택과목 제외	성신여대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항공대(공학계열), 홍익대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한국항공대(이학계열)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수학 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건국대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경북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연세대(미래), 한양대(서울)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이외에도 대입에서 교과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선택과목, 예체능 과목, 진로 선택으로 개설된 전문교과 I·II는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고 절대평가에 의해 성취도가 산출되는 과목입니다. 교과 전형에서 이들 과목의 성취도를 그대로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많지만, 고려대의 경우에는 성취도별 비율을 고려하여 A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022 대입 진로선택과목 반영 방법 예 〉

대학	전형명	진로선택과목 반영 방법
경희대	고교연계	성취도별 환산점수 부여 공통, 일반선택(80%)+진로선택(20%) 인문 2과목, 자연 4과목 반영
고려대	학교추천	성취도 비율 고려하여 9단계 변환 석차등급 산출 학생부 교과점수로 산출
성균관대	학교장추천	학업수월성(10점)과 학업충실성(10점)을 기준으로 종합 정성평가
서울시립대	지역균형선발	진로선택과목 미반영

목표하는 대학의 평가 방법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 학교장추천인재전형이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2022 대입에서 종합전형의 평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류종합평가 40점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하는데 학교생활 충실도(학업역량/전공적합성 등)가 80% 내외, 인성 및 사회성이 20% 내외입니다. 학업역량/전공적합성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의 이수 내용과 성적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 2022 대입 동국대 학교장추천인재전형 전형 방법 〉

구분		합격 배수	전형 요소 및 방법			
			1단계 성적	학생부 교과	서류종합평가	수능최저 학력기준
전형방법(%)	일괄	1배수	—	60	40	미적용
배점 (점)	배점	—	—	600	400	—
	기본점수	—	—	0	240	

서울대의 경우 2023학년도 대입 정시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 평가를 반영합니다. 지역균형전형에서는 40점, 일반전형에서는 20점이 반영되는데 과목 이수 내용, 교과 학업 성취도,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을 절대평가로 점수화 한다고 합니다. 서울대의 예시를 보면 전공 관련 교과(목)를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 2023 대입 서울대 교과 평가: 평가 항목과 평가 내용 〉

평가 항목	평가 내용	교과학습 발달상황 영역
과목 이수 내용	－ 교과(목)별 위계에 따른 선택과목 이수 내용 － 진로·적성에 따른 선택과목 이수 내용 [예시] 공과대학 평가: 수학, 과학 교과 이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 [예시] 경제학부 평가: 수학, 사회 교과 이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교과(목) 이수 현황
교과 학업 성취도	－ 기초 교과 영역 및 모집단위 관련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평가함. － 과목 수준,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고려함.	교과(목) 학업성적
교과 학업 수행 내용	－ 교과(목)별 수업 활동에서 나타난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일부 대학에서는 지원 자격으로 과목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기를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대학교의 2023학년도 대입 교과이수 기준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서울대학교 교과이수 기준

66

교과이수 기준 I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3과목 + 과학 교과 중 3과목 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2과목 + 과학 교과 중 4과목
생활·교양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 1과목

교과이수 기준 II

수학	일반선택 4과목 또는 일반선택 3과목 + 진로선택 1과목	2개 교과(군) 이상에서 충족
과학	일반선택 3과목 + 진로선택 2과목 또는 일반선택 2과목 + 진로선택 3과목	
사회	일반선택 3과목 + 진로선택 1과목 또는 일반선택 2과목 + 진로선택 2과목	

- Q 서울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2005학년도부터 교과이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Q 서울대학교의 교과이수 기준은 지원 자격과 무관하지만, 교과이수 기준의 충족 여부는 수시모집 서류 평가 및 정시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합니다.
- Q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영역에 따른 기준 I 과 기준 II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99

한양대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의 자연계 추천 기준과 홍익대 미술우수자 지원 자격 등에서도 교과 이수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익대(미술우수자전형) 지원 자격과 한양대(학생부교과) 자연 계열의 추천 기준

66

홍익대 미술우수자 지원 자격

- Q 미술에 관한 교과(진로선택과목 또는 전문교과 I)를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한양대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 추천 기준

- Q 지원 모집 단위의 계열이 '자연'인 경우 아래의 i, ii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i. 수학 교과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중 1과목 이상 이수
- ii. 과학 교과에서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진로선택과목) 중 1과목 이상 이수

99

마지막으로 과목 선택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수하였는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학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라 내신이 다소 낮게 나오더라도 지원 학과(계열)와 관련한 심화 과목이나 전문교과 과목에 도전한 학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과목 이수 자체로만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택과목의 성취 수준과 내용, 수강 신청 이유 및 배경, 어려운 과목 도전, 고교 내 교육 관련 활동과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목 선택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시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선생님!

경기 풍생고등학교 교사 김성기



**Q1** 예비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해야 할 게 많다고 하는데, 방학 동안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우선 자신이 어떤 분야의 전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공 탐색을 진행하여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 어떤 학과를 진학해야 하며 대학에서 개설된 학과는 어떤 학과가 있는지 미리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대학과 학과가 결정된다면 대학에서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다양한 전형 방법의 탐색도 더불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대학진학은 크게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수시에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위주전형, 실기위주전형이 있고, 정시는 수능위주전형과 실기위주전형이 있습니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은 대부분 대학이 1) 내신, 2) 내신+수능최저학력기준, 3) 내신+면접 등 3가지 유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와 비교과 전체 및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기초학업역량(학업 성취도와 학업 의지/지적 호기심 및 탐구 능력/학업 태도), 전공적합성(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전공 관련 활동 경험/전공에 대한 열정), 인성(성실성/공동체 의식/소통역량), 발전 가능성(창의성/종합적 사고/자기주도성)등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정시는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 성적이 합격을 좌우합니다. 성적에 따라 수시, 정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내신 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정시를 준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제2외국어(선택)를 보게 되고, 성적이 나오면 학생 성적에 따라 대학을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장의 원서를 쓰게 됩니다. 군별로 대학과 학과가 있고 그중 성적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면 됩니다.

때문에 예비 고등학생은 학생부교과전형 준비를 위해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공부에 충실해야 하고 더불어 정시 준비를 위해 수능 교과목의 기본 학습 향상에 노력해야 대학교 입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2차 지필 평가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한 후 그해 5월 정도까지는 자신의 학습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자신의 학습 패턴을 유지하면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고등학교 입학 후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예비 고등학생입니다. 선배들과 다르게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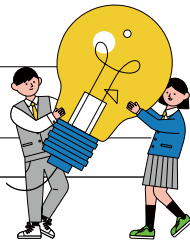


2024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기재 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이 대학입시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예비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기재사항이 대폭 축소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율동아리가 대학입시에 반영되지 않고, 진로 희망 분야도 대학입시에 반영되지 않으며,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도 대학입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과 영역 중 대학입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교과 활동(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교내 동아리 활동 및 창의적 체험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며 이와 같은 비교과 영역이 주된 평가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학년도 변화하는 비교과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2학년도(고2)	2023학년도(고1)	2024학년도(중3)
교과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미기재</li><li>과목당 500자</li><li>교과 세부 필수 입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li><li>과목당 500자</li><li>교과 세부 필수 입력</li></ul>
자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연간 500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연간 500자</li></ul>
동아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자율동아리 연간 1개(30자) 기재</li><li>청소년 단체 활동 단체명만 기재</li><li>소논문 기재 금지</li><li>연간 700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li><li>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li><li>소논문 기재 금지</li><li>연간 700자</li></ul>
비교과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li></ul>
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특기사항 미기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특기사항 미기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특기사항 미기재</li></ul>
진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진로 희망분야 대입 미반영</li><li>연간 700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진로 희망분야 대입 미반영</li><li>연간 700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진로 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li><li>연간 700자</li></ul>
수상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교내수상 학기당 1건 (3년간 6건) 대입 반영</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입 미반영</li></ul>
독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도서명과 저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도서명과 저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입 미반영</li></ul>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연간 500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연간 500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연간 500자</li></ul>



**Q3**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내년부터 자기소개서 양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을 입학하는 2022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의 서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 학습경험과 교내 활동을 쓰도록 한 1번 항목과 2번 항목의 문항을 통합하여 학습경험과 교내 활동 글자 수 1,500자 이내의 1개 항목으로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며,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를 작성했던 3번 항목도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 경험 800자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게 하여 기존 4개 항목 5,000자에서 3개 항목 3,100자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항목과 글자 수가 축소됨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시 불필요한 언급이나 장황한 서술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경험과 활동을 자세하게 나열하던 것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추상적인 표현이나 상투적인 표현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학교 교내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활동에 근거하여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을 담백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경험이 자량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맞춤법은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지원하는 대학의 인재상을 잘 참고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 변화하는 자기소개서 내용과 글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글자 수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1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1,000자	1,500자
2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세요.	1,000자	800자
4	대학 자율 문항	대학 자율 문항	1,000자 또는 1,500자	800자

**Q4**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방학 동안 취약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선생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취약과목의 공부를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 계획이 필요합니다. 학습계획은 단기 계획과 장기계획으로 나누어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면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계획을 잘 세우고 이를 제대로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실전을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성적이 오르는 경우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 세우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습계획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분량을 점검하고 그 양만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일일계획, 주간계획, 월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사람의 공부계획을 따라 하지 말고, 자신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가는 계획은 중간에 포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계획 세우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보면 어떤 학생은 교과서만 열심히 읽고, 어떤 학생은 문제만 열심히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모두 균형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론과 문제 풀이를 적당히 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의 문제를 바로 풀지 말고 다른 연습장에 풀고 난 후 틀린 문제는 표시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더불어 취약과목의 기초가 되는 공부 방법은 학교에서 취약 과목을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해 보셨으므로 그 학습 방법을 제일 잘 알고 계신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선생님을 찾아뵙고 상담 신청을 하여 구체적 학습 방법을 여쭙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부란 학습한 내용을 두뇌에 기억시키는 일이므로 학습한 내용을 잊지 않으려는 망각과의 싸움입니다. 16년간 기억을 연구한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실험에 의하면 한번 기억한 것도 한 달이 지나면 20%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학습에 있어 도달하고 싶은 목표와 현재 성적 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학습 실천 방안은 바로 복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습은 많은 시간을 들여 따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복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복습은 그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바로 복습하는 것입니다. 1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그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연상해 보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습은 하루 동안 학습한 내용을 그날그날 복습하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을 정해 그날 학습한 내용을 일정한 분량의 노트에 기록해 보고,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공부한 교재 및 노트를 다시 펼쳐 놓고 기억하며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습한 내용을 토요일에 총 복습 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입니다. 물론 일요일에는 공부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혹시 토요일까지 복습이 마무리되지 못했다면 쉬는 시간을 줄여 일요일에 복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습은 일주일 단위의 복습 내용을 월말에 총정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복습을 통해 감소하는 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영구 보존하여 최대한 망각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학습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Q5**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수치화 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내신 성적 등과 같이 수치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을 평가하는 정량평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정성평가는 단순히 교과 성적에 활용하여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등급, 이수교과목 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석차등급을 받게 된 지원자의 학습 환경 및 지원자의 학업태도와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지원자의 교과 성적에 바탕으로 수상 경력,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 활동 상황 등을 통해 지원자의 학업 역량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여러 항목과 함께 다면 평가를 통해 지원자가 대학에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수학능력을 평가합니다.

그 때문에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주어진 환경 내에서의 학업 성장과 성취가 보인다면 대학으로부터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교과 성적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비록 비교과가 ‘교과 성적’을 통해 드러내지 못한 본인의 ‘우수성’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비교과만 풍성하고 교과 성적이 부실하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명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정량평가에 해당하는 부분과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부분 모두가 우수해지도록 동시에 노력해야함은 물론이고 특히, 학교생활의 충실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학교생활기록부 정성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Q6** **소인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해 이수하는 것이 평가에 유리할까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달라지는 고교 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교과목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해당 교과목의 학습 과정에서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 스스로 고등학교 3년간의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 학교에 마련되어진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다른 학교와 연계된 소인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 공동교육과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소인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 공동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학생의 관심도가 높은 과목을 개설하기도 하기에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과목이라면 과감한 선택 및 이수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가 학습 능력 측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 노력과 의지, 열정, 도전정신 등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이 학생 스스로 진로와 관련된 과목 학습을 통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소인수과목, 심화선택과목, 공동교육과정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와 관련된 사항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개별화된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이에 담긴 수업내용이 평가에서 마지막 남은 부분일 수 있기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의 선택과 학습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AAA

## All About Admissions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은  
수험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 Ⅲ. 진로탐색

76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슬기로운 고교생활
82	자녀의 꿈만들과 진로진학교육
88	지능형 로봇의 현재와 미래
94	미래사회와 함께 하는 산림과학
100	선배가 들려주는 진로 이야기



#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즐거로운 고교 생활

충북 청석고등학교 교사 오용식

## 들어가며

18어게인.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이 고교 시절로 돌아간다는 설정에 눈길이 갔습니다.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고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늦은 야자, 잦은 시험, 성적 스트레스 그리고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까지. 세차게 고개를 젓다가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봤습니다. 진로를 설정하고,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그때. 바로 고교 시절이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 때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 있기에 그만큼 부여되는 의무도 책임도 뒤따르게 됩니다.

고교 생활 3년의 삶이 여러분의 10년 후 또 30년 후, 50년의 모습을 결정지을 수도 있기에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생을 지도한 교사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즐기로운 고교 생활을 위한 팁을 전수하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도 18어게인!



##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여러분은 고교생활을 통해 무엇으로 성장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란 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② 그 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③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로 전환

시키고 ④ 도전하고 ⑤ 협력하며 ⑥ 창의력을 발휘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⑦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말합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벌써부터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을 충실히 생활한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재상 〉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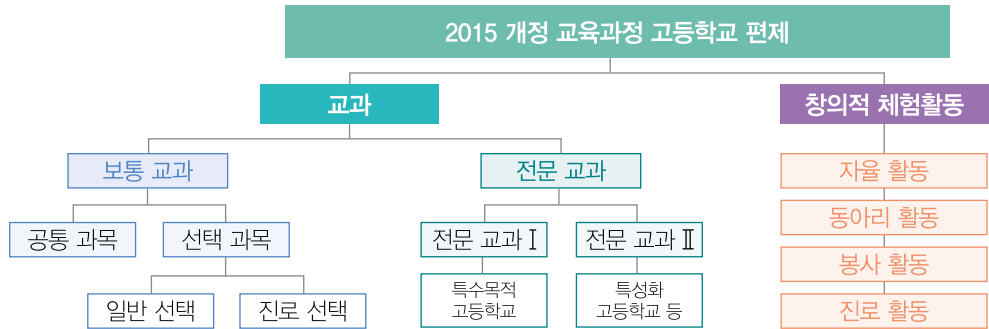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 〉

핵심 역량 요소	개 념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향유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고,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

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편제의 이해와 교육부의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교과목 구성안, 2022학년도부터 변화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과목 구조변화를 참고하여 진로에 적합한 나만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과목 구조 변화 〉

과목 구분	2021학년도 대입 수능	2022학년도 대입 수능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	공통: 독서, 문학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수학	가형(이과)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공통: 수학, 수해 선택: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나형(문과) 수학, 수해, 확률과 통계	
사회 탐구	사회 9과목 중 택2	사회 9과목/과학 8과목 중 택2
과학 탐구	과학 8과목 중 택2	
영어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한국사	
제2외국어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 중 택1	

〈 교육부의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교과목 구성안 〉

교과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독서, 문학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수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영어	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실용영어, 영어권 문화, 영미문학읽기, 진로영어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고전과 윤리,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 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생활, 체육탐구
	예술(음악/미술)		음악, 미술, 연극	합창합주, 음악감상과 비평, 미술창작, 미술감상과 비평
생활 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생명과학, 공학일반, 경영일반, 해양과학, 가정과학, 지식재산일반
	제 2외국어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Ⅱ, 스페인어Ⅱ, 중국어Ⅱ, 일본어Ⅱ, 러시아어Ⅱ, 아랍어Ⅱ, 베트남어Ⅱ
	한문		한문Ⅰ	한문Ⅱ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경제, 논술	

## 학년별 주요 활동 계획하고 실천하기

	진로진학	학습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로 고민 및 탐색기(1차 과목선택)</li> <li>교내활동 탐색 및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탐색 및 적응</li> <li>전인적 교과학습</li> <li>다양한 교과 활동 수행</li> </ul>
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로 결정기(2차 과목선택)</li> <li>학생부 관리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적 교과 심화학습</li> <li>진로 관련 활동 수행</li> </ul>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시 준비(서류, 대학별고사)</li> <li>정시 준비(수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교과 내신 관리</li> <li>수능 학습(정시/수시)</li> </ul>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한 노하우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중요한 평가 자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학교생활은 기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여러분의 학교생활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한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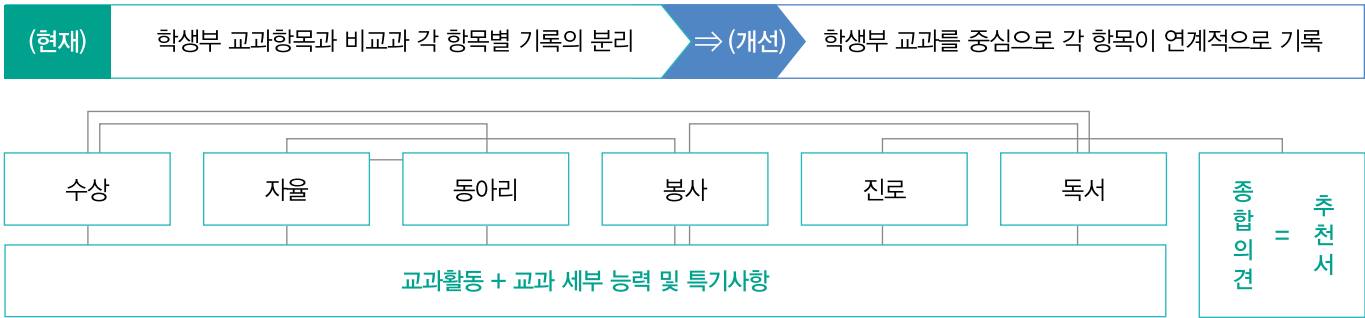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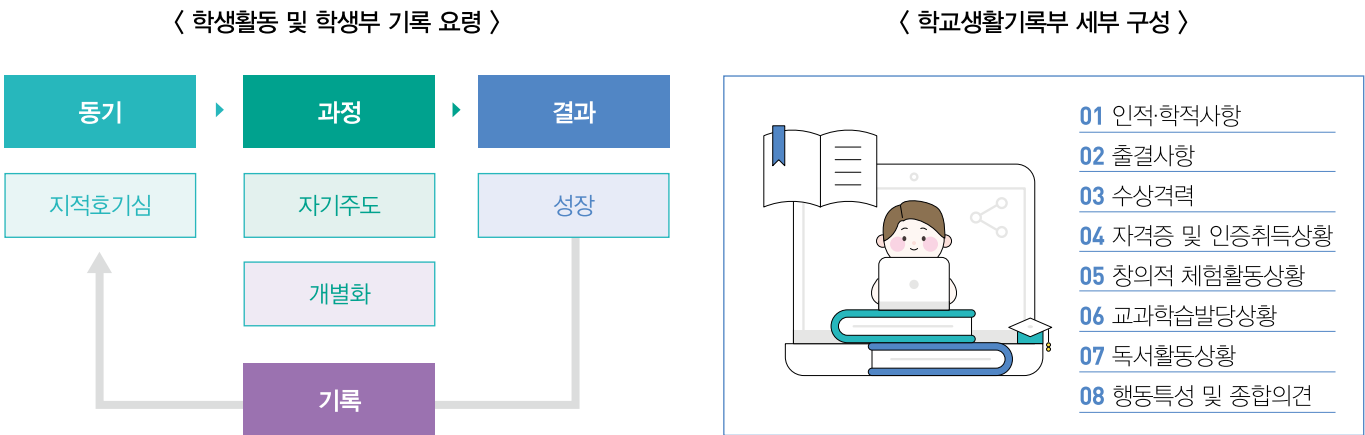
첫째, 학교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교과수업에서 생긴 호기심을 자신의 진로와 연관 지어 독서, 동아리 활동, 진로 체험 등을 활용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연계적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등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십시오. 입시를 위해 억지로 학교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한 활동은 힘들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장 즐거운 상황을 생각하며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신의 진로와 연관 지어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궁금한 것을 독서, 동아리 활동, 교사 질문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독서, 깊이 있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독서’를 통해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하는 독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는 독서는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진로로 구성된 모둠에서 하나의 책을 읽고 자신의 진로와 연관 지어 독서 토론을 진행해 보니 학생들의 상상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고 토론하고 발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책의 내용도 더 잘 이해되었다는 소감을 듣고 수업에 보람을 느낍니다.

넷째,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창의융합 상상 실현 진로아카데미를 3년 동안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창의력에 놀랐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50개 조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시제품을 보면서, 혼자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상상력을 이끌어 내는 학생들의 능력을 발견하고 감탄하곤 합니다.





\* 김경범/김덕년/전동구/김해웅(2016. 2. 29.)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의 재구조화](#), 서울대 입학본부

## 미래를 위해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해

앞서 여러분들은 어른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이라 함은 최소한 자신의 삶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삶의 방식이 있고 존중받을 만한 다양한 가치들이 있지만, ‘어른’으로 살기 위해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가치를 몇 가지 당부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작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룬 후 무기력증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때 무척 안타깝습니다. 작은 꿈은 이루기 쉽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룬 뒤 더 이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삶은 재미가 없어지지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도전 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은 독서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나름대로 한 분야의 정수(핵심)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현대 사회는 물론 미래 사회는 세분화된 지식을 융합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가공한 지식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각 과목으로 세분된 지식을 서로 융합하고 합쳐 다가오는 시대에 필요한 지식으로 가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갈 책들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기보다 수많은 사상과 지식을 융합한 것이 많습니다.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다른 지식과 융합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도 독서는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학교라는 조직에서 필요한 규칙을 지키고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험을 계속 쌓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필요한 인재로 인정받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의 친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돼서 같이 웃고 공감해 줄 수 있었으면 할 때 전화 걸 친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도 성공적이었다는 성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베풀고 배려하지 않는데 곁에 머물러 줄 친구는 없기에 평생을 같이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친구를 악하게 대하지 말고 조금은 손해 봐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진심으로 대한다면 진정한 친구 하나 이상은 곁에 있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사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 무엇도 기적이 아닌 삶,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삶.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단테 알리기에리 (Dante Alighieri, Durante degli Alighieri) 시인 —

## 자녀의 꿈만둑과 진로진학교육

충남 신평고등학교 교사 **김래홍**

# 1 고등학교 생활 3년, 10대의 마지막 3년이라는 시간에 열정을! Part



자녀의 고등학교 생활 3년이라는 시간은 10대의 마지막 3년이 되며 인생 설계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고등학생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꿈을 성취하고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서는 자녀에게 유의미한 활동의 연계 속에 진로와 대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행착오 속에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성장통을 줄이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많은 정보와 다양한 기회 속에서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의미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연계되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꿈만둑과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10대의 마지막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녀의 진로진학교육 방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고등학교 3년, 자녀에게 유의미한 활동의 연계 속에 진로와 진학계획 세우기

교육과정이 바뀌고 대입 정책에 따라 대학입학 전형계획이 변화되는 시기인 만큼 자녀의 진학에 대한 불안감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영역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로 학교 교육의 수업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의 기본이 되는 교과 활동의 중요성은 커지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학생부 기재 항목을 축소하여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은 대입 반영을 축소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를 통해 학교나 교사 간 기록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에서 교과 영역의 평가를 확대하는 것에 무게를 더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에 대한 기록과 평가에 대해 부담이 줄어든 만큼 교과 영역의 평가 비중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생부의 교과 외 영역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이루어진 창의적 체험 활동과 수상 경력 그리고 독서 활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네 영역의 특기사항에 기록되는 글자 수는 자율 활동과 동아리 활동은 500자, 진로 활동은 700자입니다. 반면에 교과 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과목별 500글자입니다. 한 학년에서 수강하는 과목이 10과목이라면 최대 5,000자에 해당하며 학교생활기록부의 가장 많은 글자 수가 기록되는 영역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 영역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학습활동 참여도와 태도, 학업능력,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을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수행평가와 수업 활동을 통한 학습 목표 도달 정도와 학생이 성장한 내용을 기록하며 기록된 내용에 따라 '교과목의 또 다른 등급'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학생의 학업 역량에

대해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대입반영이 축소되는 반면, 교과 영역의 비중은 확대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비교과 영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보다 교과 영역의 비중이 커지니 그에 따라 학생부 관리의 초점을 학생으로서 수업관련 활동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성취 수준을 넓게 평가함으로써 교과성적에 대한 변별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비교과 활동이 그만큼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독서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협업 능력 등을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인·적성을 표현하는 학생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과 활동일지라도 교과 활동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닌 교과와 비교과 영역의 활동을 함께 채워나갈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과 집중: 진로진학에 대한 목표와 탐색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고등학생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교육환경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성장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며, 2015 교육과정은 기존의 문과와 이과 개념에서 벗어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교육과정입니다.

고등학교 설계의 주인공은 바로 학생이며 3년이라는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의 역량을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유의미하게 기록되어 매력적인 학생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기본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수업 활동을 통



해 학업 역량을 펼치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선택과목을 통한 학생의 진로에 대한 목표 의식과 노력 그리고 성장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와 진로에 따라 설계하고 탐색을 통해 자녀의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대입 전반에서 성공적이고 실천적인 경쟁력을 갖추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녀의 꿈만듦과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성장교육

종합해보면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로진학탐색 및 계획을 세우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학생부 기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 수업에

충실히 임하며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학업역량을 키우고 진로진학탐색을 하여 대입 전략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2학년은 대입전형 최적의 준비 시기로 교과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전공에 따른 필요 부분과 역량을 채워나가고 교과와 비교과 영역의 연계 활동을 추구해야 합니다. 3학년은 대입전형에 대해 자신의 장단점을 따져 적합한 대입전략을 마무리하며 수능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3년, 10대의 마지막 3년이라는 시간을 미래를 위해 선택과 집중하고 더 나아가 심취토록 학교와 더불어 자녀를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꿈 만듦과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역량 있는 자녀로 성장토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2015 교육과정의 키워드인 ‘선택과 집중 그리고 도전과 심취’라는 키워드를 가슴에 품고 생활한다면 3년 후의 자녀는 크게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 2 자녀의 꿈만듦과 진로진학 교육 Part



교육과정의 개정과 대입정책의 변화에 따라 자녀의 진학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의 교과 성적을 비롯한 학생부 기록을 분석하고 수시와 정시에 대한 선택 그리고 지원 대학과 모집단위의 선정 등 자녀의 성공적인 진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업역량을 파악하고 대입 정보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맞는 맞춤형 대입지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계획과 구체화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 합리적인 카테고리를 완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진학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 자녀의 꿈만듦과 진로진학을 위해 함께 하기

#### ① 자녀의 학습습관 점검을 통한 적합한 학습패턴 유지

자녀가 책상에 앉아 학습하는 시간이 많음에도 원하는 만큼의 교과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습 시간과 교과성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학습습관을 살펴보고 집중 가능 시간과 휴식 시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학습에 방해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사용습관을 들이도록 하며, 자녀의 일정 수면 시간을 확보하여 학습패턴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② 자녀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유지

학교의 시험과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 가정에서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두뇌활동에 영향을 주는 충분한 영양의 식사 준비와 편안히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가정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 ③ 자녀에게 적합한 진로 정보를 통한 진로 다지기

자녀의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 및 진로 정보를 함께 찾아보며 자녀가 미래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진로가 확립되어야 진로 연계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인·적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진로 정보를 함께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로가 확립되었을 때 학교생활과 교과목의 선택 그리고 진학의 방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찾는 진로 정보는 중요합니다.

## ④ 자녀에게 맞는 대입 정보 획득과 전략 수립

다양하고 많은 대입 정보 속에서 자녀에게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녀의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서는 대입에 대한 많은 정보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도교육청이나 대학교의 대입설명회와 진로진학상담을 통해 자녀에게 유의미한 입시 정보 획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대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녀와 함께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3년이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의 역량을 펼치고 성장토록 자녀와 함께 진로진학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자녀의 대입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의 장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내신 교과성적, 진로 연계한 주요 교과목의 성적 분포와 성취도, 잘하는 교과목과 취약한 교과목 등의 종합 분석을 통해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비교과 영역에서의 역량에 대해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 자녀의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관 지어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자녀에게 적합한 대입전형을 선별하고 준비토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자녀에게 적합한 대입전형 함께 분석하기

자녀의 고등학교 기간 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적합한 대입전형을 함께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녀의 지적 호기심에 대한 활동과 역량이 어떠한 대입전형과 유의미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찾아야 할 것입니다.

### ① 학교생활기록부가 장점인 자녀 [학생부교과 / 학생부종합전형]

교육과정 속에서 교과성적이 우수한 자녀는 학교장 추천전형 등의 학생부교과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전형의 경우 다른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고,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서 학교장 추천전형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이 높다면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분석하였을 때, 지적 호기심에 대해 교육과정 속에서 역량을 발휘한 충분한 기록과 그 연계성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자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대학의 경우에 전체 모집인원 중 많은 인원을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기에 학생부가 우수한 학생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②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장점인 자녀 [최저학력기준 적용 수시 / 정시]

다수의 N수생과 함께 응시하는 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월과 6월, 9월에 실시되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고려하여 수시모집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전형이나 정시모집에 대한 지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모의고사의 영역별 등급을 살펴보기도 해야 하지만 영역별 백분위 분석을 통해 수학능력시험에서의 등급과 성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③ 특기 능력이 장점인 자녀 [논술 / 실기 / 특기자 전형]

학생부 교과성적이 아쉬운 상태에서 논술 대비가 잘 되어 있으며,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이 가능한 자녀라면 대학의 논술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은 경쟁률이 가장 높은 전형 중 하나이기에 합격률은 낮은 전형이지만, 이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가 합격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문계열 논술전형은 꾸준히 글을 읽고 쓰는 연습을 하고, 시사 이슈와 비판적 사고력 등 사고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연계열 논술전형은 수학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실기전형은 특정 영역에 대한 자녀의 소질을 고려하여 우수한 능력을 갖춘 자녀라면 관심을 두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자격 기준을 제시하거나 학생부종합전형과 유사한 방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족 조건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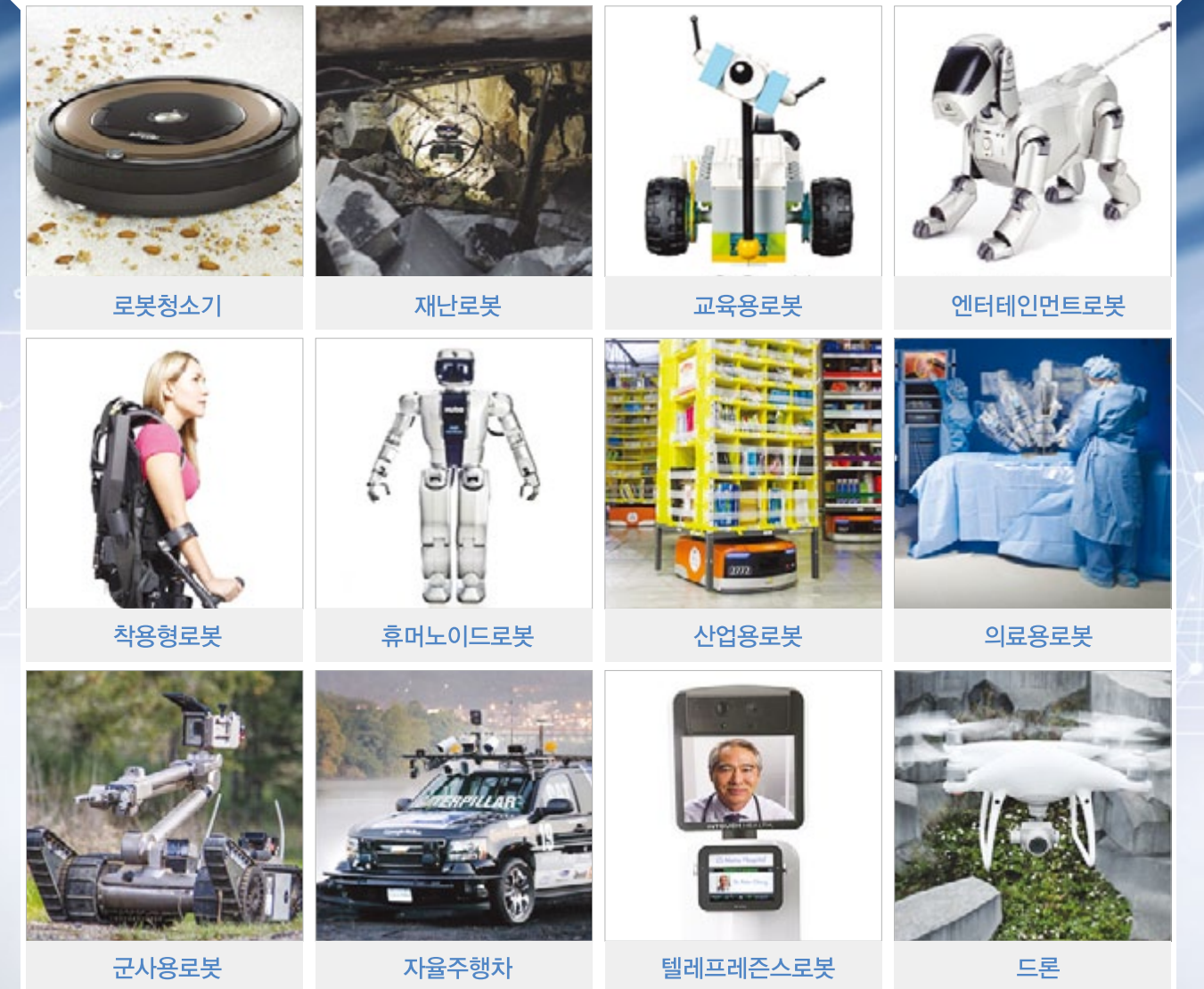


## 지능형 로봇의 현재와 미래

충북대학교 지능로봇공학과 교수 황영배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깜짝 놀랄 것이다.

— 에디슨 (Edison, Thomas Alva Edison) 발명가 —



### 로봇공학의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로봇을 접하는 것은 청소로봇이나 드론 등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군사용 로봇 등 이미 실용화되어서 기존에 사람이 수행했던 노동집약적인 일들이나 위험한 작업, 정밀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이 강조되고 있는데, 혼자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용 로봇이나 같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로봇, 그리고, 원격지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텔레프레즌스 로봇도 점차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율주행차도 넓은 의미에서 지능형 로봇의 분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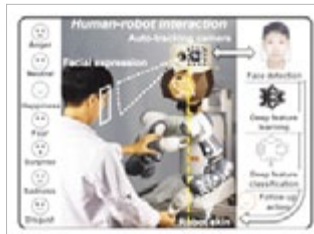
## 로봇공학에서의 핵심 연구주제



객체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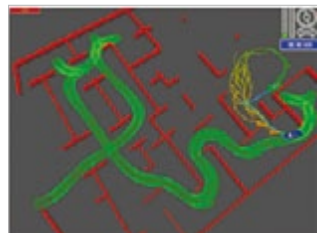
객체파지



인간 - 로봇 상호작용



환경인지



자율주행



로봇센서



실용적인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서 로봇공학자, 인공지능 연구자, 센서와 로봇 하드웨어 개발자 등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주제는 로봇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 객체인지 및 파지

로봇에게 할당된 작업이나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작업 공간 내에서 특정 객체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로 시각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인지된 객체를 로봇 팔과 같은 조종 장치 등을 이용해서 파지하고 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



### 환경인지 및 자율주행

로봇이 작업 환경에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고 이 지도상에서 로봇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환경인지가 필요하며,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기 위한 경로계획과 자율주행도 로봇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다.



### 로봇센서

위에서 언급된 객체인지 및 파지, 환경인지 및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거리센서, 관성센서, 촉각센서 등 다양한 센서가 필요하며, 정확한 센서를 개발하는 것은 로봇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 인간-로봇 상호작용

교육용 로봇이나 엔터테인먼트 로봇, 텔레프레전스 로봇과 같이 사람과 의사소통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감정적 교감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은 주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 그리고 의도 등을 인식하여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기술이다.

## 국내 로봇공학의 발전



미국 재난로봇대회 우승



LG 공향 안내로봇



KT 서빙로봇



고영 의료로봇/현대로보틱스 협동로봇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 대학에서 로봇공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로봇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실생활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로봇들을 자주 접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 미국 재난로봇대회 우승

2015년 미국 고등국방성(DARPA)에서는 재난로봇이 콘센트를 바꿔서 꼽고, 드릴로 구멍을 뚫고 계단을 올라가는 등 다양한 임무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수행하는 팀이 우승하는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국내 KAIST 연구팀이 미국의 유명 대학들을 제치고 휴보라는 로봇으로 우승을 차지해서 200만 달러의 상금을 탔으며, 이는 국내의 로봇공학의 높은 수준을 알릴 기회가 되었다.



### 공향 안내로봇

LG에서는 인천공항에 음성인식을 통해 4개 국어로 대화할 수 있고, 공향의 다양한 장소로 에스코트해 줄 수 있는 안내로봇을 시범 서비스하고 있다. 이동 중에 발견한 장애물을 자동으로 피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혼잡한 인천공항에서도 문제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 KT 서빙로봇

KT에서는 자체 개발한 3차원 공간맵핑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SI 서빙로봇의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좁은 통로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고객에게 음식과 음료를 자동으로 제공하여,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비대면 서빙 서비스를 가능케 하였다.



### 고영 의료로봇

고영테크놀로지에서는 CT나 MRI 장비로 찍은 환자의 뇌 사진을 이용해서 치명적 혈관을 피해 설정한 최적의 수술 부위와 경로를 통해 1mm 이하의 정밀도로 뇌수술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수술 후의 뇌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 현대로보틱스 협동로봇

기존에 자동차 조립과 같이 공장 라인에 들어가는 큰 산업용 로봇은 현재까지 높은 완성도로 현장에 많이 보급되었지만, 최근에는 사람과 협동이 가능하고 유연하면서 공간 차이가 최소화되는 협동 로봇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협동로봇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편의 기능과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전문가들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로봇공학의 전망

로봇공학 기술자는 산업용·의료용·군사용 및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로봇을 개발한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로봇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총 1,867개사로, 1,675개사인 2014년에 비해 192개사(11.5%)가 늘었다. 로봇산업 종사자도 지난 2014년 2만 4,623명에서 2015년 2만 5,916명으로 증가했다. 로봇산업 종사자의 42.5%인 1만 2,013명은 로봇 제조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로봇 부품 및 부품품 분야 종사자는 9,438명이다. 로봇산업은 총생산액이 3조 9,576억 원으로 2014년에 비해 17.0%가 늘어나고 로봇 관련 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 생산액 등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미래 유망 직종으로 꼽히고 있다.

로봇공학자는 로봇개발 연구소와 로봇 관련 제품생산 기업·로봇 교육 관련 기업·자동화 관련 기업 등에서 근무한다. 최첨단기술의 융합체인 로봇응용산업은 미래 국가핵심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삶의 질 향상·고령화 시대의 도래 등으로 기존 산업현장은 물론 환경·실버·의료·국방·교육 등 우리 생활 전 분야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 교육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게임 로봇, 헬스케어 로봇, 의료·재활 로봇, 사회 안전 로봇 등이 점차 상용화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공연 로봇의 실용화에 따라 로봇 오퍼레이터·로봇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로봇 디자이너·로봇 심리학자·로봇 점검 및 AS 기술자 등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거나 더 전문적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용 로봇의 시장이 커짐에 따라 로봇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부문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사람의 형태를 가진 안드로이드 로봇은 연극 공연을 하거나 패션모델로 활동하는 등 문화 콘텐츠로도 활용 가치가 높다. 로봇이 공연을 한다고 하면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창의력을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로봇의 응용 분야가 확대 될수록 관련 직업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 졸업 후 진로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대표 기술은 각종 IT 기술을 융합하는 로봇공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의 예로 볼 수 있듯이 더는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요소가 아니다. 지능로봇공학은 우리 생활 전반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에 취업할 수 있다.

### 1. 인공지능 SW 기업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의 검색엔진과 포털, 소셜메신저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활발하기 연구하고 있으며, SK T 브레인, 삼성 리서치와 같이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기업 연구소, NC 소프트와 같이 게임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티맥소프트, 솔트룩스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취업할 수 있다.

### 2. IT 기업

지능로봇공학에서는 기존의 전자공학에서 배우는 전자회로, 통신, 신호 및 시스템 등의 전통적인 과목도 배운다. 기존의 IT 기업도 로봇 및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증대됨에 따라 삼성전자, 엘지전자, KT, SKT, SK하이닉스 등의 다양한 IT 대기업에 지능로봇공학을 전공으로 취업할 수 있다.

### 3. 자동차 기업

최근 자율주행에 관해 자동차 기업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로봇공학에서의 객체인식 및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에서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만도, 콘티넨탈 등의 다양한 완성차 제조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 4. 로봇 기업

한화테크윈,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등 로봇을 개발하는 다양한 로봇 관련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며, 최근에 로봇 관련하여 물류로봇, 교육로봇, 청소로봇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유진로봇과 로보티즈 등의 로봇 강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다.

### 5. 국가연구소

지능로봇공학은 아직 연구를 통해서 풀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다양한 국가 연구기관에서 인공 지능과 로봇공학을 연구하는 분야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 고등학교 때 준비해야 할 과목/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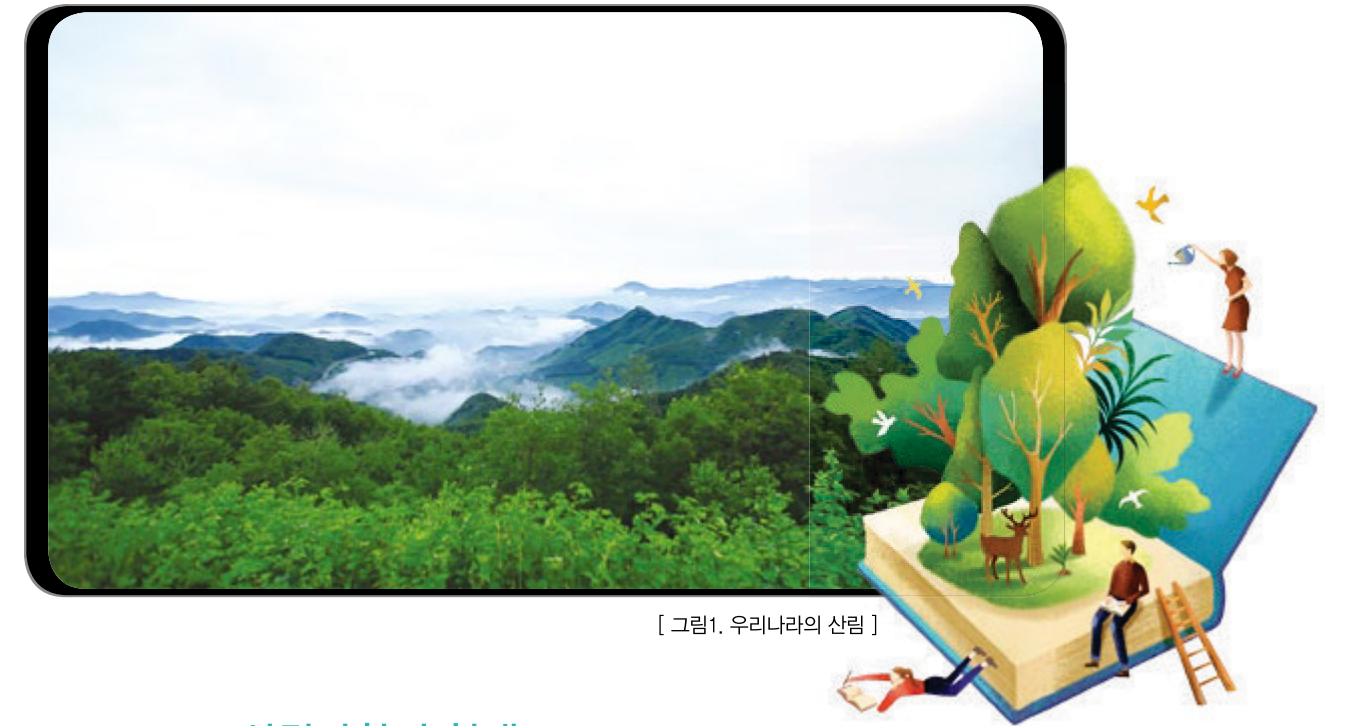
로봇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봇의 전자와 기계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학이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계공학이나 전기·전자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SW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로봇을 만들려면 창의력과 상상력도 중요하다. 또한, 하나의 로봇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노력과 끈기, 인내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일하려면 일을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과 도전 정신도 요구된다.





# 미래 사회와 함께 하는 산림과학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교수 김정성



[ 그림1. 우리나라의 산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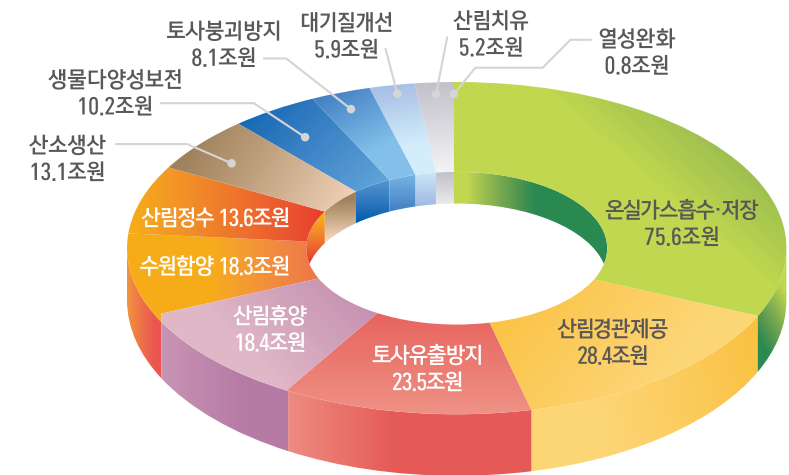
## 산림과학의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65%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OECD 국가 내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산림 부국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는 산림은 대기 정화 기능과 함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인간에게는 휴양과 치유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재와 임산물을 제공하던 전통적인 방식의 산림 활용에서 벗어나 현재는 더 깊이 있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이용 및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환산하면 2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후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고, 활용 가능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산림기본계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람 중심의 “산림자원 순환 경제”체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업인과 산림사업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지수를 향상하는데 목적을 둔 6차 산림기본계획(2018년~2037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림과학(Forest Science)은 산림생태계의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일련의 연구 활동을 포함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따라서 숲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며,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모든 이론과 기술을 포함하는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산림과학의 경계가 확장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숲을 활용하는 산림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혀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그림 2.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자료출처: 산림청 홈페이지) ]

## 산림과학의 전망



산림은 인간의 삶에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보존과 관리를 위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자연환경입니다.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출하여 미래지향적인 산림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들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림과학 분야에서도 “스마트 임업”과 “스마트 포레스트”분야는 산림과학 전 분야에 걸쳐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경영 방식의 스마트화는 가장 먼저 변화되고 있는 산림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림생물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숲의 조성, 수목분류, 산림생태, 수목생리</li><li>• 산림유전자원 및 육종</li></ul>
산림보호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병, 해충, 산불, 대기오염, 야생동물</li><li>• 도시숲관리, 자연보전</li></ul>
산림경영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산림측정, 산림경영, 산림경제 및 평가</li><li>• 산림정책, 유양 및 산림문화, 국제협력</li></ul>
산림공학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산림측량, 산림수분, 사방, 임도, 산림작업 및 기계</li><li>• 목재수확</li></ul>
임산가공 및 이용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질재료, 목재가공, 목구조, 펄프, 제지</li><li>• 바이오 에너지</li></ul>
산림서비스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산림휴양, 산림복지, 산림치유</li></ul>

[ 그림 3. 산림과학의 분야 ]



[ 그림 4. 산림 분야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사례 (국립산림과학원) ]



[ 그림 5. 전통적인 방식의 산림활용 – 목재생산과 이용 (국립산림과학원) ]

우리 삶의 가치가 보다 개인의 행복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산림을 활용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분야와 산림과학이 만나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국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을 위해 산림이 제공하는 자연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일사회를 대비한 남북한 산림협력 등 산림 분야의 전망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림 6.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개요 ]

## :: 졸업 후 진로



산림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도 변화한 사회 분위기에 맞게 다양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정리한 것 이외에도 달리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직업군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 그림 7. 산림과학 전공자의 졸업 후 진로 사례 ]

## :: 고등학교 때 준비해야 할 과목/역량 등



산림과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산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산림과학의 주요 전공은 산림생물학, 산림생태학, 산림육종학, 산림자원학, 조림학, 산림보호학, 산림공학, 산림경제학, 산림경영학, 산림복지학, 산림휴양학, 산림치유학 등 산림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접근하므로 진학 후 다양한 학문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체력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선배가 들려주는 진로 이야기

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 주재연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에 재학 중인 주재연입니다. 올해 'CBNU C·P LAB' 팀의 팀장을 맡고 '토양조사 경진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 [ 세계에는 다양한 토양이 존재합니다. ]



여러분은 토양을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는 매우 다양한 토양이 존재하는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토양입니다. 이제는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사더라도 그 땅에 바로 작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 토양에 대해 분석하고 어떠한 작물이 알맞은지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농업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토양조사 경진대회'는 토양의 단면을 보고 만지면서 어떠한 토양인지 해석하고,

그에 대한 토양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대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한국토양 비료학회'가 '토양조사 경진대회'를 주최하며, 4년에 한 번 '세계 토양조사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 [ 나만의 특별한 경험 ]

여러분들은 살면서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저만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대학교에 입학한 후 전국의 다양한 친구들, 선배님들과 후배들을 만나면서 저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이 남들과 똑같은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싶었으며, 그 기회가 바로 '토양조사 경진대회'입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이 끝나고 잠깐 '토양조사 경진대회'를 설명하실 때 이것이 제가 원하던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와 선배들과 같이 작년에 처음으로 '토양조사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개인전 3등이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토양에 관해 비전공인 제가 3등이라는 성적을 받은 것이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기에, 저는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달성한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CBNU C·P LAB' 동아리를 형성하여 '토양조사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개인전 1등, 단체전 2등이라는 성적을 거두었으며 작년의 저의 노력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 [ 우리들만의 알고리즘 형성 ]



‘토양조사 경진대회’는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50cm의 토양단면을 보고 토양에 존재하는 6개~7개의 층위를 구분한 뒤 각 층위의 토성과 토색, 구조, 강도, 지형과 그밖에 여러 가지 특성들을 적어내고, 최종적으로 토양을 조사한 결과를 농업적으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를 맞추어야 합니다. 이는 토양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힘든 대회입니다. 그런데도 토양에 비전공 학생인 저희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바로 ‘경험과 질의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동아리 활동 형식으로 매주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주변의 토양을 파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토양을 직접 만지면서 토양의 모양이 어떠한지, 토양의 강도는

얼마나 센지, 토양의 점토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각자 토양 조사 경진대회에 관해 공부한 내용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공유한 뒤 질의응답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토양 조사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직접적으로 토양단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에서 토양단면을 검색하여 사진 속의 토양단면을 보고 토양을 해설해 보았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토양단면을 보고 해석하는 연습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토양조사 경진대회’를 위한 저희만의 알고리즘을 형성했습니다. 대회 전 날 ‘한국토양 비료학회’에서 준비한 토양단면을 보고 직접적으로 토양을 해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 저희 팀원들도 직접적으로 토양단면을 보고 해석할 기회가 생기면서 부족했던 점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준비과정들을 통해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 [ 화학, 생물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자. ]



우선 화학과 생물 과목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식물과 토양 내에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들도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듯이, 식물들도 물과 양분 그리고 빛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과 양분은 주로 토양에서, 빛은 햇빛을 통해 공급을 받고 있지만, 이들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으면 식물들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기 다른 식물에 가장 적절한

환경이 무엇인지, 식물과 토양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식물이 성장할 때 식물체 내부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식물의 유전자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식물에서 어떠한 물질이 생성하는지’ 등에 대해 화학적 반응과 생물학적 반응으로 접근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와 관련하여 영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학교까지 와서 굳이 왜 영어를 공부해야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공 공부 또는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면 많은 논문을 참고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양한 대학 생활을 하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영어성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 또는 법인에서 주최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나, 자매대학 파견 등은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재미를 보태줄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영어성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자신만의 대학 생활을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영어성적을 미리 올려놓을 것을 추천합니다.



### [ 식물자원이 미래의 인류를 살린다. ]

앞으로 기후변화, 농경지의 면적 감소로 식량 생산이 감소할 것이며,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수로 인해 식량 생산력의 증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식물자원과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자원학과를 졸업하시면 농업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원, 농업행정기관의 행정가와 지도자, 농업 관련 회사의 전문가 및 우리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 및 해외 농업경영 전문가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대학을 진학한 후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All About Admissions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은  
수험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 IV. 학습코칭

106	혼공시대 – 효과적인 인강 학습법
112	자기주도학습 코칭 역량검사
114	꼭 알아둬야 할 자기주도학습의 7가지 원리



# 혼공시대

## 효과적인 인강 학습법

경북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연구교수 황두환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학교생활에 여러 변화가 생겼다. 학교 수업은 선생님과 교실에서 만나 진행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데, 1학기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아침에 등교하여 정해진 시간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알림종 소리에 일과를 보냈던 이전과는 달리, 스스로 매주 올라온 수업을 챙겨 들어야 한다. 매주 빠뜨리지 않고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해야 하므로, 학습자로서 우리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더욱이 친구들도 없이 혼자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영상으로 수업을 들어 수업에 몰입도도 떨어질 수 있다. 올려진 영상의 재생 시간이 종료되는 시간 또는 실시간 수업이 종료되는 시간에 공부를 끝내버리는 학생도 있다. 그러나 혼공시대일수록, 인터넷을 통해 학습할수록 자신의 학습 정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혼공시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수업 전 '공부 계획을 세워라', 수업 중 '한 가지에 집중하라', 수업 후 '자신의 학습을 점검해 보라'로 구분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 1

## 수업 전, 공부 계획을 세워라.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만나 공부할 때는 수업 시간표가 있었다. 선생님도 수업시간표에 맞춰 수업을 진행했고, 학생들도 수업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준비하여 참여했다. 그러나 비대면 상황이 되면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 시간을 결정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자신이 수업 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 자율권이 커진 만큼 학습에 관한 책임도 커졌기에 성실히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부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 이번 학기 수업 일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수업 일정을 정리하는 것은 수업의 운영방식과 과제 등 일일 학습 일정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학기 학습 일정을 정리하는 양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최소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수행평가 등의 평가 일정과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주 운영되는 수업의 방식과 과제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학습 일정 관리 양식 예시>

우선 순위		주당 수업		평가항목																	
				중간시험		기말고사		수행평가1		수행평가2		수행평가3		기타							
체육		월요일 2교시		10.26~10.29		12.14~12.17		10.19		11.23											
		월요일 4교시		10.28 (3교시)		12.17 (4교시)		농구 (女, 드리블, 패스)		배드민턴 (서비스, 하이클리어)											
수업활동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29		31~1	7~11	14~18	21~25	28~2	5~9	12~16	19~23	26~30	2~6	9~13	16~20	23~27	30~4	7~11	14~18	12~25	
월 요 일	실시간	○	—	—								중간 시험									
	동영상	—	○	○	○																
	과제	○	—	—																	
	실시간	—	○	○	○															기말 고사	
목 요 일	동영상	○	—	—																	
	과제	○	—	○																	
우선 순위		주당 수업		평가항목																	
				중간시험		기말고사		수행평가1		수행평가2		수행평가3		기타							
체육																					
수업활동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29		31~1	7~11	14~18	21~25	28~2	5~9	12~16	19~23	26~30	2~6	9~13	16~20	23~27	30~4	7~11	14~18	12~25	
월 요 일	실시간											중간 시험									
	동영상																				
	과제																			기말 고사	
	실시간																				
목 요 일	동영상																				
	과제																				

학기 수업 일정을 정리하였다면, 일일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 주 동안 공부해야 할 범위는 대개 교과목별로 선생님이 제시해 준다. 학생들은 그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된다. 일일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게 세워야 한다. 간혹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역사책 공부하기'라고 세우는 학생이 있다. 이처럼 공부 계획을 세운다면, 해당 시간에 역사책에 무슨 내용을 공부할지, 어떻게 공부할지 등을 책상에 앉아 결정해야 하므로 계획을 행동으로 연결하기가 어렵다. 계획을 세울 때는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장소, 학습 범위, 목표 수준, 실천 방식을 넣어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요소를 넣어 공부 계획을 진술할 경우, 문장이 길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것 같다면, 아래와 같이 필요한 요소들을 넣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 <일일 공부 계획 관리 양식 예시>

(2020.11.10)

우선 순위	시간		장소	공부 범위	목표(달성 수준)	공부 방법	달성 여부
	시작	종료					
1	오후 2시	오후 4시	도서관	역사책 1장	시대 흐름 설명(70%)	설명	Y/N
...							
미달성 계획					추가 학습 계획		
□ 시대 흐름 설명					□ 11. 12. 역사 수업 후 학습		

만약, 아웃룩이나 구글 캘린더 또는 핸드폰 스케줄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고자 희망한다면 표에 내용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각 항목의 내용 간에 점(.) 또는 사선(/)을 활용하여 스케줄 등록을 할 수 있다.

### <스케줄 프로그램 활용 시 공부 계획 등록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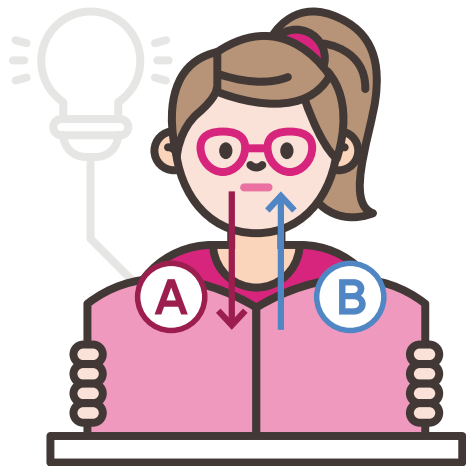
#### • 시간별 입력

제목 (U)	역사책 1장		
위치 (I)	도서관		
시작 시간 (T)	2020-11-10 (화)	오후 14:00	<input type="checkbox"/> 하루종일 (V)
종료 시간 (D)	2020-11-10 (화)	오후 16:00	
1. 오후 2시 ~ 오후 4시 / 도서관 / 역사책 1장 / 시대 흐름 설명(70%) / 설명 / Y			

#### • 일자별 입력

제목 (U)	11월 12일 공부 계획		
위치 (I)	도서관, 집		
시작 시간 (T)	2020-11-10 (화)	오후 09:00	<input type="checkbox"/> 하루종일 (V)
종료 시간 (D)	2020-11-10 (화)	오후 18:00	
1. 오전 9시 ~ 오전 10시 / 도서관 / 역사책 1장 / 시대 흐름 설명 (70%) / 설명 / Y 2. 오전 10시 ~ 오전 11시 / 도서관 / 수학 수업 2장 / 개념 학습 (100%) / 공식 유도 / Y 3. 오후 1시 ~ 오후 3시 / 집 / 영어 3장 / 단어 암기 (70%) / 단어보고 뜻 적기 / N			

## 2 수업 중,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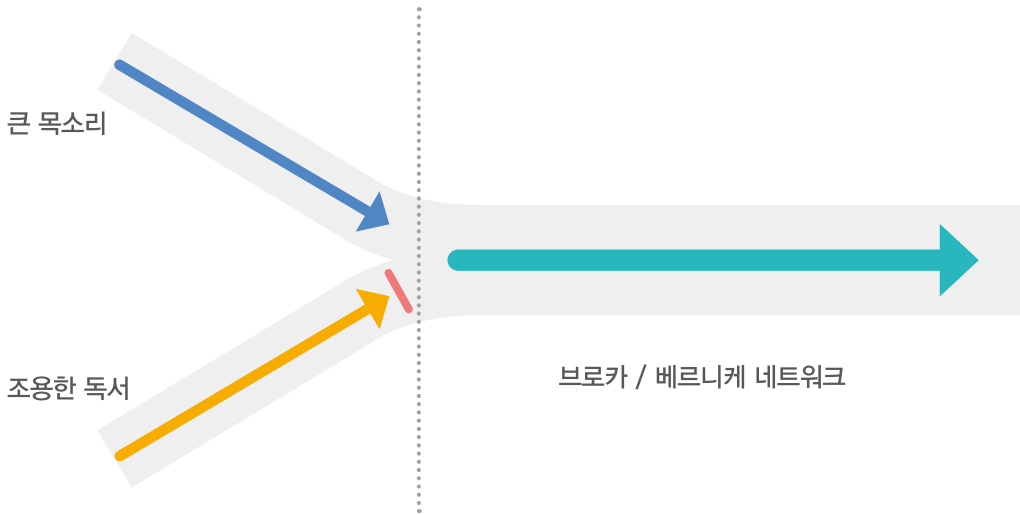
수업 중 많은 학생이 선생님이 제공해 주는 슬라이드를 보며 설명을 듣는다. 그런 이유는 눈으로 내용을 읽으며 설명을 듣는 것이 내용 이해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제레드 쿠니 호바스(2020)는 수업 중에는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공되는 슬라이드나 유인물을 읽는 행동은 묵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묵독 활동을 할 때는 ‘시각 피질’이 먼저 활성화된다(A). 시각 피질은 눈 앞에 펼쳐진 시각적 특징인 색깔, 테두리, 움직임을 처리하는 신경 부위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읽을 때 시각 피질이 먼저 활성화된다는 것은 보는 행위를 먼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는 행동이니까, 시각과 관련한 신경이 먼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다.

그러나 시각 피질이 활성화됨과 거의 동시에 청각 피질과 브로카/베르니케 네트워크라는 영역이 활성화된다(B). 청각 피질은 시각 피질과 마찬가지로 귀로 들어오는 순수한 특징인 음의 높낮이와 크기들을 처리한다. 브로카/베르니케

네트워크는 뇌에 들어온 구어를 처리한다. 이 두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며 혼자서 내용을 읽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활동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각 피질은 좌뇌와 우뇌 모두에 포함되어 있어 두 가지 청각 정보가 동시에 들어와도 정보를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음성을 의미로 처리하는 브로카/베르니케 네트워크는 뇌의 한쪽에만 존재하여 양쪽에서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 <소리의 처리 방식과 조용한 독서의 처리 방식>



선생님의 설명과 슬라이드의 내용을 동시에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귀로 들려오는 선생님의 설명과 눈으로 보는 슬라이드의 내용을 번갈아 처리하고 있다. 수업 하는 동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들은 정보는 브로카/베르니케 네트워크 영역을 통과할 것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정보는 사라질 것이다. 선생님의 설명과 슬라이드의 내용을 ‘빠르게 번갈아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번갈아 볼수록 브로카/베르니케 네트워크에 처리해야 할 정보가 쌓여 병목현상은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수업 중 정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병목현상을 줄여야 한다.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생님 설명과 슬라이드 정보 간을 번갈아 보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 바꿔 말하면,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의 자료는 언제든지 내가 희망할 때 선택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설명은 흐름이 있으므로 내가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단위로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업 중에는 선생님의 설명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공부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기록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의 재생 시간을 재빠르게 메모해 두고, 수업이 종료된 후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가 필기하도록 하자.



# 3

## 수업 후, 자신의 학습을 점검해 보라.

수업이 끝나면, 대개 학생들은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며 책을 덮어 버린다. 그러나 수업은 내가 모르는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다. 처음 접하는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무리 지식을 잘 전달해 주어도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수업을 통해 이해한 내용은 무엇인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 인지를 점검해 보고 보충학습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습을 점검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공부한 내용에 대해 시험을 보는 방법이다. 빈 종이를 꺼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교과서나 수업 시간에 받은 유인물을 보지 않고 떠올려보자. 수업 시간에 학습 내용을 전달하며 선생님이 얘기해 준 예시나 설명도 해당 학습 내용을 떠올리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떠올려보며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자. 비록 최선을 다해서 떠올리려고 노력하였으나 생각보다 기억나는 내용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수업 후, 자신의 학습을 점검해 보는 것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가 아닌 평상시 학습 후 자신의 학습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배운 내용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 시험을 치는 것 같아 부담스러운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학생은 말로 설명해 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말로 설명하다 보면, 설명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설명이 옳은지 그른지와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알기 어렵다. 만약, 말로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녹음기를 함께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전용 녹음기나 핸드폰의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설명을 녹음하고, 그 설명을 다시 들으며 평가해 보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4

## 마치며

### 요약

코로나19로 혼자서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비록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운영하지만, 수업 참여와 과제 수행 시간은 학습자인 내가 결정해야 한다. 혼공시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실천해 보자.

#### 수업 전

공부 계획을 세우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가 언제 있는지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일일 공부 계획을 세워 실천해 보자.

#### 수업 중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하자. 수업 중에는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 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 교과서와 선생님이 준 학습자료를 살 펴보자.

#### 수업 후

수업 중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자. 수업 중 이해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점검해 보고, 보충학습을 실시하자.

### 〈참고 문헌〉

Horvath, J. C. (2020).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김나연 옮김). 서울: 토네이도미디어 그룹. (원서출판 2019)

Carey, B. (2016). 공부의 비밀(송정화 옮김). 파주: 문학동네. (원서출판 2014)

Roediger, H. J., McDaniel, M. A., & Brown, P. C. (2014).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서울: 와이즈베리. (원서출판 2014)



# 자기주도학습 코칭 역량검사



● 각 문항을 읽고 ○△× 체크하세요. ○: 3점 △: 1점 ×: 0점

번호	문항	점수	번호	문항	점수	번호	문항	점수	항목
1	자기주도학습이 왜 필요한지 알고 있다.		7	자기주도학습에 서도 부모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3	식사, 수면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기초 A
2	담당 과목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을 잘 알고 있다.		8	수업 시간에 필기를 꼼꼼히 한다.		14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짓을 하지 않는다.		필수 B
3	방과 후나 주말 등 집에 있을 때에도 규칙적인 공부를 하는 편이다.		9	수업에 필요한 숙제, 준비물을 잘 챙긴다.		15	매일 예습, 복습을 실천하고 있다.		필수 C
4	수업 때나 복습할 때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미리 체크한다.		10	나만의 시험공부 전략을 갖고 있다.		16	시험공부를 할 때 시간이 없어 대충하는 경우는 없다.		필수 D
5	공부하기 전 공부할 분량과 시간을 미리 정하고 시작한다.		11	매일 혹은 매주 다음 공부 계획을 점검한다.		17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은 안 하는 편이다.		필수 E
6	초·중·고 학년별 학습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다.		12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나의 성향과 수준에 맞는 방법이며 적절하다.		18	자기주도학습을 실천하여 성과를 본 경험이 있다.		포인트 F

## 내 자녀의 취약 항목은?

기초 A	자기주도학습이 왜 필요한지, 부모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등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학습코칭의 기초'를 통해 자기주도학습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필수 B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알차지 못하군요. 부모님은 '학교 수업 성공 원칙'을 통해 학교 수업이 자기주도학습의 기반이 됨을 알려 주시고 수업 집중, 필기 등 학교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지도해주세요.
필수 C	평소 공부가 불안정합니다. 부모님은 '집에서 지켜야 할 공부'를 통해 학교에서 돌아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주말에는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등 규칙적인 평소 공부 습관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필수 D	벼락치기, 시간 부족 등 시험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시험 준비 4단계'를 통해 평소 공부가 가장 훌륭한 시험공부임을 알려 주시고 2주 전부터 시험 직전까지 단계별 시험 대비 전략을 지도해주세요.
필수 E	책상 앞에 앉으면 '뭘 공부하지?' 막막하군요. 계획적인 학습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학습계획, 시간 관리의 원칙'을 통해 시간 인식하기부터 학습계획, 계획 수정/점검까지 안정적인 공부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포인트 F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나에게 맞는 공부인지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코칭포인트 & 코칭 사례'를 통해 연령, 학년별 특징을 자녀의 연령/학년의 특징을 파악하시고, 수준과 성향을 고려해 적합한 학습전략을 고민해주세요.

기초(A), 필수(B, C, D, E), 포인트(F) 등 항목별 합계는 최저 0점~최대 9점입니다.  
자녀의 취약 부분을 확인하면 자기주도학습 코칭 가이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코칭 가이드, 2013, p.425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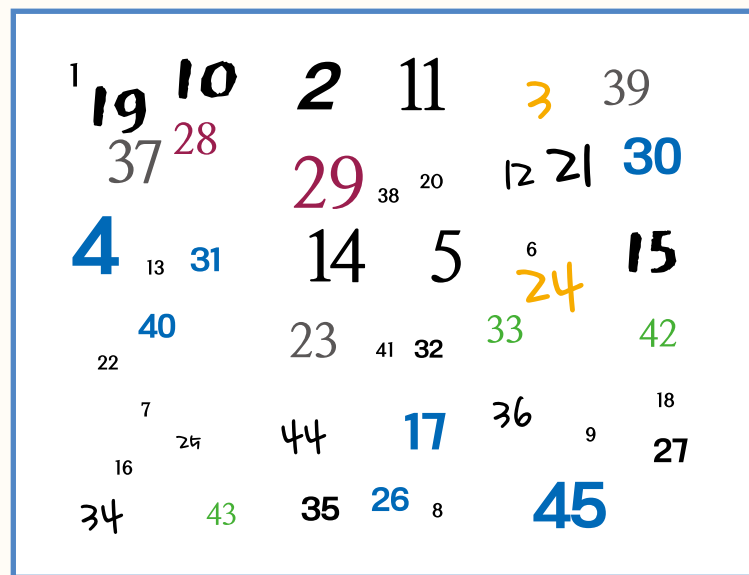
# 꼭 알아둬야 할 자기주도학습의 7가지 원리

대한민국 교육부



아래 그림을 보고 1분 동안 숫자를 1부터 순서대로 45까지 찾아보자.

얼마나 찾았는가? 숫자 배치에 원리가 숨어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45까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만 급하고 마음처럼 숫자가 찾아지지 않았다면 아마 원리를 발견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그림은 9개의 칸으로 균등하게 나뉘었을 때 숫자가 한 칸에 하나씩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 요리를 하거나 운동을 해도 기술이 필요하고 원리가 담겨있게 마련이다. 공부 같은 고차원적 사고 작용에 원리가 없다면 어마어마한 분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원리들은 확실히 존재한다. 그럼 이제 그 원리들을 알아보자.

## 1. 잘하고 싶고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첫째로 잘하고 싶다는 마음과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학생에게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공부를 계속하기가 어렵다.

어떤 꿈이 있고 그것을 이루려면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또 무슨 책으로 어떤 강의를 이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 거시적인 전략이나 매일의 공부에서 기술이라 할 전술도 갖춰야 한다.

특히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자기평가능력이다. 이하에서는 학습적 원리와 연관이 많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아보기로 한다.

## 2. 계획을 짜야 공부하고 싶어진다

학습을 위한 출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수치적 목표와 이를 위한 계획 짜기다. 공부하고 싶을 때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계획을 짜야 공부하고 싶어진다. 계획은 크게 일일, 주간, 월간, 연간 계획의 4종류가 있다.

### 일일 계획

공부가 잘되는 시간에 취약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과목과 교재, 그리고 분량단위로 계획을 짜되, 문제풀이 공부 시에는 문제당 시간을 시험 때와 같이 설정하고 문제 개수에 따라 공부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중학생은 학기 중 하루 3시간, 고등학생은 하루 4~5시간이라는 최소 자기 공부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학원에 많이 다니는 학생들의 공부시간이 하루 2시간 미만임을 감안할 때 학원 강의 수강으로 소진하는 시간을 없애야만 제대로 된 일일 계획을 짤 수 있을 것이다.

### 주간 계획

6일 치를 짤다. 7일 치 계획을 짜면 마음은 뿌듯하겠지만 실천은 불가능하다. 그 누구도 일정 정도의 여유분 없이 계획을 짜면 실천이 어려워진다. 일요일에는 하루 정해진 분량을 다했을 경우 쉬고, 못했을 경우 보충한다. 6일 계획은 보통 시험 준비기간이 아닌 때를 가정할 때 '영수국/영수사/영수과/영수국/영수사/영수과'의 과목 배치를 하는 것이 고민을 더는 지름길이다. 중학생은 각각 1시간씩 하고 고등학생은 수학에 3시간, 나머지 과목에 1시간씩을 배치한다.



### 월간 계획

주로 시험 대비기간을 위해 짠다(한 달은 4주라고 가정). 시험 전 4주차에는 평소 영어, 수학 위주의 공부패턴을 유지하되, 시험기간에 이 둘의 과목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 않도록 실력을 제대로 다져야 한다. 3주차에는 국·영·수 위주로 시험 대비모드로 돌입한다.

교과서와 자습서, 문제집, 학교 수업내용 등을 위주로 공부한다는 뜻이다. 2주차에는 사회와 과학 계열 과목을 위주로 공부하되 과목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고, 다했다면 복습을 병행한다. 1주차에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초기 3일은 그동안 못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보충하는 기간이다. 나머지 4일은 시험 보는 과목들의 순서와 역순으로 공부하면서 마무리한다. 시험 기간 동안 예도 끝까지 최종 반복을 위한 베틀치기는 놓치지 않는다.

### 연간 계획

주로 장기간에 걸쳐 이번 학기 또는 올해에 어떤 것을 주로 공부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선행학습을 해야 하는지 후행학습을 해야 하는지, 영어 문법은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하는지 등,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계획도 함께 있어야만 나중에 방향을 잃고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

## 3. 뚜렷한 목적성을 가져라

백지에 내가 어제 외운 영어단어를 과연 몇 개나 쓸 수 있는지 써보자. 어제 공부한 과학 실험을 과정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써보자. 어제 풀어본 수학 문제 중에 아무거나 임의로 정해서 풀어보자.

이때 자신감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제대로 공부한 것이다. 목적성이란 이렇게 '능동적 자기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제대로 답하기 위해 공부한다'라는 의식을 말한다. 지금 외우는 단어가 내일 자기평가 때 30% 이상 답할 수 있도록 외우려는 학생과 그냥 열심히 외우려는 학생과는 목적성 자체가 다르다. 전자의 경우가 지루함을 방지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곧 자기평가능력이 좋은 것이며 많은 상위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 4. '이해'부터 '문제해결'까지 5원칙을 준수하라

과목을 막론하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5개의 원칙이 있다. 바로 이해하기-사고하기-정리하기-암기하기-문제 해결하기다.

이 중에서 요새 학생들이 지나친 학원 교육에 젖어들면서 기피하는 부분이 이해와 사고이다. 이해와 사고 부분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많이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과정을 등한시하고 문제 풀고 외우는 데에만 집착해서 득점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이 많아지고 문제유형이 다양화되며 높은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도록 요구하는 고등학교 학습에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내용에 대한 이해와 사고 쪽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5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공부를 하자.

## 5. 예습-복습-수업 '기본'에 충실하라

해마다 수능 전국 수석의 인터뷰는 수많은 일반 학생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저런 소리는 나도 하겠다라고 말이다. 그러나 수능 수석한 학생이 어느 학원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아마 전국에서 '예습-복습-수업'이라는 기본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보통 학생들에게 예습을 하라고 책을 주면 학생들이 보통 하는 일은 그냥 읽기다. 그러나 그냥 읽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예습은 책을 읽고 나서 '뭔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알고 싶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즉, 예습은 '다 알려고' 한다기 보다 '뭔가 있나'를 알기 위해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다음은 수업 듣기다. 수업시간에 수업 듣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간 사용은 없다.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는 궁금증을 갖기 위한 예습이 전제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예습에서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특히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필기를 열심히 해야 한다. 미래의 나에 대한 배려라는 관점에서 수업 내용을 가능한 빠짐없이 핵심 위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생각하는 필기를 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런 마음이 수업에 대한 집중도 가능케 한다. 복습은 예습과 수업듣기로부터 너무 오래 걸려서는 안 된다.

최소한 그 주에 배운 내용은 그 주에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복습은 반복이 생명이며 망각을 방지하려면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반복만이 살길이다.

## 6. 학습의 입력·출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요새 학생들의 공부를 관찰하면 입력과 출력 모든 부분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선 공부에서 입력이라고 하면 수업을 듣고 스스로 익히는 과정을 뜻한다. 출력이라 하면 사실 시험을 보는 것인데 이를 대비하려고 문제를 풀고 공부한 내용을 자기평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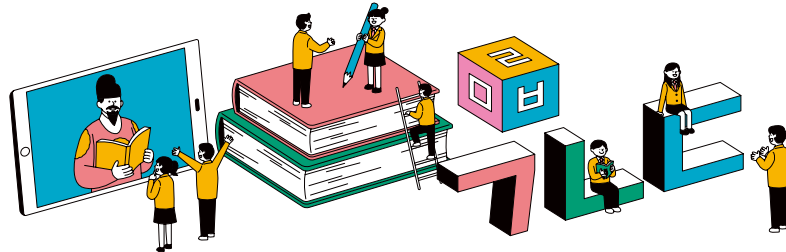
그런데 첫째로 입력에서 부조화가 생긴다. 수업만 많이 듣고 스스로 익히는 과정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배운 내용이 머리 주변에서 맴돌지만 머릿속으로 익혀지지는 않는다. 이것이 입력 부조화다. 두 번째로 출력 부조화다. 문제집은 푸는데 정작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꺼내서 설명해보는 일은 거의 없다. 그냥 문제만 풀어서 맞추면 출력 연습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험 보는 출력이 문제풀이 방식이고 평소 출력 연습도 문제풀이 방식에 그친다면 연습과 실전이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즉, 문제만 푸는 소극적 출력뿐만 아니라 내용을 백지에 설명하는 적극적 출력까지 연습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 보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 7. 국어·영어·수학 과목별 학습법을 적용해 보자



국어



대부분 학생들에게 국어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목이다. 그러나 국어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자습서 내용 옮겨 적기다.

그다음 단계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습서와 비교한 후 옮겨 적기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냥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글이나 장르의 핵심 사항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습서의 생각과 비교한 후 정리된 내용을 교과서에 적어 놓고 수업을 듣는 것이다. 이것은 사고력을 길러주고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언어영역에서도 처음 보는 지문을 감상하거나 분석하는 힘을 길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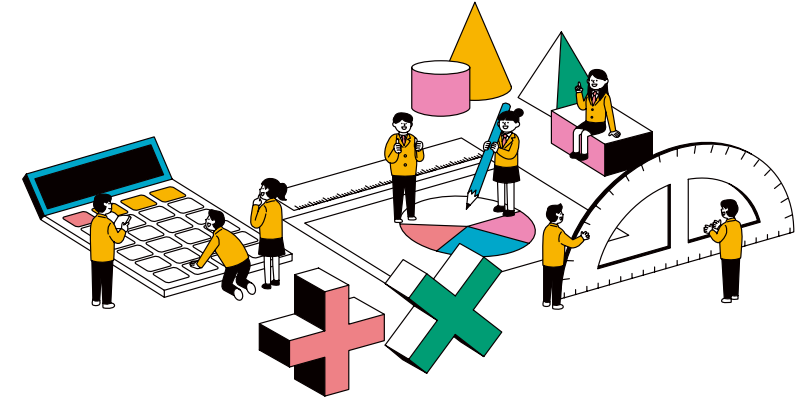
영어



영어 공부는 문법/단어/독해/듣기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데(쓰기나 말하기는 표현하기 이므로 제외한다), 이 중에서 문법이 가장 골치 아픈 영역이다. 문법은 구조적이고 이해해야 할 내용이 많다. 따라서 어느 형태든 강의를 병행하고, 철저히 예습을 해야 한다. 수업시간 필기는 필수다. 듣고 써온 내용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외워야 한다. 특히 영문법은 '선 암기 후 이해'다. 단지 문법 설명뿐만 아니라 예문도 함께 외우는 것이 좋다.



수학



수학은 우선 정의나 정리를 그대로 말하거나 공식을 유도 혹은 증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출발한다. 일차함수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일차함수 내용도 설명할 수 있어야 정상이다. 일차함수의 정의가 뭐고 기울기가 뭐고 절편이 뭐고 평행이동이 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시험지나 연습장에 잘 정리하면서 푸는 능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시험시간에 흥분해서 엉망으로 푼다면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없다. 세 번째로 공식뿐만 아니라 자주 나오는 문제의 풀이 유형이나 항상 틀려서 자신 없는 문제의 풀이과정 등도 암기의 대상이다.

수학 과목은 암기가 아니지만 수학시험은 암기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진리다. 마지막으로 문제풀기인데 문제를 풀 때는 한 문제당 몇 분을 사용해서 풀 건지 정해야 한다. 또 난이도에 따라 별표를 구분해서 쳐 둬으로써 취약문제를 구별하고 완성도 있게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답을 보기 전에는 충분히 길게가 아니라 충분히 여러 번(한 문제 안 풀린다고 한 시간 고민하기 보다 15분씩 네 번 고민하는 것이 좋다) 고민해보고 난 후 하도록 한다.

또 답을 볼 때는 한 문제 답보고 바로 푸는 것이 아니라 답을 미리 봤다가 그날 진도를 다 나간 후 풀어보자. 그래야 답을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힌트만 생각해서 자기가 풀어보게 되는 셈이고 실력이 는다.

## 8. 마치면서

지금까지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필요한 공부의 원리 7가지를 알아보았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임무에 최선의 성실함과 제대로 된 방법론을 가미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대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학생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위의 내용들을 실천해보자.

### 〈참고 문헌〉

출처: <https://if-blog.tistory.com/857> [교육부 공식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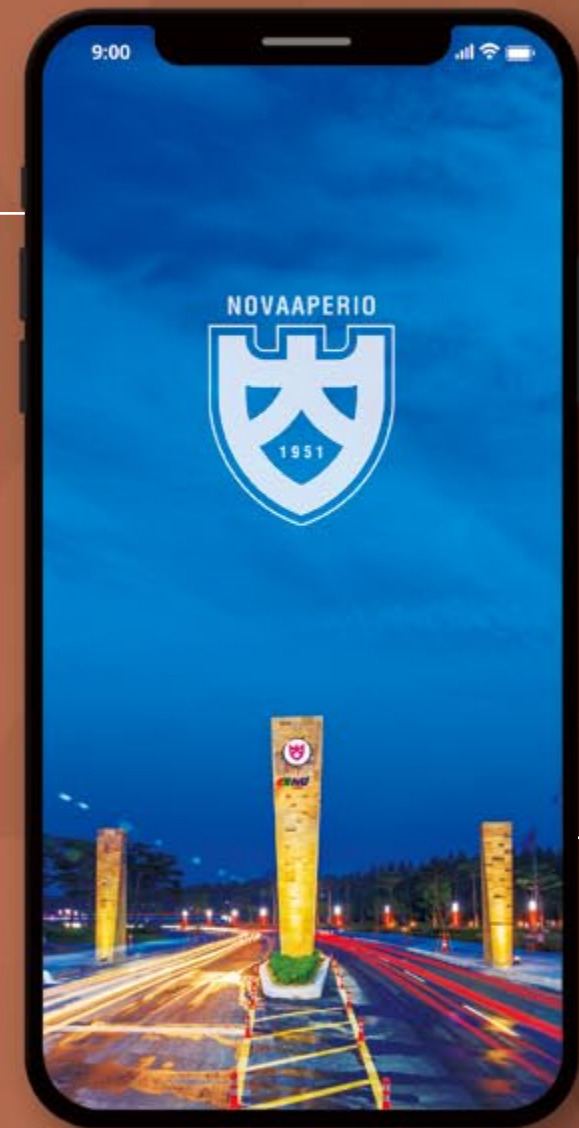
# AAA

## All About Admissions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은  
수험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 V.CBNU

122	충북대학교로 떠나보는 여행
124	사진으로 보는 충북대학교
126	2022학년도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140	한 눈에 보는 대학입학전형
142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 Travel to CBNU

## 충북대학교로 떠나보는-여행

### 내 손안에서 떠나는 충북대학교 여행

여행가기 힘든 요즘, 손쉽게 충북대학교로 여행 가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큐알코드를 찍어서 충북대학교 투어를 하세요. VR 통해서 보면 감동이 두 배~!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과대학은 지역사회와 국민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 개신문화관

충북대학교의 중심에 있는 개신문화관은 세미나 및 전시회 등을 열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지하에는 학생들을 위한 상가도 입점되어 있습니다.

#### 사범대학

사범대학은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충북 제일의 명문 사범대학으로서, 그동안 1만 명이 넘는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여 충북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교사, 교육행정가,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은 1991년 설립인가 되어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실천적인 응용을 주된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으며,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경영대학

경영대학은 1987년에 설립되어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현장화 시대에 기능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경영인력을 양성하고, 경영 및 경제 현상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에 기여해 왔습니다.

#### 충북대학교 도서관

충북대학교 지식의 요람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019년도에 증축 리뉴얼을 맞춰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더욱 더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은 1951년 충북대학교의 모체인 청주농과 초급대학 으로 개교한 이래 지난 60여 년 동안 농업생명환경 분야에 필요한 전문 고급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국가와 해당 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 대학본부

1951년부터 현재까지 70주년을 맞는 충북대학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모든 행정과 실무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 충북대학교 정문

2016년 5월 새로 리뉴얼한 충북대학교 정문은 기존의 딱딱한 느낌을 벗어나고 조형미를 갖춘 밝은 느낌의 정문으로 탈바꿈 하였으며, 주변의 자연경관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주변 시민들의 공원이 되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날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법무분야에 관련한 이론과 실무를 심도 있게 교육·연구함으로써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충북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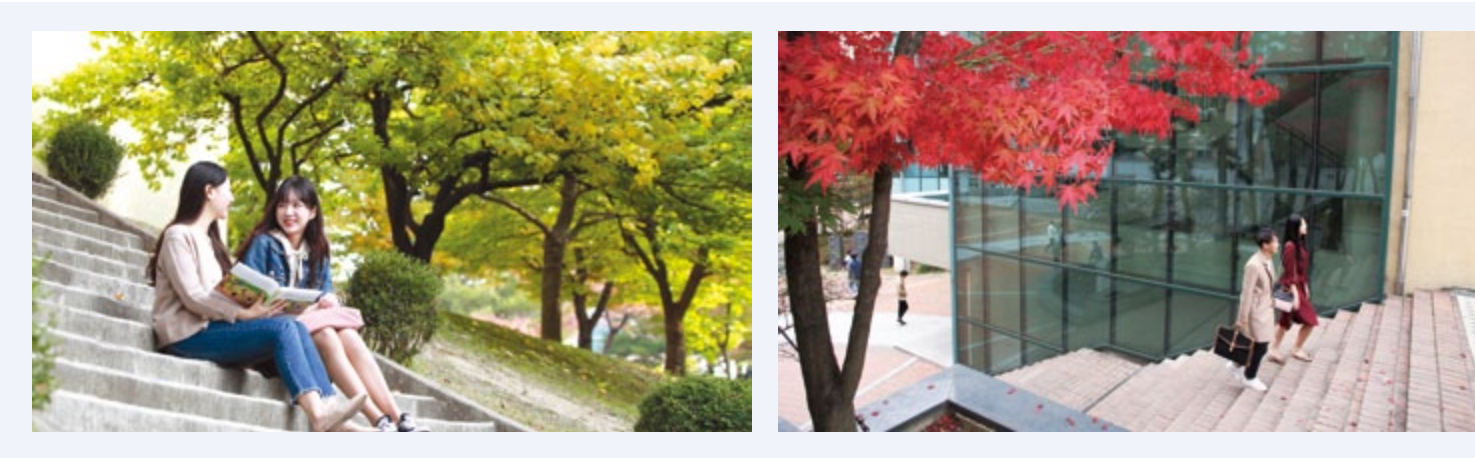
## 대학본부

충북대학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모든 행정과 실무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높은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배출해 왔으며, 사회와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법조인을 만들어내려는 고유의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2022  
학년도

#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 본 기본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 시에는 모집시기별 모집요강을  
우리대학 입학정보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2022학년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모집시기	정원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수시	정원내	학생부 종합	①학생부종합Ⅰ ②학생부종합Ⅱ ③SW우수인재	506 209 30	• 일괄합산: 서류평가 80점	X O X
		학생부 교과	④학생부교과 ⑤지역인재 ⑥국가보훈대상자 ⑦사회적배려대상자	712 291 23 52	• 일괄합산: 학생부교과 80점	O O X X
		실기/실적	⑧체육특기자	7	• 일괄합산: 학생부교과 18점 + 학생부출결 2점 + 특기실적 80점	X
	정원외	학생부 종합	⑨농어촌학생	111	• 일괄합산: 서류평가 80점	X
		학생부 교과	⑩특성화고출신자 ⑪특수교육대상자 ⑫특성화고졸재직자	35 55 40	• 일괄합산: 학생부교과 80점	X
		기타	⑬재외국민	56	• 모집요강 참조	X
	계		－ 정원내: 8개 － 정원외: 5개	2,127 (68.5%)		
정시	정원내	수능	⑭정시가군 일반 ⑮정시나군 일반 ⑯정시가군 지역인재 ⑰정시나군 지역인재	408 509 10 15	• 일반모집단위: 수능 1,000점 • 예체능(체육교육): 수능 650점 + 실기 350점	－
		실기/실적	⑱정시가군 일반	38	• 예체능(조형예술, 디자인): 수능 500점 + 실기 500점	－
	정원외	수능	수시 정원외 미충원인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출신자)	수시 미충원	• 일괄합산: 수능 1,000점	－
		학생부 교과	수시 정원외 미충원인원 (특성화고졸재직자)	수시 미충원	• 일괄합산: 학생부교과 80점	－
	계		－ 정원내: 5개	980 (31.5%)		
합 계				3,107 (약대포함)		

※ 2022학년도 학생조정계획 및 국책사업 선정에 따라 전형별·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2 주요 변경 내용

### 1. 수시모집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Ⅰ전형) 전형방법 변경

2021학년도	2022학년도
1단계(3배수): 서류 100% 2단계(1배수): 서류 80% + 면접 20%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일괄합산(1배수): 서류 100%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2.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정원내 전형 변경

### 3. 수시모집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전형유형 변경

– 전형유형: 학생부종합 → 학생부교과

### 4.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사범대학 인·적성면접 미 실시

### 5. 수시모집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6. 수능 개편에 따른 수능 지정영역, 정시모집 가산점 적용방법 변경

– 세부사항 전형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참조

### 7. 정시모집 수능(일반전형) 체육교육과 전형방법 및 실기고사 종목 변경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실기	인·적성면접	계	수능	실기	계
600점 (68%)	350점 (28.6%)	50점 (3.4%)	1,000점 (100%)	650점 (72.4%)	350점 (27.6%)	1,000점 (100%)
– 실기종목: 2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농구 레이업 슛				– 실기종목: <b>Z자 달리기</b> , 제자리 멀리뛰기, 농구 레이업 슛		

### 8. 정시모집 군 설정 변경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가군	나군	가군	나군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전자정보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융합학과군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의과대학 자율전공학부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자율전공학부 융합학과군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전자정보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의과대학

## 3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정원내)

1. 모집인원 :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Ⅰ전형) 506명,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Ⅱ전형) 209명,  
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30명

### 2.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Ⅰ전형)	○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 불가능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Ⅱ전형)	
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 3. 전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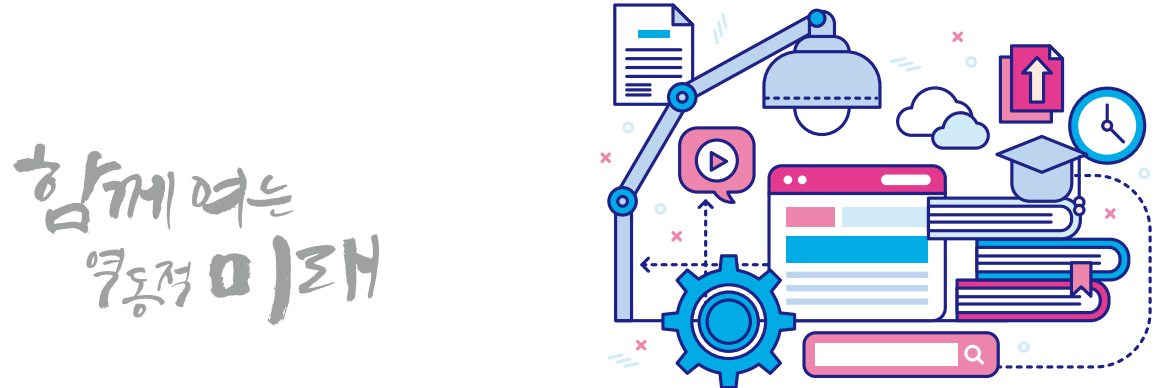
####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서류평가	계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일괄합산	100%	미반영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Ⅱ전형)	일괄합산	100%	반영 (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 > 서류평가방법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평가영역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Ⅰ전형)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Ⅱ전형) 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80점	40점	40점	전문성/인성/적극성

### 4.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종합Ⅱ전형 적용



4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정원외)

1. 모집인원 :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111명

2.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div>○202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 전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div> <div>1.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div> <div>2.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 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div> <div>    - 부모의 사망(실종), 이혼, 재혼 등의 경우에는 우리대학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거주요건을 별도 심사(기준은 추후 모집요강에서 안내)</div> <div>※ 재학기간은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임</div> <div>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div> <div>※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div> <div>※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농어촌지역(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동을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인정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중 농어촌지역(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인정]</div> <div>※ 농어촌 및 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제외</div> <div>※ 재학기간 중 거주불명등록(또는 주민등록말소) 기록이 있는 경우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사정대상에서 제외됨</div> <div>※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 불가함</div>

3.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서류평가	계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일괄합산	100%	미반영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 서류평가방법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평가영역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80점	40점	40점	전문성/인성/적극성

4.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5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정원내)

1. 모집인원 :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712명,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291명,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23명, 학생부교과(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52명

2.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div>○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div>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div>○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충청권(충북, 세종, 대전,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div> <div>※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충청권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div> <div>※ 고등학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한함</div>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div>○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자 &lt;국가보훈처의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gt;</div> <div>※ 보훈관계법령</div> <div>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div> <div>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div> <div>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div> <div>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div> <div>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div> <div>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div>
학생부교과 (사회적배려 대상자전형)	<div>○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div> <div>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를 가구단위로 보장받은 가구의 학생, 혹은 개인단위로 보장받은 본인</div> <div>2.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차상위부가 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혹은 개인 단위로 보장받은 본인</div> <div>3.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의 학생</div>

3.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학생부교과	계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일괄합산	100%	반영 (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일괄합산	100%	미반영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4.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6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정원외)

1. 모집인원 :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35명,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55명,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40명

### 2.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교과 (특성화고 출신자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의 2022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한 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우리 대학이 지정한 모집단위별 동일 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li><li>※ 단, 동일계열 기준학과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함</li><li>※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출신자 제외</li></ul></li></ul>
학생부교과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li><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li></ul></li></ul>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li><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li><li>－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li><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li><li>－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li></ul></li></ul></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산업체 범위<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li><li>－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4대보험 가입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li><li>※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사실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li><li>※ 군경력(병역법 제5조 1항 1호 및 3호에 의한 현역 보충역 의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li></ul></li></ul></li><li>○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2022. 3. 1. 기준</li><li>○ 산업체 재직경력 합산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ul style="list-style-type: none"><li>예)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li></ul></li><li>○ 학생자격 유지기준: 입학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ul></div>

### 3. 전형방법

####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학생부교과	계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일괄합산	100%	미반영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 4.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7 수능 반영 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1.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모집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과학	직업	
인문	전 모집단위	●	●	●	●	●	●	●	●	●	●
자연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	●		●	●	●		●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제외),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제외)	●	●	●	●	●	●		●		●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	●	●	●	●	●	●	●		●
공통	자율전공학부	●	●	●	●	●	●	●	●	●	●

※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시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에 응시하여야 함  
※ 탐구영역은 해당 반영 영역에서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나,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최저학력기준 등급 합에는 미포함됨

2.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I 전형),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충족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II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인문	인문대학	전모집단위	13등급 이내	12등급 이내	13등급 이내
	사회과학대학	전모집단위			
	경영대학	전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생활과학대학	전모집단위			
	사범대학	전모집단위	—	9등급 이내	—
자연	자연과학대학	전모집단위	13등급 이내	12등급 이내	13등급 이내
	공과대학	전모집단위			
	전자정보대학	전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전모집단위			
	생활과학대학	전모집단위			
	사범대학	전모집단위	—	9등급 이내	—
	수의과대학	전모집단위	8등급 이내	7등급 이내	8등급 이내
	약학대학	전모집단위			
	의과대학	의예과	5등급 이내	4등급 이내	5등급 이내
		간호학과	11등급 이내	10등급 이내	11등급 이내
공통	본부직할	자율전공학부	—	12등급 이내	13등급 이내

※ 자연계 모집단위는 수학 필수 반영(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학과는 수학 필수 미반영, 국가보훈대상자 수학 필수 미반영)  
※ 자연계 및 공동체 수학 나형 응시자는 위 표에 제시된 등급보다 2등급(공동체는 1등급) 상향된 등급을 충족시켜야 함(해당영역 반영여부와 상관없음)  
※ 탐구는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

>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 sw우수인재, 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8

수시 학생부 반영방법

1.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전형구분	학년별 반영비율 (%)	반영비율(%)		교과성적반영					비교과성적반영			
	1·2·3 학년	교과	비교과	반영 요소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점수	과목별 가산점	반영 요소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점수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100%	100%	미반영	석차등급· 이수단위/ 검정고시 합격성적	80점	40점	40점	없음	—	—	—	—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100%	90%	10%	석차등급· 이수단위	18점	2점	16점	없음	출결	2점	—	2점

2. 교과성적 반영교과 및 과목 수

학년	계열	반영교과	과목수
1학년	전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해당교과 전과목
2·3학년	인문계 예체능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공통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검정고시 합격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검정고시 성적 반영(전 계열 공통)

※ 국외 고등학교 성적: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

※ 자세한 점수 산출 방식은 추후 모집요강에 안내



9

정시모집

1. 모집인원 : 수능(가군 일반전형) 408명, 수능(가군 지역인재전형) 10명  
실기/실적(가군 일반전형) 38명  
수능(나군 일반전형) 509명, 수능(나군 지역인재전형) 15명

2. 지원자격

군	전형명	지원자격
가군	수능 (일반전형)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실기/실적 (일반전형)	
	수능 (지역인재전형)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충청권 (충북, 세종, 대전,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 ※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충청권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한함
	수능 (특별전형)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정원의 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수시 정원의 전형(특성화고출신자, 농어촌학생) 미충원 인원
나군	수능 (일반전형)	○ 가군과 동일함
	수능 (지역인재전형)	○ 가군과 동일함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미충원 인원
	수능 (특별전형)	○ 가군과 동일함

3. 전형방법

> 수능(일반전형), 수능(지역인재전형), 수능(특별전형), 실기/실적(일반전형) 반영비율

모집단위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계	최저학력기준
		수능	실기		
인문계, 자연계(과탐 인정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0점 (100%)	—	1,000점 (100%)	제한 없음
자연계(사탐/과탐 인정 모집단위), 자연계(특성화고출신자전형 모집단위), 공통계	일괄합산 (100%)	1,000점 (100%)	—	1,000점 (100%)	
예체능계(조형예술, 디자인)	일괄합산 (100%)	500점 (44.4%)	500점 (55.6%)	1,000점 (100%)	
예체능계(체육교육과)	일괄합산 (100%)	650점 (72.4%)	350점 (27.6%)	1,000점 (100%)	



>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학생부교과	계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일괄합산	100%	미반영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4. 수능 반영방법

> 반영영역

모집 계열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가산점 영역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과학	직업		
인문	전 모집단위	●	●	●	●	●	●	●	●	●	●	—
자연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	●		●	●	●		●		●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제외),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제외)	●	●	●	●	●	●		●		●	—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	●	●	●	●	●	●	●		●	과학 탐구
	특성화고졸신자 전형 모집단위	●	●	●	●	●	●	●	●	●	●	과학 탐구
예체능	전 모집단위	●	●				●	●	●	●	●	—
공통	자율전공학부	●	●	●	●	●	●	●	●	●	●	과학 탐구

- ※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에 응시하여야 함  
※ 탐구영역은 해당 반영 영역에서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나,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수능 성적 계산에는 미포함됨



> 반영비율

모집 계열	모집단위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국 어	수 학	영 어	탐 구
인문	전 모집단위	30	20	20	30
자연	전 모집단위	20	30	20	30
예체능	전 모집단위	40	—	20	40
공통	자율전공학부	25	25	20	30

> 반영점수 및 산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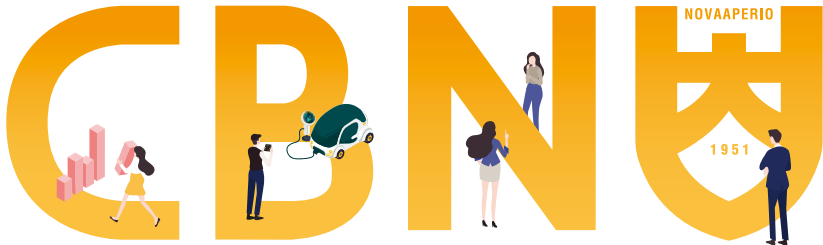
— 모집계열별 수능 반영점수

모집계열	모집단위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인문계, 자연계(과탐 인정 모집단위)	해당학과	1,000점	800점	200점
자연계(사탐/과탐 인정 모집단위), 자연계(특성화고졸신자전형 모집단위) 공통계	해당학과	990점	790점	200점
예체능계(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	해당학과	500점	300점	200점
예체능계(체육교육과)	해당학과	650점	430점	220점

- ※ 수능(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자연계 사회탐구/과학탐구 인정 모집단위 지원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 공통계 모집단위 지원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 수능(특성화고졸신자전형) 자연계 모집단위 지원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는 과학탐구 응시 과목 수 및 취득 표준점수를 고려하여 수능 가산점 부여  
※ 수능 영역별 기본점수: 기본점수 총점×영역별 반영비율  
※ 수능 영역별 실질반영점수: 실질반영점수 총점×영역별 반영비율

> 점수산출 활용지표

- 국어, 수학, 탐구: 영역별 취득 표준점수  
— 영어: 절대평가 등급  
※ 자세한 점수 산출 방식은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







# 한 눈에 보는 대학입학전형 처리 절차 및 방법 안내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과정입니다. 대학에 따라서 절차의 운영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전형을 운영하고 합격자를 선정하여 발표하기까지 대학에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1. 원서접수



## 2. 지원자격 심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원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원자를 선별합니다.



## 4. 서류평가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조를 이루어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 지원자의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3. 서류검증위원회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표절과 대필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을 합니다.



## 5. 재평가

1차 서류평가 결과, 평가자 간의 평가결과가 일정점수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 6. 자체감사 및 공정성 관리

서류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 7.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최종합격자 사정 기준을 통해 합격자 예비심의를 합니다.



## 8. 대학입학사정위원회 최종합격자 심의를 합니다.

## 9. 최종합격자 발표



**원서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충북대학교는 이렇게 선발합니다.**

원서접수 후 합격자 발표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대학에서는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궁금하시죠?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와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면 대학의 학생선발과정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충북대학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 수시모집 ● 정시모집 ● 추가모집

원서 접수  
2021. 09. 10.(금)~14.(화) 중 3일 이상

수시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  
2021. 12. 28.(화)

추가모집 원서접수·전형·합격 통보 마감·등록  
2022. 02. 22.(화)~28.(월)  
※ 합격 통보 마감: 2022. 02. 27.(일) 21:00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정시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2022. 02. 21.(월)

합격자 발표  
2021. 12. 16.(목)까지

원서 접수  
2021. 12. 30.(목) ~  
2022. 01. 03.(월) 중 3일 이상

합격자 발표  
2022. 02. 08.(화)까지

2021년

9 September

10 October

11 November

12 December

2022년

1 January

2 February

전형기간  
2021. 09. 15.(수)~12. 15.(수)(92일)

## 수시모집

원서 접수  
2021. 09. 10.(금)~14.(화)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21. 09. 15.(수)~12. 15.(수)(92일)  
합격자 발표  
2021. 12. 16.(목)까지  
합격자 등록  
2021. 12. 17.(금)~20.(월)(4일)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21. 12. 27.(월) (합격자 발표 21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수시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  
2021. 12. 28.(화)

## 정시모집

원서 접수  
2021. 12. 30.(목)~2022. 01. 03.(월) 중 3일 이상  
정시 가군  
2022. 01. 06.(목)~13.(목)(8일)  
나군  
2022. 01. 14.(금)~21.(금)(8일)  
다군  
2022. 01. 22.(토)~29.(토)(8일)  
합격자 발표  
2022. 02. 08.(화)까지  
합격자 등록  
2022. 02. 09.(수)~11.(금)(3일)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2022. 02. 20.(일) (합격자 발표 21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정시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2022. 02. 21.(월)

## 추가모집

접수·전형·합격 통보  
마감·등록  
2022. 02. 22.(화)~28.(월)  
※ 합격 통보 마감: 2022. 02. 27.(일) 21:00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등록 기간  
2022. 02. 28.(월)

합격자 등록  
2021. 12. 17.(금)  
~20.(월)(4일)

전형기간  
가군 : 2022. 01. 06.(목)~13.(목)(8일)  
나군 : 2022. 01. 14.(금)~21.(금)(8일)  
다군 : 2022. 01. 22.(토)~29.(토)(8일)

추가모집 합격자 등록  
2022. 02. 28.(월)  
합격자 등록  
2022. 02. 09.(수)~11.(금)(3일)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2021. 11. 18.(목) / 성적통지일: 2021. 12. 10.(금)

성공은 내일을  
위한 도전!

